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김석운 · 송정희 · 이재섭

발 간 사

신들의 고향이자, 신화의 섬 제주에서 무속은 제주 섬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특히 제주인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인 신당에는 이야기인 신화가 있고 사제자인 심방과 그곳을 신앙처로 여기는 신앙민인 단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유산이기도 한 신당은 현재 소멸되어가고 있어서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유권 조사와 보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당이 마을공동체의 정신적 뿌리로서 해녀와 어부들에게는 공동의 바다 생업 지킴이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종교적 범위를 넘어 지역민의 단합과 소통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신당 및 무속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한 후, 신당의 주소지를 근거로 신당 소유권 변경, 이력사항, 현황, 지목, 소유권 형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각 신당들의 소유권 형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기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을에 속한 신당 보존 및 관리 주체는 마을 리사무소이며, 해신당의 경우는 어촌계가 중심인데, 특히 지속적으로 의례를 진행해 온 매인 심방이 신당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주 신당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신당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신당의 소유권을 마을로 귀속시켜 소유권과 관리의 주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의 신화나 신당들은 제주섬의 이미지를 한층 고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제주연구원
원장 강 기 춘

I.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신들의 고향이자, 신화의 섬 제주에서 무속은 제주 섬만의 독특한 문화 요소를 지니며 제주민의 고단한 삶을 조명하고 위로하였고, 제주도의 신당들은 제주의 기층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며 성소였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수난을 겪었다.
- 2008년 신당 조사 당시 신당 파괴 요인에 더해 제주개발의 열풍이 불고 있는 2017년에는 대단위의 개발 정책과 주택개발, 지속적인 소유권의 변동, 도로의 확충 등으로 멸실, 훼손되었고 남아 있는 신당들도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마을 공동체의 유산이기도한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유권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민간신앙 자체가 문화유산이며 문화적 실천이자 제도, 그리고 공동자원이기도 하다. 마을의 공동자원이기도 한 신당의 소유권에 대한 관계 조사 전무한 실정이므로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해서는 소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주의 문화적 요소이면서 정체성을 형성해오던 제주 신당의 문제는 신당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 조사를 통해 신당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주의 마을과 사람들에게 신당은 어떤 의미인가 대해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의 방법 및 연구내용

- 신당 및 무속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신당 주소 추출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신당 소유권 변경 등의 이력, 현황, 지목, 소유권 형태를 조사하였다.
- 본 조사는 제주시권 신당의 실질적인 소유권 형태에 대한 조사이다. 또한 당의 내력과 마을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제주 신당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연구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제주 신당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신당 및 무속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신당 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신당 소유권, 현황, 지목 조사하여 소유권의 형태 분류하였다. 소유권 형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등 각각의 소유권 형태가 골고루 분포된 마을의 신당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조사 및 현장의 마을 관계자 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의 신당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 도출하였다.

II. 제주 지역 신당의 특징과 분류

○ 선행연구

- 2008년과 2009년 2년간 제주도 전 지역의 신당에 대한 전수 및 현황 조사를 통해 발간된 보고서는 신당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신당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신당의 소유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신당의 공동자원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 제주시권 신당의 실질적인 소유권 형태에 대한 조사이다. 제주 신당과 관련하여 신화, 역사 등 민속학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사회학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단순한 소유형태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사회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리라 여겨지며 이를 통해 제주 신당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주 지역 신당 개요

- 제주도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은 그 신앙의 범위에 따라 일반신, 당신, 조상신으로 나뉜다. 일반신은 모든 사람들이 모시는 신, 당신은 한 마을 혹은 공동체가 함께 모시는 신, 조상신은 특정한 집안사람들만을 위한 신으로 신들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다.
- 당신은 마을마다 있고, 한 마을에도 각각 그 기능에 따라 다른 신을 모신 신당이 여럿 있다. 신체 형태로는 신목, 신석, 궤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과 제일로 신당을 구분하면 ① 본향당(本鄕堂) ② 일

웨당 ③ 으드렛당 ④ 축일당·술일당(개당) ⑤ 개당·돈짓당 ⑥ 처녀당 ⑦ 돛당 ⑧ 산신당(山神堂)으로 일반적으로 8종류로 나눌 수 있다.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에 수록된 제주시 192개소의 신당의 GPS를 통한 주소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주소들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바 개인 소유 92개소, 국가 소유 27개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21개소, 마을 소유의 21개소, 기업 소유의 5개소, 주소가 없거나 등기가 없는 신당이 26개소이다.

○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 유형 분석

- 국가 소유는 27개소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걸쳐 고르게 분포, 지목은 도로가 다수이고, 그 밖에 하천, 임야, 학교 등 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21개소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걸쳐 고르게 분포하며, 지목은 도로, 임야, 잡종지, 종교용지, 공원, 전, 수도용지 등 이다.
- 마을이 소유권을 가진 신당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지목은 임야가 많았다.
- 기업 소유의 신당은 5개소로 호텔 신축과 함께 멸실된 경우도 있으며, 기업 소유의 경우 마을에서 신당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 개인 소유의 신당은 92개소로 소유자가 마을에 거주하는 형태와 소유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형태, 외지에 거주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주소나 등기가 없는 신당은 해변, 천변에 위치해 주소가 없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GPS 오류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 조사 및 결과 분석

○ 현장 조사 결과 분석

- 구좌읍 동북리, 김녕리, 월정리, 하도리, 송당리, **조천읍**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와흘리, **애월읍** 하귀리, **한림읍** 금능리, **옛 제주시** 회천동, 월평동 13개 마을에서 26개 신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 구좌읍은 동북리 본향 굴묵밭할망, 김녕리 본향 사당빌레 큰당, 동김녕 케네깃당, 동김녕 성세깃당, 서김녕 본향 녹리동산 일뿔당, 서김녕 서문하르방당, 월정리 본향 서당 머체 큰당, 서당, 하도리 본향 삼싱불도할망당,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각시당, 남당, 동동 일뿔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 조천읍은 조천리 세콧할망당(고망할망당),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 불래낭할망당,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 애월읍은 하귀리 하귀리(가문동) 해신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 한림읍은 금능리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본향 연딧가름 영감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 옛 제주시는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월평 본향 다라콧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V. 시사점 및 제언

○ 신당의 보존 현황 및 소유권 문제

- 신당 보존 및 관리 주체는 크게 마을, 어촌계, 심방 등으로 리사무소가 관리의 주체이며, 해신당의 경우 어촌계가 중심이다. 매인 심방이 신당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 신당의 부동산 소유가 개인인 경우에 소유자가 신당의 내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집안에서 신당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신당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관리한다.
- 신당의 관리의 주체는 마을이 담당하고 있다. 마을 소유의 신당의 경우 소유권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보인다. 관리 및 당굿 전승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제주 신당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한 신당의 토지 중에서 마을에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신당들의 소유권을 마을로 귀속시켜 소유권과 관리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마을의 신당을 가장 효율적인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신당의 공동자원화 및 문화재 지정 방안

- 마을의 신앙으로서 신당은 당곳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당에 찾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마을제인 포제에서 제를 지낼 때 신당에 가서 문전제 형식으로 제를 지내고 포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포제가 끝나고 신당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신앙으로써의 신당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당에서 의례의 형식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신당은 마을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제주의 신당은 마을공동체의 정신적 뿌리로서 기능, 해녀와 어부들에게는 공동의 바다를 관리하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 신당의 역할이 종교적 범위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소통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신당은 일정한 제일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성을 나누고, 당곳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소통을 만들어 왔다.
- 마을의 중심인 신당이 가졌던 공동체적 요소를 되살려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선 제주의 마을에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마을에 있는 모든 신당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개발 열풍에 휩쓸려 신당이 멸실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도 신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에 대한 마을 단위의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신당의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한 반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문화재 주변 개발 제한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쉽지 않다는 점에 대부분 마을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VI. 정책제언

- 신당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소유권 형태
 - 소유와 관리가 일원화 하여 마을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 마을이 신당 소유 및 보존의 주체가 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 마을 신당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방안
 - 마을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 관리 프로세스, 프로그램, 전문가 지원 등 관리 방안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신당의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 의례(당굿)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신당의 보존을 위해서는 마을의 당굿이 보존되어야 한다.
 - 마을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의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재 전문 관리 체계 마련
 - 제주 신당이 제주 문화를 보여주는 마을의 공간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최근까지 문화재청과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문화재지킴이, 문화재돌봄사업단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힘써 왔다. 향후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마을 신당의 공동체성 유지·확산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됨
 - 제주 지역 신당의 보존 형태, 소유 형태, 신당의 유래, 당의 이야기 전승, 당굿의 유무, 매인 심방의 유무, 신앙민의 존재 유무, 마을의 이용 형태, 마을 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 심도 있는 현장 조사를 통한 총체적 신당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마을 단위의 당굿의 현황 분석을 통해 당굿 보존 형태 및 당굿과 신당, 마을 사람들의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방법 및 범위	5
4. 연구내용	6
5. 연구의 제한점	8
II. 제주 지역 신당의 특징과 분류	9
1. 선행연구	9
2. 제주 지역 신당 개요	10
1) 제주도의 민간신앙 - 무속	10
2) 제주도 무속신의 분류	11
3) 제주도 신당의 구분	12
4) 제주도 신당의 위치	13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14
1.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14
1)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14
2) 제주도 민속문화재 등재 현황	28
2.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 유형 분석	29
1) 국가 소유 현황	29
2) 지방자치단체	32
3) 마을	33
4) 기업	35
5) 개인	36
6) 기타	37
3. 지목유형분석	40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42
1.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일정표	42
2.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결과	44
1) 구좌읍 동복리	44
2) 구좌읍 김녕리	45
3) 구좌읍 월정리	49
4) 구좌읍 하도리	51
5) 구좌읍 송당리	56
6) 조천읍 조천리	59
7) 조천읍 신흥리	60
8) 조천읍 함덕리	62
9) 조천읍 와흘리	67
10) 애월읍 하귀리	68
11) 한림읍 금능리	69
12) 옛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71
13) 옛 제주시 아라동 월평	73
V. 시사점 및 제안	74
1. 신당의 보존 유형 및 문제점	74
2. 신당의 소유권 문제	75
3. 신당의 공동자원화 방안	76
VI. 정책 제언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2
부록 1. 현장 면접조사표	84
부록 2. 현장조사 녹취록	87

<표 차례>

<표 1> 연구의 전개	7
<표 2> 제주시 신당의 위치	13
<표 3>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14
<표 4> 제주시 신당의 제주도 민속문화재 등록 현황	28
<표 5> 제주시 신당 소유 현황	29
<표 6>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국가 소유 목록	30
<표 7>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목록	32
<표 8>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마을 소유 목록	34
<표 9>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기업 소유 목록	36
<표 10> 개인 소유 유형 분석	37
<표 11> 기타 유형 분석	38
<표 12> 제주시 신당의 기타 소유 유형 - 해변	38
<표 13> 제주시 신당의 기타 소유 유형 - GPS 오류	39
<표 14> 제주시 신당의 기타 소유 유형 - 기타	40
<표 15>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지목유형	41
<표 16>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 조사 일정표	42

[그림 차례]

[그림 1] 제주시 신당 소유 현황	29
[그림 2] 개인 소유 유형 분석 그래프	37
[그림 3] 기타 유형 그래프	38
[그림 4] 제주시 신당의 지목 유형 분석	41
[그림 5] 동복리 본향 굴북밭할망당	44
[그림 6] GPS 위치 캡처	44
[그림 7] 김녕 본향 사당빌레 큰당	45
[그림 8] GPS 위치 캡처	45
[그림 9] 동김녕 궐네킷당	46
[그림 10] GPS 위치 캡처	46
[그림 11] 동김녕리 성세깃당	46
[그림 12] GPS 위치 캡처	46
[그림 13] 서김녕 본향 느므리동산 일뤼당	47
[그림 14] GPS 위치 캡처	47
[그림 15]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	48
[그림 16] GPS 위치 캡처	48
[그림 17] 월정리 본향 서당 머체 큰당	50
[그림 18] GPS 위치 캡처	50
[그림 19] 월정리 서당 흔적	50
[그림 20] 하도리 삼싱불도할망당	51
[그림 21] GPS 위치 캡처	51
[그림 22] 하도리 각시당 전경	52
[그림 23] GPS 위치 캡처	52
[그림 24] 하도리 남당 흔적	53
[그림 25] GPS 위치 캡처	53
[그림 26] 하도리 동동 일뤼당	53
[그림 27] GPS 위치 캡처	53
[그림 28]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54
[그림 29] GPS 위치 캡처	54

[그림 30]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56
[그림 31] GPS 위치 캡처	56
[그림 32]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57
[그림 33] GPS 위치 캡처	57
[그림 34] 조천리 새곶할망당	59
[그림 35] GPS 위치 캡처	59
[그림 36]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	60
[그림 37] GPS 위치 캡처	60
[그림 38] 신흥리 볼래낭할망당	61
[그림 39] GPS 위치 캡처	61
[그림 40] 함덕리 본향 알카름 서물당	63
[그림 41] GPS 위치 캡처	63
[그림 42] 함덕리 좇나니므르 일뤼당	63
[그림 43] GPS 위치 캡처	63
[그림 44] 함덕리 한양할망당	64
[그림 45] GPS 위치 캡처	64
[그림 46] 함덕리 스지므르 일뤼당 멸실	64
[그림 47] 함덕리 스지므르일뤼당 토지의 현재 모습	64
[그림 48]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67
[그림 49] GPS 위치 캡처	67
[그림 50] 하귀1리 해신당	68
[그림 51] GPS 위치 캡처	68
[그림 52] 금능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70
[그림 53] GPS 위치 캡처	70
[그림 54] 금능 본향 연덧가름 영감당	71
[그림 55] GPS 위치 캡처	71
[그림 56]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72
[그림 57] GPS 위치 캡처	72
[그림 58] 월평 본향 다라콧당	73
[그림 59] GPS 위치 캡처	73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급격한 개발의 파도를 맞아 생활조건이 크게 바뀔 상황을 맞고 있으며,¹⁾ 그 중 신당으로 대표되는 무속은 가장 큰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 신들의 고향이자, 신화의 섬 제주에서 무속은 제주 섬만의 독특한 문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제주민의 고단한 삶을 조명하고 위로해 왔다.
- 제주도민들에게 신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제주의 무속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문화유산이며, 지금도 살아 있는 민간신앙이다. “제주의 신당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뿌리로서 기능하며, 해녀 어부들에게는 바다일의 무사안녕을 지켜주는 생산현장의 지킴이 역할을 한다.”²⁾
- 고대로부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이 신앙이며, 하나의 신앙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제주도의 신당들은 제주의 기층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며 성소였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수난을 겪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국가 이념의 희생양이었으며, 구한말에는 가톨릭에 의해 희생되고, 휘철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 개발 독재시절에는 새마을운동의 흐름 속에서 꺾박의 대상이었다.³⁾
- 제주인의 공간은 기원과 제의, 그리고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곳’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그 공간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한 수많은 신들이 함께 깃들어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1) 조성윤(2017), 「제주의 바다와 땅,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진인진, 11쪽.

2) 문무병 외,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2008), 도서출판 각, 15쪽.

3) 문무병 외, 위의 책, 15쪽.

을4) 했으며 그 기원과 제의의 공간이 제주 신당이다. 이와 같은 제주 무속이자 종합예술인 굿의 주 무대가 제주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 신당이다.

- 제주도는 식민 지배를 받던 1912년부터 토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제주도의 토지를 근대적인 방식으로 측면, 실태를 파악하여 마을 간의 경계가 정해졌으며, 1926년에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등의 법령을 제정, 도민들이 마소를 방목하던 목장지대를 마을의 소유지로 인정하였으며, 1930년대가 되면 목야지 정리계획에 의해 공동목장 구역을 확정하여 운영할 주체로 마을 단위로 목장조합을 조직하여 관리하였다.⁵⁾
-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제주도 전역에 있는 마을 목장 중에서 리유지(里有地)로 되어 있는 땅들을 모두 빼앗아 군유지(郡有地)나 도유지(道有地)로 만들었으며, 중산간 목장 지대를 기업들에게 맡겨서 기업의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기업들이 소유했던 토지들은 대부분 골프장을 비롯한 위락 시설 부지가 되었다.⁶⁾
- 1990년대 개발의 중심은 해안 매립과 중산간 토지의 확보였다. 1999년 제주도는 거대 개발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외자유치가 이루어졌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단지 등의 사업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주들로부터 사들인 토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목장 용지와 농경지이다.⁷⁾
- 2008년 신당 조사 당시 신당 파괴 요인에 더해 제주개발의 열풍이 불고 있는 2017년에는 대단위의 개발 정책과 주택개발 등의 건설붐, 지속적인 소유권의 변동, 도로의 확충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고 사

4)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5쪽.

5) 윤순진(2006),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생태적 함의」, 『농촌사회』16(2), 54-56쪽.

6) 조성윤(2017), 「제주의 바다와 땅,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진인진, 27쪽.

7) 조성윤(2017), 위의 책, 28-31쪽.

라졌으며, 남아 있는 신당들도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제주 본연의 마을 공동체의 유산이기도 했던 신당의 공동자원화를⁸⁾ 위한 본격적인 소유권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 현재에도 제주는 마을 단위의 민간신앙이 유지되고 있다. 민간신앙의 대상이면서 의례가 행해지는 대표적인 장소가 신당이다. 제주의 민간신앙은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공동자원의 관리 문제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 바다와 관련된 문제들이 민간신앙을 통해 관리되고, 해녀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민간신앙 자체가 문화유산이며 문화적 실천이자 제도, 그리고 공동자원이기도 하다. 현재 마을의 공동자원이기도 한 신당의 소유권에 대한 관계 조사 전무한 실정이며,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해서는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과⁹⁾ 『제주신당조사 2009-서귀포시권』을 통해 제주도 전 지역의 신당에 대한 전수 및 현황조사가 이루어져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또 관광자원으로 제주신당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월평다락굿당, 와흘본향당, 송당본향당, 수산본향당, 세미하로산당 등의 신당도 있으나, 많은 신당들이 최근 뜨거운 제주

8) 이 논문의 제목은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이다. 하지만 연구진이 커먼즈commons의 번역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공자원과 공동자원을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최현의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2017, 45쪽~46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자원은 근대적 소유권 개념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자원이다. 공동관리자원이나 공공자원(또는 공개재)은 공동자원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인데, 경합성의 유무 따라 자원이 지속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눌 수 있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자원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경합성이 있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원의 지속유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연구보고서에서는 경합성이 없는 공공자원이 아니라 경합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자원으로써의 제주 신당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현 연구보고서에서 공공자원은 공동자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것을 밝힌다.

9) 문무병 외,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2008), 도서출판 각.

의 개발 붐과 공동체의 붕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훼손되고 멸실되거나 폐당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신당조사가 진행된 2008년 당시에는 급격히 팽창하던 농촌공간의 도시화의 진전과 관광개발을 빌미로 한 각종 개발사업의 성행이 신당 파괴의 주된 요소였다.¹⁰⁾ 2008년과 2009년 2개년의 조사에서 제주 신당은 제주시권 192개, 서귀포시권 200개로 총 392개로 확인되었으며, 제주 곳곳의 마을에 신당이 적게는 1-2개에서부터 많게는 7-8개 이상의 분포되어 있었다.¹¹⁾ 그러나 지난 10년간 제주는 내국인의 정착 붐에 따라 인구 변동이 심각했으며, 제주 전 지역이 급속하게 개발되면서 상당수의 마을 공동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 과거 30여 년간 무속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타파의 대상으로 삼았던 정책의 영향으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신당을 꺼리고 금기시하는 장소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을의 중심으로 의례가 이루어지던 신당이 개발과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훼손되거나 소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년 전 도로확장 과정에서 사라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일뿔당의 경우, 행정당국에 보존대책 마련하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었으며, 제주시 도평동 도평마을 뱅디대통뱃당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 본향 알카름 서물당의 경우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신당의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사유지에 위치한 제주시 오등동 죽성마을의 죽성설새밋당은 토지 주인이 허물어 버리면서 원형이 사라졌다.¹²⁾
- 현재 제주 지역의 신당 중 월평다락룻당, 와흘본향당, 송당본향당, 수산본향당, 새미하로산당의 5개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

10) 문무병 외,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2008), 도서출판 각, 16쪽.

11) 문무병 외, 위의 책, 16쪽.

12) 강정효, 「제주의 신(神)들도 개발 바람에 속절없이 쫓겨났다-강정효의 이미지 제주(13)-사유지 신당 보존대책 없어 안타까움만」, 『한국일보』(2016. 06. 22).

정되어 보호되고 있을 뿐, 나머지 신당은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당을 공동자원화 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당 소유 형태에 따라 보존·관리 방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주 신당의 소유권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제주 신당의 소유권은 크게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마을 소유, 기업 소유, 개인 소유 등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소유권이 개인에 있을 경우에도 실질적 소유는 마을일 수도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를 수도 있어 소유권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주 신당의 실질적인 소유권 현황에 대해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 문화유산의 바람직한 소유권 형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제주의 문화적 요소이면서 정체성을 형성해오던 제주 신당의 문제는 신당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 조사를 통해 신당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마을과 제주사람들에게 신당은 어떤 의미이며, 신당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 신당 및 무속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고, 신당 주소를 추출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신당 소유권 변경 등의 이력, 현황, 지목, 소유권 형태를 조사하였다. 2008년 발행된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의 제주시 지역 신당의 GPS를 활용하여 다음지도(<http://map.daum.net/>)에서 변환, 주소 추산 후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GPS로 추산한 제주시 신당 주소를 토대로 해당 신당 지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의 소유권과 세부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소유권 형태를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기타 등 소유권의 유형을 나누어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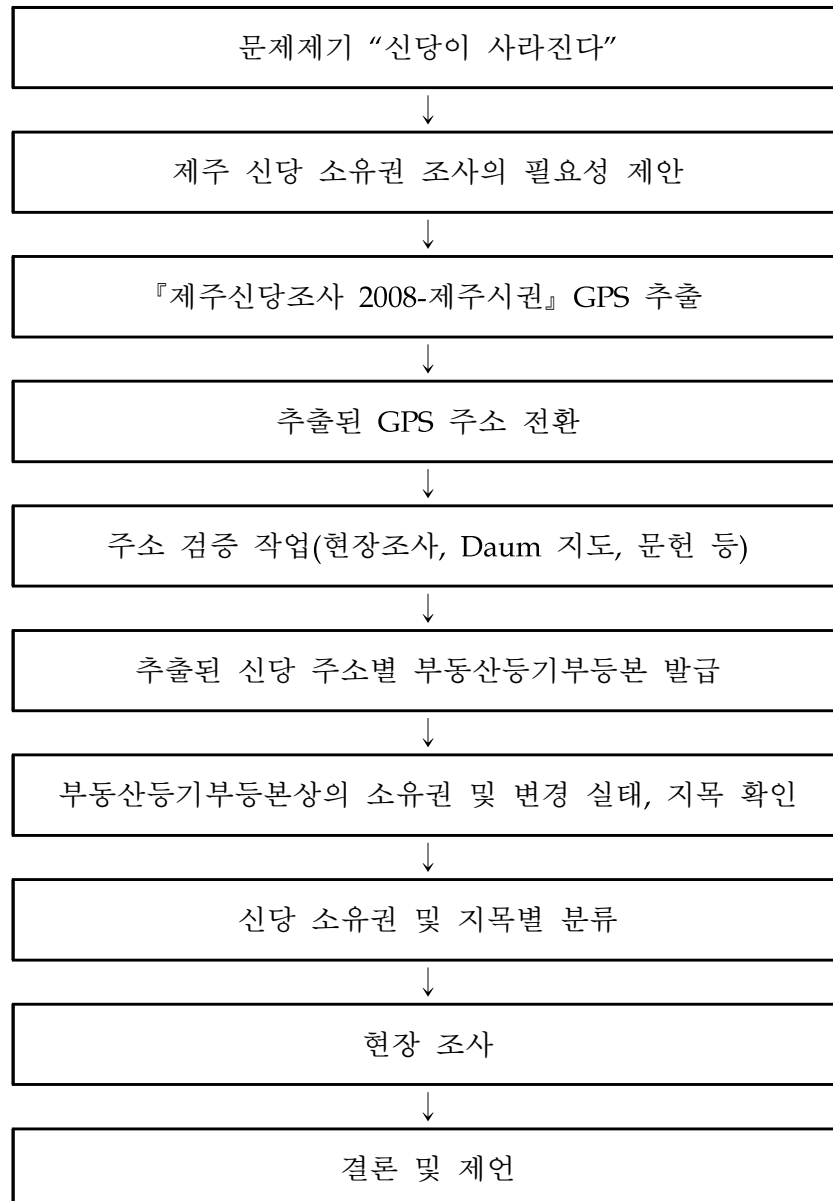
- 제주시 지역 신당의 현장 조사와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신당의 내력과 마을의 역사, 신당의 필요성과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견해 등을 리사무소와 어촌계 등을 찾아 현장 조사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등 각각의 소유권 형태가 골고루 분포된 마을의 신당 및 현재까지 잘 운영되는 마을의 신당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소유권 조사 및 면접 조사를 통해 2017년 현재, 마을 단위의 신당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찾아 신당이라는 공간의 소유권이 향후 제주의 개발의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공동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본 조사는 제주시권 신당의 실질적인 소유권 형태에 대한 조사이다. 또한 당의 내력과 마을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제주 신당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연구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제주 신당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내용

- 신당 및 무속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신당 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신당의 소유권 현황, 지목 등을 조사하여 소유권의 형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기타 등의 분류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등 각각의 소유권 형태가 골고루 분포된 마을의 신당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와 마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 조사를 통해 당의 내력 및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였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조사 및 현장 조사, 마을 관계자 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의 신당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 도출하였다. 신

당이라는 공간의 소유권이 향후 제주의 개발의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공동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의 전개



5.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2008년 제주전통문화연구원에서 펴낸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의 결과물을 기초자료로 삼아 GPS로 현재 주소를 추출하였다. 현재 마을 단위의 신당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며, 2014년 개편된 신주소로 확인할 수 없는 주소지가 많아 정확한 주소를 통한 소유권을 확인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
- 본 연구는 제주시 신당 중 13% 내외인 27여개소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일부 마을에 한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제주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현장 조사 및 다층적 면접 조사를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2017년 7월 24일 동일한 날짜에 발급받았다. 이후에 매매, 상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기부등본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II. 제주 지역 신당의 특징과 분류

1. 선행연구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과 『제주신당조사 2009-서귀포시권』은 2년간 제주도 전 지역의 신당에 대한 전수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신당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신당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신당의 소유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신당의 공동자원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 신당은 아니지만, 제주 지역의 4·3 유적을 조사하여 등록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대상을 선정하여 유적의 세부현황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학술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주 4·3 유적지 597곳 가운데 주요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 18곳뿐이며, 그 가운데 국유지(國有地)로 매입해 관리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신당 외에도 제주의 문화유적이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사업단)의 공동자원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공동목장), 수자원(지하수), 바다밭(마을어장), 풍력자원, 학교와 영리병원 등 제주 지역의 다양한 공동자원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자원 사유화의 폐해, 공동목장 해체 현상 등을 검토하고 대안 모델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제주시권 신당의 실질적인 소유권 형태에 대한 조사이다. 제주 신당과 관련하여 신화, 역사 등 민속학적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사회학적 연구가 부족하다. 단순한 소유형태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사회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리라 여겨진다. 이를 통해 제주 신당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 지역 신당 개요¹³⁾

1) 제주의 민간신앙 - 무속

제주도에서는 개인적인 기원이든 집단적인 기원이든 민간신앙인 무속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이 곳곳에 좌정(坐定)하여 있고 또한 그 존재의 이유가 자신들의 기원을 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존재하는 신이 일만팔천이라 생각할 만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수많은 신들 중에 본격적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은 그 신앙의 범위에 따라 일반신, 당신, 조상신으로 나뉜다. 일반신은 모든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다. 당신은 한 마을 혹은 공동체가 함께 모시는 신이다. 조상신은 특정한 집안사람들만을 위한 신이다. 신들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 해당되는 신격을 찾아 기원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이 신들의 이야기는 본풀이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속은 완성된 경전이 전해지지 않는 구전으로 본풀이라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모양새가 매우 잘 짜져 있고 점차 규범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제주도 무속이 많은 학자들로부터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신앙의 변화에 따라 본풀이가 수정되어간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본풀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혹은 사라지는 본풀이가 어떻게 소멸되어가는 지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제주도 무속이 육지 무속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부분이 동일하지만 육지의 무속은 빠르게 변화하며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비해 제주도 무속은 마치 변화하는 모습이 화석처럼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 무속에서 한국의 무속의 원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속 전체와 일부 제의의 관계가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신앙의 범위와 층위라는 면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상 신앙, 당신앙 등이 있어 씨족, 마을공동체, 제주도 사람 전체라는 세 가지 양상의 보완적인 신앙행위

13) 국립민속박물관(2009), 『한국무속신앙사전』, (주)디자인트로, 참조.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제의적 측면에서도 제주도 굿이 한국 굿의 원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주도 무속신의 분류

제주도 무속신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씨족 중심으로 한정되어있는 조상신은 모시는 장소가 특별히 없고, 그 자손이 어디에 살던 조상신을 불러들여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씨족을 넘어선 마을 공동체를 보호하고 마을 공동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신앙은 장소가 정해져 있고, 한 마을에서도 신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모시는 장소 또한 각각 신마다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신앙의 범위가 씨족과 마을 공동체로 국한되지 않고 모두 열려 있는 경우가 일반신의 경우이다. 일반신은 조상신과 동일하게 모셔지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사람들은 조상신, 당신, 일반신을 두루 모시게 되는 셈이다.

제주도 굿은 기원의 내용, 모시는 신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행해지는데 그중에 당굿은 신당이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월 신과세제, 2월 영등굿, 7월 마불림, 10월 시만곡대제 등 1년에 네 차례 이상 이루어진다.

① 신과세제(神過歲祭)

- 매년 정초에 신에게 세배를 드리는 의미의 굿이다.

② 영등굿

- 영등신을 맞아들여 한 해 바다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굿이다. 음력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고 영등신은 이 달 초하루에 제주도 서쪽 마을로 들어와서 온갖 해초의 씨를 뿌리고 같은 달 보름에 동쪽 끝인 우도를 거쳐 떠난다고 한다. 이 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에 따라 각 마을에서 영등굿을 벌인다.

③ 마불림

- 각 마을 분향당에서 음력 7월에 하는 당굿이다. 신의(神衣)에 묻은 마(곰팡이)를 불러내는 제이며, 우마(牛馬)의 번성을 기원한 굿이다.

④ 시만국대제(-萬穀大祭)

- 농사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곳이다.

3) 제주도 신당의 구분

신당은 마을마다 있고, 한 마을에도 각기 다른 신을 모신 신당이 여럿 있다. 각 신들마다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체 형태로는 신목, 신석, 궤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과 제일로 신당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향당(本鄉堂)

-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신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으로 마을의 가장 일반적인 사상, 즉 호적·장적·생산·물고 등을 돌보는 신인 본향신을 모시는 신당이다.

② 일뤼당

- 제일이 음력으로 매달 매 7일인 신당이다. 이 당에 모신 신은 여성신으로 어린아이의 산육(産育)과 치병(治病)을 담당한다.

③ 으드렛당

- 여드렛당. 제일이 매달 매 8일인 당이다. 주로 남제주군 동남부 일대에 집중 분포한다.

④ 축일당·술일당(개당)

- 제일이 축일(丑日), 술일(戌日)인 당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술일당은 달리 '개당'이라고 하는 예도 있다.

⑤ 개당·돈짓당

- 바닷가에 있는 바다 생업과 관련된 당이다. 개당의 '개'는 '포(浦)'의 뜻이다.

⑥ 처녀당

- 처녀신을 모시는 신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래는 인간이었지만 대체로 억울한 원한을 지니고 죽어 신으로 모셔진다.

⑦ 돛당

- 돛제를 지내는 당이다. 돛제는 곧 돈제(豚祭)이다.

⑧ 산신당(山神堂)

- 제주도에서는 대개 수림·목축의 신을 모시는 당을 말한다.

4) 제주도 신당의 위치

제주도 마을의 성소인 신당이 마을의 어디에 있는가에 따른 분류로 소유권과 지목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표 2> 제주시 신당의 위치

	위치	분류 기준	비고/지목
1	전답	마을 당이 밭에 있을 때	전
2	잡목 숲	마을 당이 잡목 숲이나 수림 안에 있음	임야
3	해변	마을 당이 바닷가에 있음	주소없음
4	동산	마을 당이 동산에 있음	임야
5	천변	마을 당이 하천이나 냇가에 있음	하천/구거
6	마을길	마을 당이 동네 안 길가에 있음	

14) 문무병 외(2008),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3-24쪽.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1.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1)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표 3> 제주시 권역 신당의 소유권 현황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1	구좌읍	동복리 본향 굴묵밭할망당	동복리1759	국가		도로	
2	구좌읍	김녕 본향 사장빌레큰당	김녕리 2121 도로에 포함됨	국가		도로	대위자- 제주도
3	구좌읍	동김녕 괘네깃당	김녕리 2121 도로에 포함됨	국가	폐당	도로	대위자- 제주도
4	구좌읍	동김녕리 성세깃당	김녕리 571-2	제주도		임야	
5	구좌읍	서김녕 본향 느믄리동산 일똥당	김녕리 3417	개인		전	김녕리 거주
6	구좌읍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	해변	-			
7	구좌읍	월정 본향 서당머체큰당	월정리 179-8	제주도		임야	
8	구좌읍	월정리 서당	GPS 오류				
9	구좌읍	월정리 베룽개 해신당	월정리 774-4	국가		잡종 지	
10	구좌읍	행원리 본향 큰당	행원리 573-6	제주도		임야	
11	구좌읍	행원리 남당	해변	-			
12	구좌읍	한동 본향 괴로본산국당	한동리 2123	개인		임야	경기도 거주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13	구좌읍	한동 망애물 해신당	한동리 1387-2	국가		도로	
14	구좌읍	평대 본향 신선백관 하르방당	한동리 656	개인, 공동		임야	상속, 서울· 경상남도 거주
15	구좌읍	평대(서동) 본향수대깃당	한동리 656	개인, 공동		임야	상속, 서울· 경상남도 거주
16	구좌읍	평대(동동) 수대깃당	평대리 975	개인		전	증여, 평대리 거주
17	구좌읍	평대리 갯마리 일뤼당	해변	-			주소 없음
18	구좌읍	세화리 본향 천자또 산신당	세화리 1049-2	개인		도로	상속, 제주시 거주
19	구좌읍	세화리 ㄱ는곳 일뤼당	세화리 1049-2	개인		도로	상속, 제주시 거주
20	구좌읍	세화리 갯것할망당	해변	-			
21	구좌읍	상도리 본향 막음길 일뤼할망당	상도리 202	제주도		임야	
22	구좌읍	하도리 본향 삼싱불도할망당	하도리 2884	개인			부산 거주
23	구좌읍	하도리 각시당	하도리 450-3	국가		임야	
24	구좌읍	하도리 남당	하도리 1778	제주도	폐당	전	공공용지 협의 취득
25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하도리 3359-19	마을		건물, 임야	하도리 면수동 새마을회
26	구좌읍	종달 본향 오막개당	종달리 70 묘	제주도		임야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27	구좌읍	종달리 조개왓 틀목 일뤼당	종달리 712-1	개인		전	종달리 거주
28	구좌읍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해변	-			
29	구좌읍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송당리 산 199-1	마을		임야	
30	구좌읍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일뤼당	송당리 산 61	개인		목장 용지	송당리 거주
31	구좌읍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산신당	송당리 산 61	개인		목장 용지	송당리 거주
32	구좌읍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송당리 산 8-1	마을	폐당	임야	송당리 새마을회
33	구좌읍	하덕천리 본향 거멸 문국성 산신당	덕천리 289	개인		임야	제주시 거주
34	구좌읍	하덕천리 웃산전 사라홀당	덕천리 산 49-3	기업		임야	
35	조천읍	신촌리 본향 큰물머리 영등빌레당	신촌리 2257	제주도		대지	
36	조천읍	신촌리 일뤼당	GPS오류				
37	조천읍	신촌리 동동네 일뤼낭거리 일뤼당	GPS오류				
38	조천읍	조천리(하동) 새콧할망당 (고망할망당)	조천리 2730-2	국가		도로	
39	조천읍	조천리 새당	조천리695	개인		전	제주시 거주, 대위자- 제주도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40	조천읍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	신흥리 511-1	제주도	폐당	종교 용지	
41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할망당	신흥리 545-1	국가		도로	
42	조천읍	신흥리 서카름 가문이알 김씨조상당	도로				주소 없음
43	조천읍	함덕리 본향 알카름 서물당	함덕리 3155-2	북제주 군		도로	
44	조천읍	함덕리 죽나니믄루 일뤼당	함덕리 1698	제주도		임야	
45	조천읍	함덕리 머체 일뤼당	함덕리 911	개인	폐당	전	부산거주
46	조천읍	함덕리 한양할망당	함덕리2547-1, 등기없음				
47	조천읍	함덕리 스지믄르 일뤼당	함덕리 3061	기업	멸실	대지	
48	조천읍	함덕리 서모오름 산신당	함덕리3029, 3033-1	개인, 공동	폐당	건물	제주도 거주, 토지등기 없음
49	조천읍	함덕리 문두낭당	함덕리 178-1	개인		임야	파주시 거주
50	조천읍	북촌리(뒷개) 본향 가릿당	북촌리 1362	개인		대지	북촌리 거주
51	조천읍	북촌리 당구들동산 당팃당	북촌리 1148	개인		과수 원	상속, 북촌리 거주, 대위자 일본 거주
52	조천읍	북촌리동카름 칠머리당	북촌리 2688, 도로에 포함	국가	폐당	도로	
53	조천읍	선흘리 (알선흘) 본향 당동산 산신당	선흘리 2661	개인		전	증여, 조천리 거주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54	조천읍	선흘리 (웃선흘) 탈남밭 일뤼당	선흘리 2612-27	개인		임야	경상북도 거주
55	조천읍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와흘리 1274-1	마을		임야	와흘리 새마을회
56	조천읍	와흘리 고평동 본향 켓드르 산신당	와흘리 114	개인		전	제주시 거주
57	조천읍	대흘리 본향 비지남밭 하로산당	대흘리 2201	개인		전	상속, 대흘리 거주
58	조천읍	와산리 하르방당 배락당	와산리 694-1	제주도	폐당	잡종 지	
59	조천읍	와산리 본향 당오름 불돛당	와산리 489-2	마을		전	와산리 새마을회
60	조천읍	와산리 당새미 토광물 산신당	와산리 145	개인		전	제주시 거주, 근저당 설정
61	조천읍	와산리 엄낭굴 철산이도 산신당	와산리 1471	개인		전	함덕리 거주
62	조천읍	와산리 골왓술 산신당	와산리 573	개인		과수 원	와산리 거주, 근저당 설정
63	조천읍	와산리 웃질왓 감낭밭 한씨조상당	와산리 195 도로 포함	개인		대지	와산리 거주
64	조천읍	교래리 본향 드리하로산당	교래리 401	개인, 공동		임야	울산시 거주
65	조천읍	교래리 누룩남도 일뤼당	교래리 산56-4	기업	폐당	유원 지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66	애월읍	봉성리 본향 구머리 송씨할망당	봉성리 3683	개인		전	어도리 거주
67	애월읍	납읍리 본향 바구사니우영 돛당	납읍리 1721	개인		전	납읍리 거주
68	애월읍	납읍리 홍골당	어름리 산20	국가		임야	
69	애월읍	어음1리 본향 개나믄들 비메닛당	어음리 3708-2	마을		창고 용지	어음1리 새마을회
70	애월읍	어음2리 본향 몽둥이왓 돛배물 축일당	어음리 3063-1	개인, 공동		전	어음2리 거주, 근 저당 설 정
71	애월읍	어음1리 본향 상메초왓 송씨할망당	어음리 3379-3	개인		전	어음리 거주
72	애월읍	소길리 당팻 일뤼할망당	장전리 1636-2	개인		전	증여, 소 길리 거 주
73	애월읍	하귀1리(동귀) 본향 제신당	하귀1리 628	개인, 공동	폐당	전	하귀1리 거주
74	애월읍	하귀1리 해신당	하귀1리 1622	개인	폐당	대지	제주시 거주
75	애월읍	고내리 본향 큰당	고내리 1114	제주도		전	
76	애월읍	고내리 오름허릿당	고내리 819	개인		임야	경상남도 거주
77	애월읍	고내리 남당	간척지	-	폐당		주소 없음
78	애월읍	상·하가리 본향 오당빌레 할망당	하가리 846-1	마을		임야	하가리새 마을회
79	애월읍	상가리 큰신머들 새당 하르방당	고내리산13-11	개인, 공동		과수 원	하가리 거주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80	애월읍	하귀리 본향 돌코릿당	하귀2리 1917-2	제주도		전	
81	애월읍	하귀리 해신당	하귀2리 2729	마을		대지	귀일 어촌계
82	애월읍	상귀리 본향 황다리례당	유수암리 1913	마을		체육 용지	유수암리 공동목장 조합
83	애월읍	신엄리 본향 당빌레왓 송씨할망당	신엄리 2672-3	개인		임야	제주시 거주
84	애월읍	구엄리 본향 모감빌레 송씨할망당	구엄리 833-1	마을		잡종 지	구엄리새 마을회
85	애월읍	수산리 본향 당팻 서목당	수산리 1778-1	개인		과수 원	수산리 거주
86	애월읍	용흥리 본향 진빌레 일뤼당	신엄리 2208-1	개인		전	대위자- 제주도
87	애월읍	금성리 축일할망당	곽지리 1565	마을		임야	곽지리마 을회/제 주도
88	애월읍	금성리 본향 개똥밭당	금성리 499	개인		전	제주시 거주
89	애월읍	곽지리 송씨 일뤼할망당	곽지리 1026	개인, 마을		전	곽지리새 마을영농 조합법인
90	애월읍	애월리 굽은돌알 개당	애월리 556	개인	폐당	전	고내리 거주
91	애월읍	애월리 해신당	애월리 1819-44	국가		도로	
92	애월읍	장전리 본향 능선이 고지물 일뤼할망당	장전리 402	개인		과수 원	제주시 거주
93	애월읍	중엄리 본향 송씨일뤼당	신엄리 3208 도로로 표시	국가		도로	
94	애월읍	고성리	광령리	북제주		도로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동구시물 마계왓당	3808-2	군			
95	애월읍	고성리 장털 일뤼당	광령리 4035-4	개인		전	애월읍 항몽로 거주
96	애월읍	광령1리 본향 자운당	광령리 36-6	마을		잡종 지	광령1리 새마을회
97	애월읍	광령2리 이승굴 하르방당	광령리 2367	개인		전	제주시 거주
98	애월읍	광령2리 이승굴 할망당	광령리 2524	개인		과수 원	상속, 경기도 거주
99	애월읍	광령3리 즈중굴당	광령리 3356	개인		전	제주시 거주
100	애월읍	광령리 마씨 미륵당	광령리 596	개인, 마을		목장 용지	광령공동 목장조합
101	애월읍	금덕리 당오름밭 하르방당	등기없음, 토지대장				
102	애월읍	금덕리 남당밭 할망당	유수암리 1456	개인		전	대위자- 제주도
103	애월읍	유수암 본향 당아진밭 송씨할망당	유수암리 1910	개인		대지	인천거 주, 근저 당설정
104	한림읍	금릉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금능리 1631	마을		임야	금능리 마을회, 대위자- 제주도
105	한림읍	금릉 본향 연덧가름 영감당	금능리 1631	마을		임야	금능리 마을회, 대위자- 제주도
106	한림읍	협재 본향 웃가름 축일당	협재리 1844-1	개인		전	경매, 서울거주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107	한림읍	협재리 뒷당	협재리 1458	개인		전	건물-협재어촌계+개인(서울거주)
108	한림읍	한수리 본향개당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
109	한림읍	한수리 대섬뱃하르방당	한수리 914-13	마을		대지	국가-마을,한수어촌계
110	한림읍	귀덕 본향축일할망당	귀덕리 1031-3	국가		잡종지	
111	한림읍	상명리 본향느지리 케인툼축일할망당	상명리 898	제주도		임야	
112	한림읍	상대리 본향고한이 축일당	상대리 4132-3	개인		전	한림리거주
113	한림읍	명월 본향백문이옥하원당	동명리 1109	개인		전	동명리거주
114	한림읍	명월 박닛물축일당	명월리 2223/도로	국가		구거	
115	한림읍	명월 본향서문하르방당	옹포리 828-1	개인		전	옹포리거주, 근저당설정
116	한림읍	명월 본향여드레할망당	옹포리 777	제주도교육감	폐당	학교용지	학교 내신당위치
117	한림읍	동명리 일뤼당	동명리 751	개인		전	한림읍광산로거주,근저당설정
118	한림읍	동명리 술일할망당	동명리 958	개인, 공동	폐당	전	제주시거주,증여
119	한림읍	금악리 아미당	GPS오류				
120	한림읍	금악 본향딱신모들축일할망당	금악리 1359	개인, 공동		잡종지	서울거주,가압류
121	한림읍	금악 본향	금악리 1612	개인		전	제주시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당동산 오일하르방당					거주
122	한림읍	비양리 본향 술일당	협재리 산116-5	국가		유지	
123	한경면	고산리 본향 당오름 당목잇당	고산리 2640	개인, 공동		전	고산리 거주
124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갯그리 할망당	고산리 3616-24	개인		임야	고산리 거주
125	한경면	용수리 본향 골새왓 축일할망당	용수리 1546	개인	폐당	전	제주시 거주
126	한경면	용수리 펄낭 해신당	용수리 4136-3	국가	폐당	잡종 지	
127	한경면	두모 · 신창 본향 거머들 축일당	해변	-			
128	한경면	두모리 해신당	해변	-			
129	한경면	신창리 돈짓당	GPS오류				
130	한경면	금동리 본향 손드물 축일할망당	금동리 1008 도로 포함	국가		도로	
131	한경면	판포리 본향 오일하르방당	판포리 2532-1	개인		전	판포리 거주, 근 저당설정
132	한경면	조수리 본향 삼대바지 매와지 축일할망당	조수리 248-1	개인		전	조수리 거주
133	한경면	낙천리 본향 소록낭꺾들 오일하르방당	낙천리 1883	기업		잡종 지	
134	한경면	저지리 본향 당멸 허릿당	저지리 1892-3	개인		전	저지리 거주, 근 저당설정
135	한경면	저지리 용선드리	조수리 4146 도로 포함	국가	폐당	도로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일뤼하르방당					
136	한경면	조수 종애물 본향 당밖 여드레할망당	저지리 1134-1	개인	폐당	전	한경면 용금로 거주
137	옛 제주시	용담2동 한두기 본향 ㄱ시락당	용담1동 2581-4	국가		하천	
138	옛 제주시	용담3동 다끄내 본향 궁당	용담로65, 용담3동 581	국가		학교	
139	옛 제주시	용담3동 어영연딧당	용담3동 2292-29	제주시		잡종 지	
140	옛 제주시	용담3동 다끄내 해신당	용담3동 1064-7	국가		잡종 지	
141	옛 제주시	도두1동 본향 오름허릿당	도두1동 1745	개인		종교 용지	서귀포시 거주, 근 저당설정
142	옛 제주시	도두2동 본향 진불래원 왕돌앞당	해변	-			
143	옛 제주시	신사수동 본향 ㄱ랭이물당	도두2동 2610	국가		하천	
144	옛 제주시	이호1동 본향 붉은왕돌 할망당	이호1동 331	제주도		수도 용지	
145	옛 제주시	이호2동 본향 납당	내도동 895, 내천	국가		하천	
146	옛 제주시	이호2동 본향 소왕상시당	이호2동 14	개인		임야	서울거주
147	옛 제주시	내도동 본향 웃당	도로에 포함	국가		잡종 지	
148	옛 제주시	내도동 알당	도로에 포함	국가		도로	
149	옛 제주시	내도동 당밖 할망당	내도동 604-1	개인		전	내도동 거주
150	옛	외도1동 본향	외도1동	제주시		공원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제주시	우렁이 돛당	492-11, 어린이 공원				
151	옛 제주시	도평동 본향 대통밧당	이호2동 1312	개인	폐당	전	서울거주
152	옛 제주시	광평동 본향 당팻 세경활망당	이호2동 1312	개인		전	서울거주
153	옛 제주시	해안동 본향 절물동산 하르방당	노형동 1906	개인, 공동	폐당	전	제주시 거주
154	옛 제주시	해안동 본향 독승굴 일뤼활망당	해안동 2431	개인		과수 원	애월읍 광령동 거주
155	옛 제주시	연동 본향 다랑굿 막개낭당	연동 1955-5	제주시		대지	
156	옛 제주시	연동 본향 능당	연동 산28	개인		임야	제주시 거주
157	옛 제주시	오라동 본향 방애왓 내왓당	오라2동 1186-2	개인		전	제주시 거주
158	옛 제주시	오라동 정실 (도노미) 본향	오라2동 61-32	개인		전	하귀리 거주
159	옛 제주시	오등동 본향 오드싱당	오등동 1895 도로,내천포함	국가		하천	
160	옛 제주시	오등동 병다동 본향 ㄱ다싯당	오등동 799	개인		전	제주시 거주, 중여
161	옛 제주시	오등동 죽성 본향 설새밧당	오등동 305-18	기업		임야	
162	옛 제주시	아라동 본향 간드락 활망당	화북2동 5328	개인	폐당	과수 원	제주시 거주, 상속
163	옛 제주시	아라동 본향 간드락 하르방당	화북2동 5327	개인	폐당	과수 원	제주시 거주, 상속
164	옛	도남동 본향	도남동 586	개인,		전	제주시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제주시	백질당		공동			거주
165	옛 제주시	건입동 본향 산지 칠머리당	GPS 오류 건입동 387-12	제주도		임야	
166	옛 제주시	화북1동 윤동지영감당	화북1동 1392	개인		전	제주시 거주
167	옛 제주시	화북동 본향 가릿당	화북동 1888	마을		잡종 지	제주시화 북1동 동마을 복지회
168	옛 제주시	삼양1동 본향 물머리영덕웃박 감낭하르방 · 할 망당	삼양1동 1781-2	개인		전	서울거주
169	옛 제주시	삼양2동 본향 당팻할망당	삼양2동 2104-4, 어린이공원	제주시		공원	
170	옛 제주시	도련1동 본향 당팻 개당	도련1동 1529-2	개인		대지	제주시 거주
171	옛 제주시	봉개 본향 뒷술당	봉개동 1850	개인		과수 원	제주시 거주
172	옛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 하로산당	회천동 1058	마을		임야	동회천 마을회
173	옛 제주시	봉개 서회천 본향 ㄱ는새 남선밭당	회천동 2108	개인, 공동		과수 원	제주시, 서귀포시 거주
174	옛 제주시	영평하동 본향 신당ㄴ루당	아라동 507-1, 등기없음	개인		과수 원	상속
175	옛 제주시	용강 본향 궤당	용강동 1768	국가		하천	
176	옛 제주시	월평 본향 다라쿿당	월평동 1137	개인, 공동		임야	제주시 거주
177	우도면	천진동 하느리 돈짓당	연평리 1737-16, 등기없음	개인		대지	우도거 주,지상 권설정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No.	지역	신당명	주소	소유권	상태	지목	비고
178	우도면	서천진동 본향 당동산 종달잇당	연평리 2594	개인		전	우도거 주,증여
179	우도면	영일동 돈짓당	해변	-			주소 없음
180	우도면	비양동(똥비양) 돈짓당	연평리 16	개인, 공동		임야	서울거주
181	우도면	상·하교수동 성창봉오지 돈짓당	GPS오류		폐당		
182	우도면	전흘동 본향 똥동산 목지당	등기없음, 토지대장				
183	우도면	주흥동 중개 돈짓당	연평리968-1, 968	폐쇄 등기	폐당	건물	건물-멸 실,개인- 공동
184	우도면	하우목동 본향 목지당	연평리 2391-2	개인		대지	우도거 주,상속
185	우도면	하우목동 돈짓당	연평리 2391-2	개인		대지	우도거 주,상속
186	추자면	대서리 장군당	GPS오류				
187	추자면	대서리 당너머 고삐바위	GPS오류				
188	추자면	영흥리 뒷산 절기미 산신당	GPS오류				
189	추자면	목리 당목치동산 처녀당	목리 731-5	마을		임야	목리 새마을회
190	추자면	예초리 당목쟁이 물생이끝당	예초리 산7	마을		임야	예초리 마을회
191	추자면	예초리 엄바위 장승	예초리 산52	개인		임야	예초리 거주
192	추자면	횡간도 마을 성황당	GPS오류				

2) 제주도 민속문화재 등재 현황

- 제주의 신당 중 민속문화재로¹⁵⁾ 지정된 곳은 송당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라콧당 등 5곳이며, 소재지는 제주시 4곳, 서귀포시 1곳으로 모두 본향당이다. 본향당은 마을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적(帳籍)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당이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본향당신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사, 의례, 본풀이, 신앙민, 형태 등과 관련해 제주를 대표할 만한 당들이다.¹⁶⁾

<표 4> 제주시 신당의 제주도 민속문화재 등록 현황

	지역	신당명	직능	주소	소유권	등록 번호	비고
1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본향당	송당리 산199-1	송당리 새마을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1호	신과세제 영등굿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2	제주시 회천동	회천동 본향 새미하로산당	본향당	회천동 1058	동회천 마을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2호	신과세제 마불림제
3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본향당	와흘리 1274-1	와흘리 새마을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3호	신과세제 영등굿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4	서귀포 시 성산읍	수산 본향 울웨르 하로산당	본향당	수산리 541	군위오씨 경룡공파 친족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4호	신과세제 영등굿 마불림제 신과세제
5	제주시 월평동	월평 본향 다라콧당	본향당	월평동 1137	개인 (강교훈)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5호	신과세제 마불림제

15) 2005년 4월 6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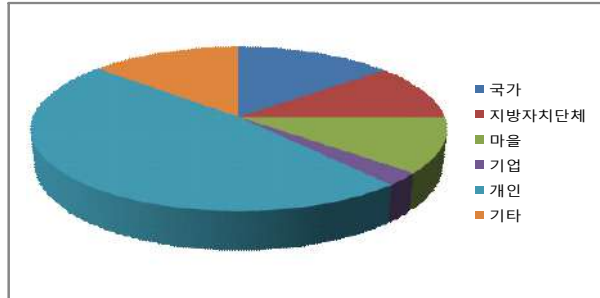
16)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u.go.kr/culture/index.htm>

2.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 유형 분석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에 수록된 제주시 192개소의 신당의 GPS를 통한 주소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주소들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확인하였다. 이중 개인 소유의 신당이 92개소, 국가 소유의 신당이 27개소,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북제주군) 소유의 신당이 21개소, 마을(새마을회) 소유의 신당이 21개소, 기업 소유의 신당이 5개소, 주소가 없거나 등기가 없는 신당이 26개소(해변 10, GPS오류 10, 기타 6)로 나타났다. 주소나 등기가 없는 유형은 간척지이거나 해변인 경우, 2008년 조사 시 GPS의 오류로 인한 주소지 확인 불가인 사례, 보전지역이거나 등기없음 등의 사유가 포함되었다. 이 중 큰 분류 유형인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마을 소유, 기업 소유, 기타 소유의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 제주시 신당 소유 현황

소유 유형	개소
국가	27
지방자치단체	21
마을	21
기업	5
개인	92
기타(해변, 오류)	26



[그림 1] 제주시 신당 소유 현황

1) 국가 소유 현황

- 제주시 신당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전체 192건의 신당 중 국가 소유는 총 27개소로 나타났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걸쳐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대다수는 건설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 등이며, 그 외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야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교(제주사대부고) 등이 있었다.

- 지목을 살펴보면 도로가 다수였으며, 그 밖에 하천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야,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현재 편도 1차로인 동북리 본향 굴묵밭할망당의 경우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 도로를 벗어나 있었으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도로로 지목이 잡혀 있어 향후 도로 확장 등의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밖에도 11개소의 지목이 도로로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하천, 잡종지, 임야, 학교 등 이다.

<표 6>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국가 소유 목록

	지역	신당명	주소(GPS 추출)	관리	지목
1	구좌읍	동북리 본향 굴묵밭할망당	동북리 1759	건설부	도로
2	구좌읍	김녕 본향 사장빌레 큰당	김녕리 2121 도로에 포함	건설부	도로
3	구좌읍	동김녕 케네깃당	김녕리 2121 도로에 포함	건설부	도로
4	구좌읍	월정리 배롱개 해신당	월정리 774-4	기획재정부	잡종지
5	구좌읍	한동 망애물 해신당	한동리 1387-2	국토교통부	도로
6	구좌읍	하도리 각시당	하도리 450-3	기획재정부	임야
7	조천읍	조천리 새콧할망당 (고망할망당)	조천리 2730-2	건설부	도로
8	조천읍	신흥리 불래낭 할망당	신흥리 545-1	기획재정부	도로
9	조천읍	북촌리 동카름 칠머리당	북촌리 2688 도로에 포함	건설부	도로
10	애월읍	납읍리 홍골당	어음리 산20	산림청	임야
11	애월읍	애월리 해신당	애월리 1819-44	기획재정부	도로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지역	신당명	주소(GPS 추출)	관리	지목
12	애월읍	중엄리 본향 송씨일뒤행당	신엄리 3208 도로로 표시	건설부	도로
13	한림읍	귀덕 본향 축일할망당	귀덕리 1031-3	건설부	잡종지
14	한림읍	명월 박닛물 축일당	명월리 2223 도로	건설부	구거
15	한림읍	비양리 본향 술일당	협재리 산116-5	기획 재정부	유지
16	한경면	용수리 펄낭 해신당	용수리 4136-3	기획 재정부	잡종지
17	한경면	금등리 본향 손드물 축일할망당	금등리 1008 도로 포함	건설부	도로
18	한경면	저지리 용선드리 일뒤행하르방당	조수리 4146 도로 포함	건설부	도로
19	옛 제주시	용담2동 한두기 본향 ㄴ시락당	용담1동 2581-4	건설 교통부	하천
20	옛 제주시	용담3동 다끄내 본향 궁당	용담로 65 (용담3동 581)	교육부	학교
21	옛 제주시	용담3동 다끄내 해신당	용담3동 1064-7	기획 재정부	잡종지
22	옛 제주시	신사수동 본향 고랭이물당	도두2동 2610	건설부	하천
23	옛 제주시	이호2동 본향 남당	내도동 895 내천	건설부	하천
24	옛 제주시	내도동 본향 웃당	도로에 포함	기획 재정부	잡종지
25	옛 제주시	내도동 알당	도로에 포함	건설부	도로
26	옛 제주시	오등동 본향 오드싱당	오등동 1895 도로, 내천 포함	건설부	하천
27	옛 제주시	용강 본향 궤당	용강동 1768	건설부	하천

2) 지방자치단체

- 제주시 신당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전체 192건의 신당 중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북제주군 소유의 신당은 총 21개소로 나타났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걸쳐 고르게 분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지목을 살펴보면 도로, 임야, 잡종지, 종교용지, 공원, 전, 수도용지 등으로 나타났다.

<표 7>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목록

	지역	신당명	주소(GPS 추출)	관리	지목
1	구좌읍	동김녕리 성세깃당	김녕리 571-2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2	구좌읍	월정 본향 서당머채 큰당	월정리 179-8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3	구좌읍	행원리 본향 큰당	행원리 573-6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4	구좌읍	상도리 본향 막음질 일뤼할망당	상도리 202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5	구좌읍	종달 본향 오막개당	종달리 70 묘로 되어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6	조천읍	신촌리 본향	신촌리 2257	제주특별자치도	대지
7	조천읍	신흥리 본향 대망황수당	신흥리 511-1	제주특별자치도	종교용지
8	조천읍	함덕리 좇나니ㄴ루 일뤼당	함덕리 1698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9	조천읍	와산리 하르방당 베락당	와산리 694-1	제주특별자치도	잡종지
10	애월읍	고내리 본향 큰당	고내리 1114	제주특별자치도	전
11	애월읍	하귀리 본향 돌코릿당	하귀2리 1917-2	제주특별자치도	전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지역	신당명	주소(GPS 추출)	관리	지목
12	한림읍	상명리 본향 느지리 케인툼 축일할망당	상명리 898	제주특별 자치도	임야
13	제주시	이호1동 본향 붉은왕돌 할망당	이호1동 331	제주특별 자치도	수도용지
14	조천읍	함덕리 본향 알카름 서물당	함덕리 3155-2	북제주군	도로
15	애월읍	고성리 동구시물 마깨왓당	광령리 3808-2	북제주군	도로
16	옛 제주시	용담3동 어영연뎃당	용담3동 2292-29	제주시	잡종지
17	옛 제주시	외도1동 본향 우렁이 돛당	외도1동 492-11 어린이 공원	제주시	공원
18	옛 제주시	연동 본향 다랑굿 막개낭당	연동 1955-5	제주시	대지
19	옛 제주시	건입동 본향 산지 칠머리당	이도2동 1085-4	제주시	도로
20	옛 제주시	삼양2동 본향 당팻할망당	삼양2동 2104-4 어린이공원	제주시	공원
21	한림읍	명월 본향 여드레할망당	옹포리 777	제주도 교육감	학교용지

3) 마을

- 제주시 신당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전체 192건의 신당 중 마을 소유의 신당은 총 21개소로 전체 1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마을이 소유권을 가진 신당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이할 점은 소유권을 가진 곳이 마을 새마을회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1970년대 마을 단위의 조직에 새마을회를 붙은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신당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마을의 행정동 단위로 신당을 꾸린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 한 마을 내에서도 각기 작은 마을 단위별로 신당을 차려 유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 마을 소유 신당의 부동산 지목을 살펴보면 임야가 많았으며, 그 밖에 대지, 잡종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전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마을 소유 목록

	지역	신당명	주소(GPS추출)	소유권	지목
1	구좌읍	하도리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하도리 3359-19	하도리 면수동새마을회	건물/ 임야
2	구좌읍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송당리 산199-1	송당리새마을회	임야
3	구좌읍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송당리 산 8-1	송당리새마을회	임야
4	조천읍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와흘리 1274-1	와흘리새마을회	임야
5	조천읍	와산리 본향 당오름 불돛당	와산리 489-2	와산리새마을회	
6	애월읍	어음1리 본향 개나믄들 비메닛당	어음리 3708-2	어음1리새마을회	창고 용지
7	애월읍	상하가리 본향 오당빌레 할망당	하가리 846-1	하가리새마을회	임야
8	애월읍	하귀리 해신당	하귀2리 2729	귀일어촌계	대지
9	애월읍	상귀리 본향 황다리케당	유수암리 1913	유수암리공동목 장조합	체육 용지
10	애월읍	구엄리 본향 모감빌레 송씨할망당	구엄리 833-1	구엄리새마을회	잡종지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지역	신당명	주소(GPS추출)	소유권	지목
11	애월읍	금성리 축일할망당	곽지리 1565	토지-곽지리마을 회,건물(근린공 원)-제주도	임야
12	애월읍	광령1리 본향 자운당	광령리 36-6	광령1리새마을회	잡종지
13	한림읍	금릉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금능리 1631	금능리마을회	임야
14	한림읍	금릉 본향 연덧가름 영감당	금능리 1631	금능리마을회	임야
15	한림읍	한수리 대섬밭 하르방당	한수리 914-13	한수어촌계	대지
16	옛 제주시	화북동 본향 가릿당	화북동 1888	화북1동동마을북 지회	잡종지
17	옛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회천동 1058	동회천마을회	임야
18	추자면	목리 당목치동산 처녀당	목리 731-5	목리새마을회	임야
19	추자면	예초리 당목쟁이 물생이끝당	예초리 산7	예초리마을회	임야
20	애월읍	곽지리 송씨일뤼할망당	곽지리 1026	곽지리새마을영 농조합법인 (개인+마을)	전
21	애월읍	광령리 마씨 미륵당	광령리 596	광령공동목장 조합	목장 용지

4) 기업

- 제주시 신당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전체 192건의 신당 중 기업 소유의 신당은 총 5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함덕리 스지르 일뤼당의 경우 호텔 신축과 함께 멸실되었으며, 기업 소유의 경우 마을에서 신당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표 9>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기업 소유 목록

	읍/면/동	신당명	주소(GPS 추출)	관리	지목
1	구좌읍	하덕천리 웃산전 사라홀당	덕천리 산 49-3	주식회사나이콤 (경기도)지상권설정	임야
2	조천읍	함덕리 스지르르 일똥당	함덕리 3061	제주함덕라마다호텔 (퍼스트민서주식회사)	대지
3	조천읍	교래리 누룩남도 일똥당	교래리 산 56-4	제주미니미니랜드	유원지
4	한경면	낙천리 본향 소록낭므들 오일하르방당	낙천리 1883	에이치피엠주식회사 (충청북도)	잡종지
5	옛 제주시	오등동 죽성 본향 설새밋당	오등동 305-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제이제이	임야

5)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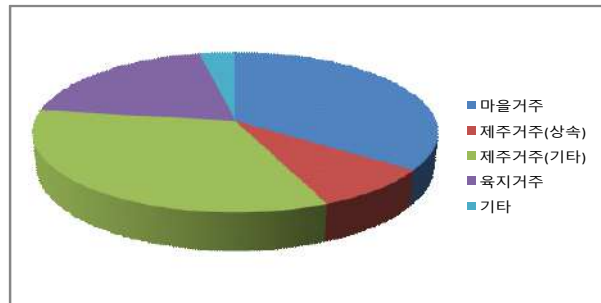
- 제주시 신당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전체 192건의 신당 중 개인 소유의 신당은 총 92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체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당이 속한 마을에 사는 이들이 소유권을 가진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현재까지 소유권을 유지한 경우와 상속과 증여 등의 형태로 소유권이 변경된 형태, 외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마을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이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마을 거주자의 자녀가 상속을 받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와 그와 같은 유형이 보이지 않고 매매의 형태를 띤 소유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잦은 소유권의 변경 및 외부인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로 이와 같은 유형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최근 20~30년까지의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 신당의 본디 소유권이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신당의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개인 소유 유형 분석

개인 소유 유형		개소
마을 거주		32
제주거주	상속	8
	기타	31
제주 이외(육지)		18
기타		3
총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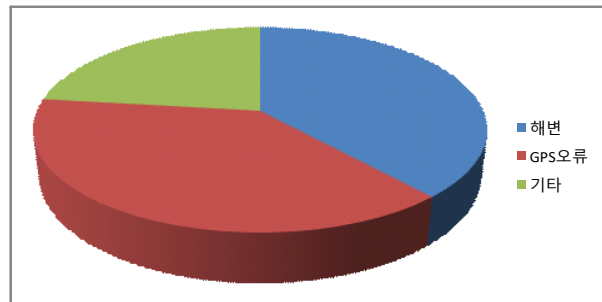
[그림 2] 개인 소유 유형 분석 그래프

6) 기타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의 GPS 자료를 토대로 Daum지도에서 주소지를 추출하여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간척지나 해변에 위치해 주소가 없는 신당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GPS 오류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신당도 있었다. 주로 바닷가 인근 지역의 신당이 이와 같은 경우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주소가 있어 토지대장은 존재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없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1> 기타 유형 분석

기타 유형	개소
해변	10
GPS오류	10
기타(등기없음 외)	6
총	26



[그림 3] 기타 유형 그래프

(1) 해변

- 제주의 신당의 위치를 보면 마을의 신당이 어떤 곳에 있는가에 따라 전답, 잡목숲, 해변, 동산, 천변, 마을길 등으로¹⁷⁾ 구분된다. 이와 같은 신당의 위치 중 해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가 아닌 공유 수면으로 받아들여져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당의 위치가 해변인 경우에는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 12> 제주시 신당의 기타 소유 유형 - 해변

	지역	신당명	주소 (GPS 추출)	소유권	비고
1	구좌읍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	주소없음	해변	
2	구좌읍	행원리 남당	"	"	
3	구좌읍	평대리 갯마리 일뤼당	"	"	
4	구좌읍	세화리 갯것할망당	"	"	
5	구좌읍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	"	
6	애월읍	고내리 남당	"	"	
7	한경면	두모 신창 본향 거머들 축일당	"	"	
8	한경면	두모리 해신당	"	"	
9	제주시	도두2동 본향 진불래원 왕돌앞당	"	"	
10	우도면	영일동 돈짓당	"	"	

17) 문무병외(2008),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3-24쪽.

(2) GPS 오류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의 GPS 자료를 토대로 포털 다음 (<http://map.daum.net/>)지도에서 주소지를 추출하여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GPS 오류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표 13> 제주시 신당의 기타 소유 유형 - GPS 오류

	지역	신당명	주소 (GPS 추출)	소유권	비고
1	조천읍	신촌리 일뤼당	오류	확인불가	
2	조천읍	신촌리 동동네	"	"	
3	한림읍	금악리 아미당	"	"	
4	한경면	신창리 돈짓당	"	"	
5	우도면	상하고수동 성창봉오지 돈짓당	"	"	
6	추자면	대서리 장군당	"	"	
7	추자면	대서리 당너머 고삿바위	"	"	
8	추자면	영흥리 뒷산 절기미 산신당	"	"	
9	추자면	횡간도 마을 성황당	"	"	

(3) 기타

- 등기가 없거나 패쇄등기이거나 하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6 개소의 신당이 조사 되었다.

<표 14> 제주시 신당의 기타 소유 유형 - 기타

	지역	신당명	주소 (GPS 추출)	소유권	비고
1	한림읍	한수리 본향 개당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	
2	조천읍	신흥리 서카름 가문이알 김씨조상당	주소없음		도로 포함
3	우도면	주흥동 중개 돈짓당	연평리 968, 968-1		폐쇄 등기
4	조천읍	함덕리 한양할망당	함덕리 2547-1		등기 없음
5	애월읍	금덕리 당오름밭 하르방당			등기 없음
6	우도면	전흘동 본향 뜯동산 목지당			등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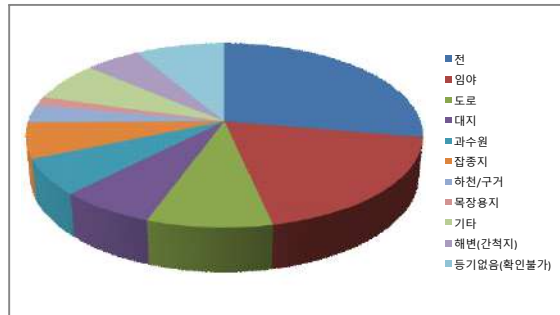
3. 지목유형분석

- 제주시 신당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소유권을 살펴본 결과 소유권이 확인된 등기부등본의 지목유형을 분석해보았다. 192건 중 등기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해변 등으로 주소가 없는 신당을 제외한 165개소의 신당의 지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으로 총 53개소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임야가 36개소, 도로가 17개소, 대지가 13개소, 과수원과 잡종지가 12개소, 하천/구거가 6개소로 뒤를 이었다.

III.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표 15>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지목유형

연번	지목유형	개수
1	전	53
2	임야	36
3	도로	17
4	대지	13
5	과수원	12
6	잡종지	12
7	하천/구거	6
8	목장용지	3
9	건물	2
10	공원	2
11	종교용지	2
12	학교/학교용지	2
13	유지	1
14	수도용지	1
15	창고용지	1
16	체육용지	1
17	유원지	1
18	기타	
	해변(간척지)	10
	등기없음(확인불가)	16



[그림 4] 제주시 신당의 지목 유형 분석

- 신당의 부동산 소유 중 지목유형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향후 개발의 여지를 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의 신당은 지목이 대체로 전, 대지, 과수원, 임야 등이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신당의 경우에는 도로, 하천, 잡종지 외 특수지목유형(목장용지, 공원, 종교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이었다.

Ⅳ.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1.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일정표

<표 16>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 조사 일정표

	지역	조사일	신당명	제보자	조사자
1	구좌읍 동북리	08-21	본향 굴묵밭할망당	현장조사	송정희 이재섭
2	구좌읍 김녕리	08-22	본향 사당빌레 큰당	강성일 (김녕리장)	송정희
			동김녕 퀘네깃당		
			동김녕 성세깃당		
			서김녕 본향 느막리동산 일뤼당		
			서김녕 서문하르방당		
3	구좌읍 월정리	08-21	본향 서당 머चे 큰당	현장조사	송정희 이재섭
			서당		
4	구좌읍 하도리	08-16	본향 삼신불도할망당	고영봉 (하도리감사) 김승선 (하도리장)	송정희 이재섭
			각시당		
			남당		
			동동 일뤼당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5	구좌읍 송당리	08-21	본향 옷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홍용기 (송당리장) 임선옥 (부녀회장)	송정희 이재섭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6	조천읍 조천리	08-21	새콧할망당(고망할망당)	현장조사	송정희 이재섭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지역	조사일	신당명	제보자	조사자
7	조천읍 신흥리	08-21	본향 대방황수당 불래낭할망당	김보홍 (신흥리장)	송정희 이재섭
8	조천읍 함덕리	08-14	본향 알카름 서물당 죽나니모루 일뤼당 한양할망당	김성만 (함덕리장) 이광원 (어촌계장)	송정희 이재섭
9	조천읍 와흘리	07-07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김두환 (와흘리장)	송정희 이재섭
10	애월읍 하귀리	08-10	하귀1리 가문동 해신당	고춘심 (귀일어촌계장)	송정희
11	한림읍 금능리	10-10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본향 연덧가름 영감당	김성수 (금능리장)	송정희
12	제주시 회천동	08-21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부영식 (동회천마을회장)	송정희 이재섭
13	제주시 월평동	08-19	월평 본향 다라굿당	현장조사	이재섭

- 구좌읍 동북리, 김녕리, 월정리, 하도리, 송당리, 조천읍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와흘리, 애월읍 하귀리, 한림읍 금능리, 제주시 회천동, 월평동 13개 마을에서 27개 신당을 현장조사 하였다.
- 구좌읍 동북리, 월정리, 조천읍 조천리, 제주시 월평동은 마을이장을 만날 수가 없어서 현장조사만 실시하였다.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에서 조사되지 않은 하도리 동동 일뤼당은 이번에 새롭게 조사하였다.
- GPS오류인 경우도 현장에서 주소를 확인하였다.

2.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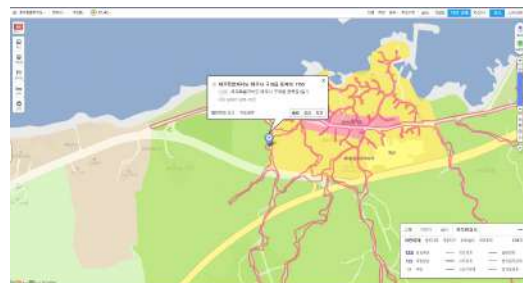
1) 구좌읍 동복리

(1) 동복리 본향 굴묵밭할망당

- 주소 - 동복리 1759번지
- 소유권 - 국가
- 지목 - 도로
- 신명 - 굴묵밭할마님, 송씨하르방님
- 제일 - 포제 다음날 신과세제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강대원 심방
- 관리 - 마을
- 당굿 - 있음



[그림 5] 동복리 본향 굴묵밭할망당



[그림 6]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현장조사 분석

- 구좌읍 동복리의 신당 현장조사 결과는 2008년 신당조사 당시 조사와 동일하게 1개의 신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복리 본향 굴묵밭할망당은 현재 1990년에 등기가 접수가 되어있고 국가 소유로 관리청이 건설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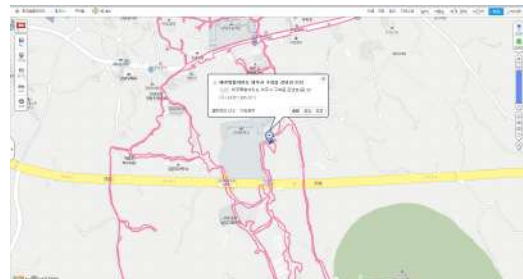
2) 구좌읍 김녕리

(1) 김녕 본향 사당빌레 큰당

- 주소 - 김녕리 2121번지
- 소유권 - 국가
- 지목 - 도로
- 신명 - 관세전부인(큰도안전 큰도부인)
- 제일 - 1월 13, 14일, 7월 13, 14일, 9월 13, 14일
- 본풀이 - 있음
- 메인심방 - 서순실 심방
- 관리 - 심방, 마을
- 당굿 - 있음



[그림 7] 김녕 본향 사당빌레 큰당



[그림 8]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2) 동김녕 퀘네깃당

- 주소 - 김녕리 2121번지
- 소유권 - 국가
- 지목 - 도로
- 신명 - 퀘네기한집(뚝제하르방)
- 본풀이 - 있음
- 특이사항 - 퀘네깃당은 문화재 지정을 준비 중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보존하고 있다.



[그림 9] 동감녕 케네깃당



[그림 10]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3) 동감녕리 성세깃당

- 주소 - 감녕리 571-2
- 소유권 - 제주특별자치도
- 지목 - 임야
- 신명 - 유왕황제국 일곱째 아들
- 제일 - 3월 8일, 매 1, 8, 18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서순실심방
- 관리 - 심방
- 당굿 - 있음



[그림 11] 동감녕리 성세깃당



[그림 12]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4) 서김녕 본향 느막리동산 일뤼당

- 주소 - 김녕리 3417번지
- 소유권 - 개인
- 지목 - 전
- 신명 - 강남 천자국 용녀부인
- 제일 - 매 7일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서순실심방
- 관리 - 심방



[그림 13] 서김녕 본향 느막리동산 일뤼당



[그림 14]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5)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

- 주소 - 주소없음
- 소유권 - 국가
- 지목 - 해변(공유수면)
- 신명 - 남당하르방, 서문하르방, 은진미륵
- 제일 - 택일
- 본풀이 - 있음
- 특이점 - 서문하르방당 자손들이 관리하며, 개인들이 찾고 있다.



[그림 15]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



[그림 16]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6) 현장조사 분석

- 구좌읍 김녕리의 신당 현장조사 결과는 2008년 신당조사 당시 조사와 동일하게 5개의 신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김녕 본향 사장빌레 큰당은 1975년에 등기 접수가 되어있고, 현재 국가 소유이며 관리청은 건설부이다. 2009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위자로 대위원인은 2009년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청구권보전으로 되어있다.
- 동김녕 퀘네깃당은 김녕 본향 사장빌레 큰당과 같이 현재 동일한 주소로 되어있다. 1975년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이 이루어져 있고 관리청은 건설부이다. 지목이 도로되어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도로가 아닌 전이며, 2009년 제주도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할 청구권보전 상태로 퀘네기당은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 동김녕리 성세깃당은 소유권보존으로 2000년에 등기 접수가 되어있고, 소유는 북제주군에서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다.
- 서김녕 본향 느므리동산 일뤼당은 1946년에 매매로 등기 접수가 되었고, 소유자는 개인으로 이○○에서 2007년 이○○으로 증여로 이전되었다가 2012년에 이○○에게로 매매로 소유가 이전되었다.

-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은 주소가 없는 해변이다.
- 신당 관리는 전반적으로 매인 심방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로, 가로 등, 제초작업 등 큰 문제는 매인 심방이 리사무소로 요청을 하면 리사무소에서 이를 행하는 형태이다.
- 당곳은 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마련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해신제는 서김녕은 절에서 진행을 하고, 동김녕은 곳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
- 케네깃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당이지만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공간이기에 그 보존 가치가 있고, 관광적인 부분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

제보자(김녕리장) :

케네깃당은 나도 한번 살려 볼려고 허고는 잇우다게. 계난 저 이거를 뒀고, 살려가지고, 계난 역사에 잇는 당은 살려야협주. 역사에 잇는 거는 뭐, 옛날부터 쪽 내려온 거니깐예. 손님도 오고 구경도 허곡, 많이 옵니다, 구경.

3) 구좌읍 월정리

(1) 월정 본향 서당 머चे 큰당

- 주소 - 월정리 179-8
- 소유권 - 제주특별자치도
- 지목 - 임야
- 신명 - 신산국 삼대왕 적선복 시도령 즈부금 노태웃도, 서당할망 황토부인
- 제일 - 12월 말일, 1월 14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김돌산 심방



[그림 17] 월정리 본향 서당 머चे 큰당



[그림 18]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2) 월정리 서당

- 신명 - 서당할망 황토부인
- 제일 - 매 7일(7일, 17일, 27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특이점 - 폐당



[그림 19] 월정리 서당 흔적

GPS 위치 오류(주소 확인 불가)

(3) 현장조사 분석

- 구좌읍 월정리의 신당 현장조사 결과는 2008년 신당조사 당시 조사와 동일하게 3개의 신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정 본향 서당머चे 큰당, 월정리 서당, 월정리 배롱개 해신당. 월정리 서당인 경우는 그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멸실위기에 있다.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 월정 본향 서당머चे 큰당은 2007년에 권리승계로 등기 접수가 되어있고, 소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 월정 배롱개 해신당은 2013년에 소유권보전으로 등기 접수가 되어있고, 소유는 국가이며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이고, 지목은 잡종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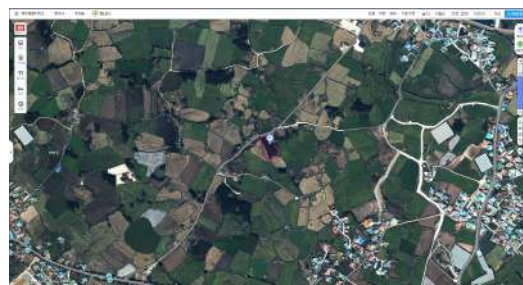
4) 구좌읍 하도리

(1) 하도리 본향 삼신불도할망당

- 주소 - 하도리 2884번지
- 소유권 - 개인
- 지목 - 임야
- 신명 - 도결호 도집사, 여래불도할망당
- 제일 - 1월12일, 2월13일, 7월14일, 10월12일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고순안심방
- 관리 - 심방, 리사무소
- 당굿 - 있음



[그림 20] 하도리 삼신불도할망당



[그림 21]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2) 하도리 각시당

- 주소 - 하도리 450-3번지
- 소유권 - 국가
- 지목 - 임야
- 신명 - 남당하르방, 남당할망
- 제일 - 1월 12일, 2월 13일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고순안심방
- 관리 - 심방, 리사무소
- 당굿 - 있음
- 특이사항 - 2월 12일 저녁에 본향당신을 모셔 각시당으로 와 13일 영등굿을 한다. 신위는 도걸호 도집사, 여래불도할망당, 갯용녀부인이다.



[그림 22] 하도리 각시당 전경



[그림 23]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3) 하도리 남당

- 주소 - 하도리 1778번지
- 소유권 - 제주특별자치도
- 지목 - 전
- 특이사항 - 별방진 인근 지역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로 현재는 폐당되어 흔적만 확인할 수 있다.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그림 24] 하도리 남당 혼적



[그림 25]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4) 하도리 동동 일뿔당

- 주소 - 하도리 산 72번지
- 소유권 - 개인
- 지목 - 임야
- 신명 - 토산한집
- 제일 - 7일
- 본풀이 - 토산한집본풀이
- 매회심방 - 고순안심방
- 관리 - 심방, 리사무소
- 당곳 - 없음
- 특이사항 - 2008년 신당조사에는 멸실로 보고되었으나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당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곳은 없고 앓은제로 비뚤을 한다. 토산한집에서 가지 갈라 온 당이다.



[그림 26] 하도리 동동 일뿔당



[그림 27]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5) 하도리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 주소 - 하도리 3359-19
- 소유권 - 마을 (하도리 면수동새마을회)
- 지목 - 건물, 임야
- 신명 - 여씨불도할망
- 제일 - 1월12일, 2월12일, 7월12일, 10월12일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고산옥심방
- 관리 - 심방, 리사무소
- 당곳 - 없음
- 특이사항 - 하도리 전체 본향과 다르게 면수동에 한하여 본향당 역할을 한다. 하도리 다른 동민은 곳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림 28]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그림 29]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22일

(6) 현장조사 분석

- 구좌읍 하도리의 신당 현장조사 결과는 2008년 신당조사 당시 조사와 달리 5개의 신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도리 본향 삼신불도할망당, 하도리 각시당, 하도리 남당, 하도리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망당, 동동 일뤼당으로 하도리 남당은 그 형태는 남아있으나 폐당으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 하도리 본향 삼신불도할망당은 GPS 오류로 주소를 찾을 수 없었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 확인하였다. 1988년에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

으로 등기 접수가 되었고 소유자는 개인으로 최○○(부산거주)이다. 현재까지 한 번도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설정이 된 적은 없다.

- 하도리 각시당은 2013년에 소유권보존으로 등기 접수가 되어있고, 소유는 국가이며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이다.
- 하도리 남당은 1955년 매매로 인하여 1965년에 등기 접수되었다. 소유자는 개인으로 이○○(구좌읍 하도리 거주) 1980년에 일부 매매로 고○○(구좌읍 하도리 거주)와 공동소유로 1995년에 등기 변경되었고 2008년에 이○○의 소유지분 전부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전되었으며, 2001년에 고○○의 지분이 제주시수산업협도조합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4년에 해지되었다.
- 하도리 동동 일뤼당은 1982년에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으로 등기 접수가 되었다. 소유자는 공동소유로 박○○(서울 거주), 서○○(서울 거주), 김○○(서울 거주), 김○○(서울 거주)에서 2017년 2월까지 18번 매매와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어 현재는 장○○(경상남도 거주), 변○○(부산 거주)이고, 김○○(경상남도 거주)이 매매를 예약한 상태로 공유자 장○○은 2016년에 농협은행주식회사에 근저당설정이 되었다.
- 신당 관리는 기본 심방이 하고, 심방이 할 수 없는 경우(가로등, 제초작업 등)에는 리사무소에 요청한다. 본향 삼성불도할당, 각시당, 일뤼당은 고순안심방이 관리하고,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할당당은 고산옥심방이 관리하고, 남당은 송동우심방이 관리한다. 남당은 송동우 심방이 죽으면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 당곳은 개별적으로 한다. 마을에서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각시당에서 하는 영등곳은 신동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한다. 이때 하도리 일곱 동네 중 면수동만 빼고 하며, 면수동은 별도로 해신제를 지낸다.
- 과거에는 하도리 일곱 동네 모두 일뤼당이 있었다. 지금은 동동 일뤼당만 존재한다. 동동 일뤼당은 바닷가 근처에 있다가 일뤼당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여 2007년 쯤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2008

년 조사에 멸실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색이나 음식물 등으로 봐서 현재도 신당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보자 고영봉씨는 현재 하도리 감사로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문화재 돌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도리 신당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돌아보며 관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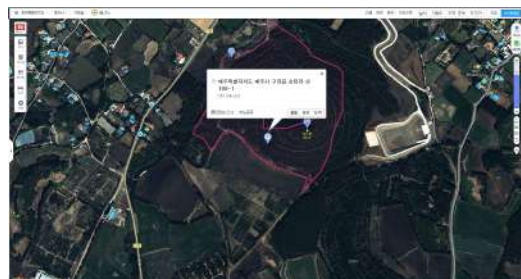
5) 구좌읍 송당리

(1)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 주소 - 송당리 산 199-1
- 소유권 - 송당리새마을회
- 지목 - 임야
- 신명 - 웃손당 금백주 할망
- 제일 - 1월 13일, 2월 13일, 7월 13일, 10월 13일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이승순 심방
- 관리 - 송당 본향당 보존회, 문화재돌봄사업단
- 당굿 - 있음
- 특이사항 -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9-1호 지정되어 있으며 당굿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30]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그림 31]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 주소 - 송당리 산8-1
- 소유권 - 송당리새마을회
- 지목 - 임야
- 신명 -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
- 제일 - 1월 13일, 2월 13일, 7월 13일, 10월 13일
- 특이사항 - 송당리 소천국 하르방당은 폐당에 가까운 상태였으나 최근 마을에서 신당에 이르는 길을 내어 신당을 복원하고 있다.



[그림 32]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그림 33]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3) 현장조사 분석

- 구좌읍 송당리는 신당 현장조사 결과 2008년 신당조사 당시와 동일하게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일뤼당,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산신당으로 4개의 신당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일뤼당과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산신당은 찾는 사람이 없고, 찾기 힘들어 폐당과 멸실의 위기에 있다.
-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은 1996년에 등기 접수가 되어 있고 소유는 송당리새마을회이다. 2015년에 공공용기협의취득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설정한 상태로 송당리 본향 웃

송당 당오름 백주할망당은 200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 9-1호로 지정되었다.

-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은 1996년에 소유권이전으로 등기 접수가 되었고, 소유는 송당리새마을회이다.
-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일뤼당과 송당리 상덕천 체오름 산신당은 1971년에 소유권보존으로 등기 접수가 되었고, 소유자는 박○○(구좌읍 송당리 거주)이며 지목은 목장용지이다. 근저당권설정이 1987년, 1988년, 1993년 총 3번 되었고, 2007년에 해지되었다.
- 송당 본향 웃송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관리는 송당본향당보존회와 문화재청에서 한다. 보존회에서 보수, 복원, 등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문화재청으로 요청한다고 하지만 제보자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며, 매킨심방 문제는 정태진심방이 죽어서 그 부인인 이승순 심방이 맡아서 하고 있지만 송당 본향당은 남자심방만 굿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승순 심방이 남자심방을 데리고 와서 굿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보자(송당리장)는 자신은 신도가 아니어서 당굿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체육대회 때 날씨 좋게 해달라고 가서 빈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제보자(송당리장)

“옛날에 체육대회허젠 허난, 날 좋게 해줍센 빌레 가냔우다(웃음).”

- 송당리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은 송당 본향당 마블림제가 복원되면서 새롭게 주변을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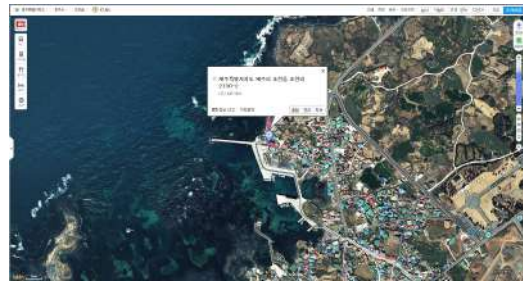
6) 조천읍 조천리

(1) 조천리 새콧할망당(고맏할망당)

- 주소 - 조천리 2730-2번지
- 소유권 - 국가
- 지목 - 도로
- 신명 - 새콧 고맏할망
- 제일 - 8월 15일, 12월 15일
- 본풀이 - 있음
- 메인심방 - 없음



[그림 34] 조천리 새콧할망당



[그림 35]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내용

- 조천리 새콧할망당(고맏할망당)은 1988년 소유권보존으로 국가가 소유자이며, 관리청은 건설부이다.
- 조천리 새당은 1996년 증여로 소유자 김○○에서 매매에 의해 2008년 김○○로, 다시 2009년 허○○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2012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위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 공사를 위해 주변 지형을 정리한 상태로 당을 찾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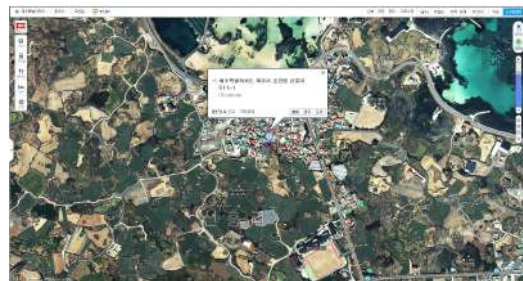
7) 조천읍 신흥리

(1)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

- 주소 - 신흥리 511-1
- 소유권 - 제주도
- 지목 - 종교용지
- 신명 - 동산뱃 대방황수 축일한집
- 제일 - 축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마을



[그림 36]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



[그림 37]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신흥리 불래낭할망당

- 주소 - 신흥리 545-1번지
- 소유권 - 국가
- 지목 - 도로
- 신명 - 불래낭할망 박씨할망
- 제일 - 축일, 택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마을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그림 38] 신흥리 불래낭할망당



[그림 39]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3) 현장조사 결과 분석

-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은 1969년 소유권보존으로 북제주군이 소유자였으나 2008년 권리승계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다.
- 신흥리 불래낭할망당은 2017년 소유권보존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이다.
- 현재 당곳은 하지 않지만 포제를 할 때 제를 지내고나서 신당에 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해신제를 어촌계에서 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면 신당에서 굿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들 기억 속에서 신당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신당에 대한 믿음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당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으로는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문화재보호법으로 제약이 강할 때의 기억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이다.

조사자 : 만약에 그냥 물어보는 거우다. 여기가 문화재가 되면 어떨 것 같애마씨?

제보자 : 아, 우린 반갑지 안해마씨.

조사자 : 문화재 반대?

제보자 : 왜냐면 문화재가 되면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난 그 것때문에 너무 제제가 많아. 우리가 문화재가 돼그네 보존은 좋

은데 주위가 발전을 못허는 거야. 우리 방사탑만해도 우리가 발전을 못허는 게 바로 그거. 그 해수욕장 그 텐트 치는 것까지 못하게 해볼터라고 그건 아니거든.

조사자 : 개발과 보존 문제가 걸어진 게 많구나예.

제보자 : 예. 사실적으로 보존허는 건 좋은데, 그 테두리 안에서 보존만 허면 돼지. 그 직선거리 200m, 300m, 아무것도 허지 못허게 허니깐. 그게 문제우다게. 당도 보존허고 다 좋은데, 겐디.

조사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없어진다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문화재로 묶어볼기엔 또 너무 제제가 많고.

제보자 : 예. 그게 문제이우다. 제제가 너무 많으니깐.

문화재보호법을 사안에 따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조천읍 함덕리

(1) 함덕리본향 알카름 서물당

- 주소 - 함덕리 3155-2
- 소유권 - 북제주군
- 지목 - 도로
- 신명 - 급서황하늘, 알카름 서물한집, 죽도남빌레일웨한집, 뒷당동산 일웨한집, 알질우의 요드레한집, 함덕역개(신흥) 열식거리 삼천병매
- 제일 - 서물날(11일, 26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김영철 심방
- 관리 - 함덕리 문화재지킴이
- 당굿 - 없음
- 특이사항 - 주변 빌라 신축으로 본래 위치에서 보수되었다.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그림 40] 함덕리 본향 알카름 서물당



[그림 41]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함덕리 좇나니므루 일뤼당

- 주소 - 함덕리 1698번지
- 소유권 - 제주특별자치도
- 지목 - 임야
- 신명 - 좇나니므루 고씨할망
- 제일 - 택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함덕리 문화재지킴이
- 당굿 - 없음



[그림 42] 함덕리 좇나니므루 일뤼당



[그림 43]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3) 함덕리 한양할망당

- 주소 - 함덕리 2547-1
- 소유권 - 등기없음

- 신명 - 한양할마님
- 제일 - 택일
- 본풀이 - 없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집안 사람들



[그림 44] 함덕리 한양할망당



[그림 45]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4) 함덕리 스지믄르 일뤼당

- 주소 - 함덕리 3061
- 소유권 - 기업
- 신명 - 스지믄르 일뤼할망
- 멸실



[그림 46] 함덕리 스지믄르 일뤼당
멸실 전 사진
(출처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그림 47] 함덕리 스지믄르일뤼당
토지의 현재 모습

(5) 현장 조사 결과

- 함덕리의 신당 현장조사 결과 2008년 신당조사 당시 남아 있던 7개의 신당 중 4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머체일웨당(폐당), 서모오름 산신당은 폐당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문두낭당은 주소지인 함덕 서우봉 인근 임야를 찾아보았지만 신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향당 알카름 서물당은 해당 번지 빌라 신축공사로 위치가 변경된 상태이며, 스지므르 일웨당의 경우에도 대규모 호텔의 신축공사로 멸실되었다.
- 함덕리 본향 알카름 서물당은 1979년에 증여로 등기 접수가 되었고 소유는 북제주군이다. 서우타운 6차 아파트 공사로 신당이 훼손될 위기에 있어 건물주가 마을과 논의하여 현대식으로 보수를 하였다.
- 함덕리 좇나니므루 일웨당은 1963년에 북제주군 소유권보존에서 2006년 권리승계에 의해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함덕리 머체일웨당은 1988년 공유자전원의 지분전부이전을 목적으로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부산 거주)에게로 등기되었다.
- 함덕리 스지므르 일웨당은 1988년 매매로 변○○(삼도1동 거주)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매매를 통해 박○○(경기도 수원시 거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4년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신탁재산의 귀속,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소유권대지권은 제주○○○○호텔로 2015년에 등기되었고 현재 멸실되었다.
- 함덕리 서모오름 산신당은 1997년 소유권보존으로 공유자 강○○, 김○○, 김○○, 강○○ 등의 소유권이 등기되었으며, 2014년 김○○의 지분이 현○○으로 이전되었다. 건물로 정비소, 열처리장,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 함덕리 문두낭당은 소유권이전으로 공유자 강○○, 고○○이 소유권 권리를 행사하다 1998년 강○○ 지분이 제주시에 의해 압류, 공유자

전원의지분전부이전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김○○(경기도 파주시 거주)에게로 소유권 등기되었다.

- 함덕리에는 10개 정도의 신당이 있었는데 현재 개발에 의해 멸실된 신당이 많다고 한다.

제보자(함덕리장) :

소지ㄴ루일뤼당 없어졌고, 할망도 여기도 건축붐이 많이 일었거든마썸. 게메 지키긴 지켜야 돼는데, 요거 헐 때도예. 지켜볼라고 했는데, 설계현 결 보니깐, 본 건물이 여기다 앓아버렸어. 설계를 보니깐, 그래서 못 지켰어. 외곽만 있었으면은, 쏘 접담으로만 닿아가지고 허믄 보기 좋게 복원만 시키고 뭐 큰나무가 필요없으면 큰나무 다른데 뽑아당 옮겨 싱거도 델 뻔 했는데, 보니깐 설계를 딱 그 가운데로 해부렸더라고, 요거 지키지 못허고, 그렇다고 요거 개인땅을 데모헐 수는 없는거고, 예. 그리고, 이것도 사유지인데, 여기 건축을 하신 분이 그거를 마을에 기부를 하겠다거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 열평정도를, 그런데, 기부허지 말고, 이 동네분덜이, 기부허나 안허나, 뭐 그 실물을 해부민 찾아가지 못허니깐, 좋게 좀 다듬어라해서 복원을 해부렸어. 아니 아니 외지분인데, 거난 그 분도 좋은 분이지, 서로 그 동네사름덜하고 의논을 해서 그 건축주가 복원을 했어. 그래서 저희덜은 거기가서 서물당의 유래를 표석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해놔지.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함덕리에 개발 붐이 일어 개인소유로 있던 신당들이 멸실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소지ㄴ루일뤼당이 그런 상황으로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신당을 지키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관리는 함덕리 문화재지킴이가 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 사업은 무보수이고, 일가족 일문화재를 연결하여 문화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나 함덕리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재지킴이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재지킴이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리사무소를 통해 결정된다고 한다.
- 함덕리사무소에서 하는 일년의 행사를 보면 포제는 1구와 4구에서 하

고, 어촌계에서는 영등굿을 하고, 리사무소에서는 일출제와 서우제단에서 하는 해수욕장 개장 때 제를 지낸다고 한다. 서우제단은 과거 멸치잡이 할 때 제를 지내던 장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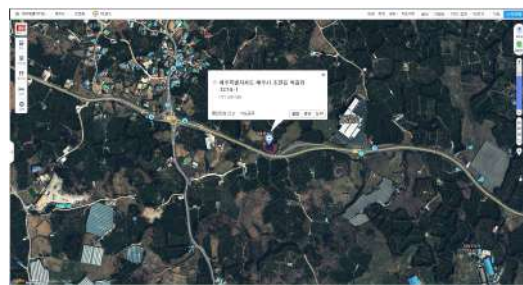
9) 조천읍 와흘리

(1)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 주소 - 와흘리 1274-1번지
- 소유권 - 와흘리새마을회
- 지목 - 임야
- 신명 - 소로소천국 열챗 아들 산신평, 서울 서정승 땃님애기
- 제일 - 1월 14일, 7월 14일
- 본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김순옥심방
- 관리 - 마을, 문화재돌봄사업단
- 당굿 - 있음



[그림 48]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그림 49]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현장조사 분석

-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은 1990년 북제주군조천읍와흘리새마을회가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이다. 2005년 제주민속문화재 제 9-3호로 지정되었다.

- 와흘리 고평동 본향 켓드르 산신당은 개인소유로 2015년에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김○○가 매매로 소유하고 있다.
-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다. 옥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를 지내고 간다고 한다.

10) 애월읍 하귀리

(1) 하귀리 해신당

- 주소 - 하귀2리 2729
- 소유권 - 귀일어촌계
- 지목 - 대지
- 신명 - 오씨할망, 개로육스또
- 제일 - 초하루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어촌계
- 당굿 - 없음
- 특이점 - 포제단도 신당 옆으로 이전하여 와서 같은 곳에 있음.



[그림 50] 하귀1리 해신당



[그림 51]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2) 현장조사 분석

- 하귀리 본향 돌코릿당은 1987년 매매로 신○○(제주시 일도이동 거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되었다. 2009년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지목은 전이다.
- 하귀리 해신당은 1992년에 매매로 귀일어촌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되었다.
- 하귀리 해신당 관리는 귀일어촌계에서 하고 현재 당곳은 하지 않는다. 선주인 사람들은 초하루에 와서 개별적으로 제를 지내고 간다고 하며, 혼적도 발견되었다. 당곳(해신제)은 격년으로 마을과 어촌계에서 책임져 진행해 왔다고 한다. 당곳은 2~3년 전까지는 유지되어 오다가 비용부담이 커서 안하게 되었으며 종교적인 문제도 있다고 한다. 가문동 포제는 해마다 해오고 있었는데 포제를 할 때마다 마을 땅을 빌려서 했으나 이제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땅을 다 팔아버리고 더 이상 땅을 빌려서 포제를 지낼 수 없게 되어 10년쯤 전에 해신당 옆으로 포제단을 설치하였다. 포제를 할 때 해신당에서 문전제를 지내고나서 포제를 한다고 한다. 당곳은 사라졌지만 믿음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비용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당곳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해신당은 마을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귀리 녹취록)

조사자 : 여기 당은 없애면 안되잖아예?

제보자 : 없애면 안되지.

조사자 : 어촌계에서 관리하는게,

제보자 : 할마님당은 어떻 어디로 풀고 자시고, 마을의 상징인디다가.

11) 한림읍 금능리

(1) 금능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 주소 - 금능리 1631번지
- 소유권 - 금능리 마을회

- 신명 - 소왕물 술일할망
- 제일 - 매 술일, 택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리사무소
- 당굿 - 없음
- 특이사항 - 금능리 본향당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위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52] 금능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



[그림 53]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2) 금능 본향 연뎃가름 영감당

- 주소 - 금능리 1631번지
- 소유권 - 금능리 마을회
- 신명 - 연뎃가름 축일하르방
- 제일 - 매 술일, 택일
- 본풀이 - 있음
- 매인심방 - 없음
- 관리 - 리사무소
- 당굿 - 없음
- 특이사항 - 금능리 본향당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위자로 설정되어 있다.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그림 54] 금능 본향 연뒋가름 영감당



[그림 55]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15일

(3) 내용

- 금능 본향 소왕물 술일할망당과 금능 본향 연뒋가름 영감당은 동일한 지번으로 1981년 8월 법률 제3094호에 의해 금능리마을회로 소유권이 보존되었으며, 2015년 12월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의해 대위자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정되었다.
- 금능 본향당 2곳이 포제단이 있던 능향원으로 이전한 것은 30년 쯤 되었다. 포제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위치하며 가능한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당곳은 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신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있다. 포제는 정월 대보름 0시에 한다. 포제를 지낼 때는 포제단에 제물을 차려 놓고 영감당과 할망당 각각 제를 지내고 포제 의례를 한다. 관리는 마을에서 하며 영등굿도 하지 않는다. 현재 신당에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명절 때는 가로등을 켜놓는다고 한다. 오갔던 흔적은 많이 보인다.

12) 옛 제주시 봉개동 동회천

(1)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 주소 - 회천동 1058
- 소유권 - 동회천마을회
- 지목 - 임야

- 신명 - 동새미 하로산또
- 제일 - 1월 14일, 7월 14일
- 본풀이 - 있음
- 매킨심방 - 양춘열심방
- 관리 - 동회천마을회, 문화재돌봄사업단
- 당곳 - 있음



[그림 56]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



[그림 57]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2) 현장조사 분석

- 봉개동 동회천 본향 새미하로산당은 2007년 소유권보존으로 등기 접수가 되었다. 소유는 동회천마을회이고, 당곳이 있다. 곳 참여자는 20~30명 정도로 신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개인소유지라고 한다. 관리는 마을회에서 하고 있으며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 제보자인 마을회장은 신당은 보존되어야 하고 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당이 마을의 소통의 장이 된다고 한다.

(동회천 녹취록)

조사자 : 여기, 회장님 생각에 당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셔마쎄?
필요하다?

제보자 : 아, 필요협주께.

조사자 : 이유가 뭐마쎄?

제보자 : 그래도 저것 때문에, 신앙문제가 아니고, 저것 때문에 마을 전체가 같이 단합도 되고 또 소통도 되고, 그래서, 꼭 이거는 뭐

IV.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신앙적으로 뭐 당 숭배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당, 당 허게 되면은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자기는 비록 아니지
만은 믿지는 안하지만은 아, 이걸 우리 하나의 공동체구나.

서희천만 해도 신당 소유가 개인인 관계로 신당을 정비하거나 할 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동회천 마을은 신당 소유가 마을회로 되어 있어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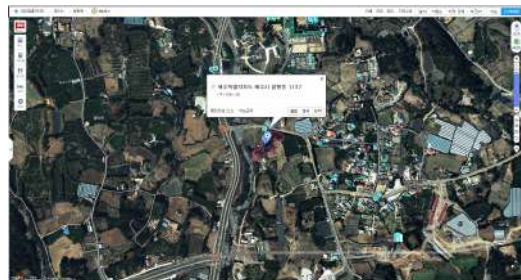
13) 옛 제주시 아라동 월평

(1) 월평 본향 다라콧당

- 주소 - 월평동 1137번지
- 소유권 - 개인
- 신명 - 산신백관, 은기선생, 늦기선생, 박제또
- 제일 - 1월 3일, 7일 택일
- 본풀이 - 있음
- 관리 - 문화재돌봄사업단



[그림 58] 월평 본향 다라콧당



[그림 59] GPS 위치 캡처

일시 : 2017년 10월 15일

(2) 월평동 소재 신당 현황현장조사 분석

- 월평 본향 다라콧당의 소유권은 1951년에 강○○(제주시 일도이동 거주)에게로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V. 시사점 및 제안

1. 신당의 보존 유형 및 문제점

- 신당의 보존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면 먼저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면 현재 신당 보존 및 관리 주체는 크게 마을, 어촌계, 심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로 리사무소가 관리의 주체이며, 해신당의 경우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관리를 하기도 하나 어촌계의 회원들이 대부분 마을주민인 것을 보면 결국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매인 심방이 신당을 관리하고 있다. 심방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전기 문제(가로등 설치), 벌초, 청소 등의 관리는 리사무소에 요청하여 마을 단위로 실시한다.
-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신당의 경우에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신당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당곳이 유지되고 매인 심방이 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신앙민(단골)이 남아 있어 공간의 지속적 활용이 유지되고 있었다. 향후 사라져가는 심방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신당과 당을 찾는 신앙민, 마을 사람들의 관계만이라도 유지되면 마을의 공동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당이라는 마을의 공간을 공동체가 함께 머무는 공동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 신당의 부동산 소유가 개인인 경우에 소유자가 신당의 내력과 관련이 있는 해당 집안에서 신당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마을이 관리 주체가 되어 표지판, 진입로 등을 관리하기도 한다. 즉, 신당 관리는 소유형태를 떠나 대체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등록된 신당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관리를 한다.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체적 관리주체는 리사무소이다. 민속문화재로 등재된 신당의

경우 보수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한 후 이 내용을 문화재청으로 신청하여 건축을 진행한다. 이 경우에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의 주체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도단위로 다시 읍면단위로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제주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재돌봄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단장 1인, 행정 1인, 전문자문위원 4인, 모니터링 팀장 2인, 경미수리팀장 1인, 돌봄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문화재 380개(부속문화재 포함)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신당의 소유권 문제

- 제주의 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마을 소유의 목장과 공동 토지를 관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마을의 공동자원은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거쳐, 제주 지역의 개발 광풍으로 소유권을 빼앗겨왔다. 그 결과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대표하는 신당들의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 등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멸실되고 폐당된 경우도 많다.
- 신당의 관리의 주체는 여전히 마을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마을 소유의 신당의 경우 소유권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관리 및 당굿의 전승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제주 신당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신당의 토지 중 마을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신당들의 소유권을 마을로 귀속시켜 소유권과 관리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마을의 신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현재 마을마다 신앙민이 없어지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당을 마을 소유로 환원하는 방법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신당을 이루는 신당, 신앙민, 심방의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신앙민들이 사라지면서 신당도 사라지는 과정인지, 신

당이 훼손되면서 신앙민들이 누락되어 가고 있는지, 심방이 사라지면서 신당은 남아 있지만 폐당이나 다름없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당, 신앙민, 심방의 삼각관계에서 신당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하다.

- 신당의 지목(地目) 또한 새로운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가진다. 마을의 신당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당의 토지 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타 토지에 포함된 지번의 경우 개발의 광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 소유의 신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신당이 포함된 토지의 경우, 보존할 신당은 독립지번으로 조정한 후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본향 대방황수당의 지목만이 종교용지로 되어있다. 그 밖에 국가 소유 신당의 경우 다수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신당이 도로 확장 및 공사로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3. 신당의 공동자원화 방안

- 마을의 신앙으로서 신당은 당국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당에 찾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을제인 포제에서 제를 지낼 때 신당에 가서 문전제 형식으로 제를 지내고 포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포제가 끝나고 신당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신앙으로써 신당이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당에서의 의례의 형식이 곳에서 유교식 의례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당은 마을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제주의 신당은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의 정신적 뿌리로서 기능하고, 해녀와 어부들에게는 공동의 바다를 관리하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 신당의 역할은 종교적 범위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소통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과거 마을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제단의 성격을 가진 신당은 일정한 제일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성을 나누고, 당굿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소통을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은 마을의 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마을의 중심인 신당이 가졌던 공동체적 요소를 되살려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선 제주의 마을에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재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단위로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대다수의 마을에서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의 축제로서의 당굿 참여 및 관람을 유도하여 마을의 의례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구성원과 새로운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제주의 공간에는 여전히 공동체성,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과의 공존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과거로부터의 유산이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¹⁸⁾ 제주의 신당이야말로 제주인들의 공동체성, 마을을 중심으로 놀이하고, 화합하고, 기원하던 흔적들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내고 있다. 함덕리 서우제단에서 하는 해수욕장 개장 의례는 새로운 모습의 축제일 수 있다. 원래 멀치잡이 철이 되면 지내던 제단이었으나 그 활용도를 현재에 맞춰 새롭게 의례가 생성됨으로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활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4. 신당의 문화재 지정 방안

- 신당 보존 방안 중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당의 소유형태에 따라 문화재 지정의 가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신당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소유권을

18) 서영표(2014),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공간과 사회』 24(1), 27쪽.

마을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여겨진다. 단, 마을의 모든 당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마을의 중심이 되는 본향당을 위주로 보존하고 여러 개의 당으로 나뉜 경우에는 본향당에 다른 하위의 당을 결합하는 형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관리 비용을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어 관리와 보존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 함덕리 본향 서물당처럼 빌라가 신축되면서 신당이 사라질 위기에서 마을과의 협의에 의해 신당을 보수공사를 하여 현대식으로 이전한 사례는 신당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형태가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문제는 소유권과 상관없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다. 마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수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하였다면 옛 모습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당을 찾는 신앙민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에 대한 마을 단위의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 신당의 보존 및 관리는 용이하지만, 문화재 반경 500m까지는 개발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신청을 내서 승인을 받아 수행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더욱이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마을에서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함덕리 스지르르 일뤼당의 경우 개인 소유 토지가 신앙민 등 마을 주민과의 의견 조율 없이 매매되어 개발 열풍에 휩쓸려 신당이 멸실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과 신앙민 모두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면 멸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정책 제언

- 신당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소유권 형태
 - 잘 보존되고 있는 신당의 관리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이 신당 소유 및 보존의 주체가 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신당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신당 소유에 대한 소유권 변경 혹은 마을 소유의 토지와의 교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마을 신당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방안
 - 마을이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지원책 필요하다.
 - 관리 방안의 내실화(관리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 전문가 지원 등)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 마을 신당의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문화재 지원과 관련한 비효율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가 필요하다.
- 의례(당굿)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신당의 보존을 위해서는 마을의 당굿이 보존되어야 한다.
 - 의례가 마을 신당 보존과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례를 통한 마을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재 전문 관리 체계 마련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신당은 5개소이다. 이들 신당은 문화재청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 제주 신당이 제주 문화를 보여주는 마을의 공간이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최근까지 문화재청과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문화재지킴이,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힘써 왔다. 향후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예: 문화지킴이, 문화재돌봄사업단, 문화인턴제 등) 등을 양성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마을 신당의 공동체성 유지·확산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됨
- 제주 지역 신당의 보존 형태, 소유 형태, 신당의 유래, 당의 이야기 전승, 당곳의 유무, 매향 심방의 유무, 신앙민의 존재 유무, 마을의 이용 형태, 마을 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 심도 있는 현장 조사를 통한 총체적 신당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마을 단위의 당곳의 현황 분석을 통해 당곳 보존 형태 및 당곳과 신당, 마을 사람들의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의 의례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향후 지속되는 유입 인구와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서 마을의 의례와 신당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개발의 열풍 속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마을의 신당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불어 닥친 제주 개발의 광풍과 마을 단위 신당의 토지 소유권 변화와 마을의 공동체성 훼손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2009), 『한국무속신앙사전』, (주)디자인인트로.
- 엘리너 오스트롬(2010),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알에이치코리아.
- 조성윤(2017), 「제주의 바다와 땅,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서울: 진인진.
- 허남춘(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최현 외(2016),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서울: 진인진.
- _____,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서울: 진인진.
- _____(2017),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서울: 진인진.

<정기간행 학술지>

- 윤순진(2006), 「주도 마을 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생태적 함의」, 『농촌사회』16권(2호).
- 서영표(2014),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공간과 사회』24권(1호).

<보고서>

-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2008),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도서출판 각.

<신문>

- 강정효, 「제주의 신(神)들도 개발 바람에 속절없이 쫓겨났다-강정효의 이미지 제주(13)-사유지 신당 보존대책 없어 안타까움만」, 『한국일보』(2016. 06.22).

<인터넷 사이트>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culture/index.htm>

Abstract

Primary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Commons of Shamanic Shrines in Jeju

Seok-yoon Kim, Jeong-heui Song, Jae-sub Lee

Keyword : Jeju shamanic shrine, commons, shamanism, ownership of property, cultural heritage, land, *Ponhyangdang*(main shrine of a village), *Ilrwechang* (shrine for children's health and curing of diseases), communit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as part of a preliminary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al resources. Data for this study is based on "2008 Research on Jeju Shamanic Shrines: Jeju City Area". In order to identify the ownership of shrines, the locations of 192 shrine sites listed in abovementioned book have been converted into addresses via the Daum Map app (<http://map.daum.net/>) and then a field survey conducted to confirm the actual address. With the actual addresses confirmed,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was verified via the Corporation Register. Among these, 92 shrine sites belong to individuals, 27 sites are owned by the government, 21 owned by a loc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City, Bukjeju County), 21 owned by villages, 5 owned enterprises. 26 sites were unable to have their addresses verified or were not listed in the Corporation Register. The actual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the Gujwa-eup are a including Dongbok-ri, Kimryeong-ri, Woljeong-ri, Hado-ri, Sondang-ri; in the Jocheon-eup are a including Jocheon-ri, shinheung-ri, Hamdeok-ri, Waheul-ri; in the Aweol-eup are a including Haqwi-ri; in the Hallim-eup are a including Geumneng-ri; in the old town of Jeju City including Hwaechong-dong and Wolpeong-dong. Another field survey on 26 shrine sites was also conducted in 13 villages.

The entities involved in shrin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can be mainly divided into villages, fishing village communities, and shaman. They are mainly managed by a village office, but as for sea god shrines, they are maintained and managed by a fishing village community. Considering that most members of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are also villagers, it can be said that shrines are also managed by the village. Other than such cases, a senior shaman takes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Even though they are under management by a shaman, the shaman sends a request to the respective Village Office regarding the payment of regular maintenance fees such as electricity (installation of street lights), shrine cleaning and landscaping.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he maintenance is conducted by the unit of a village.

The field survey has shown that most of shrines are well managed and maintained. However when ownership belongs to an individual such as Ilrwedang Shrine in Hamdeok-ri, the research shows that many shrines are likely to be vandalized by the individual's decision to sell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and the development boom.

The important role that shrines play in contributing to the Jeju's cultural identity is under threat. Through this survey and review of ownership status, this study seeks to raise awareness of the loss of these important cultural asset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shrines to the villages and residents of Jeju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shamanic shrines themselves. Furthermore, it also suggests various strategies for conserving and maintaining shrines; In particular, they should be either officially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or managed and supported by the respective village itself.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n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ownership of the communal resources by the unit of a village or the space encompassing the community through a field survey of ownership in the entire region of Jeju City as well as a multi-layered interviewing research.

부록 1. 현장 면접조사표

제주도 신당 면접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원입니다. 본 설문 조사는 제주 도내 신당 소재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당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제주 공동체의 근원을 차지했던 신당의 공공자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당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24일

연구책임자 김석윤
연구원 송정희, 이재섭

I. 당에 관련된 질문

질문 내용				
1. 마을에 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는가? Yes or No				
0	1	2	3	4개 이상
1-1. 알고 있다면, 당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름이 무엇인가?				
2. 당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3. 당을 주관 하는 심방이 있는가? Yes or No				
3-1. 없다면 어떻게 당을 꾸려 나가는가?				

4. 당 제일을 아는가?
5. 당 본풀이를 아는가?
6. 당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Yes or No
6-1. 참여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몇 회 혹은 몇 년)
몇 _____회 or _____년
7. 당 관리는 누가 하는지 알고 있는가? Yes or No
7-1. 당 관리를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마을, 마을주민, 리사무소, 지자체, 심방...
8. 당 곳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9. 당곳 참여자는 얼마나 되는가?
-현재 :
-과거 :

II. 당 소유에 관련된 질문

질문 내용
1. 당 소유자가 따로 있는가? (땅 혹은 건물 주인)
2. 당 소유가 마을이 아닌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개인이나 혹은 기업에게 마을 당의 땅을 사야된다고 생각하는가?
4. 당의 땅이 팔리거나 개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마을 소유가 아닌 경우)
5. 당이 문화재로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문화재가 될 경우 소유권은 마을 혹은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7. 당이 문화재로 지정 된(될)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8. 당이 계속 잔존 하는 것을 찬성하는가?
9. 당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0. 당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1. 마을의 개발과 당의 보존이 대립할 때,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가?
12. 그 외 마을 당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Ⅲ. 응답자의 일반사항

대상자 성명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세	마을 직책	
직 업		전 마을 직책	
출생지	()시/군/구 ()읍/면/동 ()리		
현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리		
현마을 거주년도	() 년		

부록 2. 현장조사 녹취록

녹음파일 번호 : 000

조사일시 : 2017년 8월 10일

조사장소 : 제보자 집 (가문동길 67-3)

제 보 자 : 고춘심(55년생, 여, 하귀리 귀일리어촌계장)

조 사 자 : 송정희

조사자 : 녹음해그네 뭐 할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는 다른 걸로 물어볼 꺼에. 종이에 적어진 걸로 물어볼 거라부난. 그 해신당, 여기가 해신당은 그 관리는 항상 어촌계에서 계속 해 온 것과?

제보자 : 아, 어촌계에서 계속 해, 어촌계에서만이 아니고 마을에서가, 여기는 농업 반 어촌계 반 해,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깐, 마을에서가 옛날부터 이제, 마을에서가 어촌계랑 마을에서가 계속적으로 해와신디, 한 2~3년, 작년, 2~3년 전이 해신제를 해다가 중단해분거라마썸. 그러니깐 보조도 요즘은 어촌계로 해신제 할 때는 옛날에는, 덩수과? 덩지예?

조사자 : 아니, 아니예.

제보자 : 했는데 그, 이제는 우리가 딱 끊어부니깐게, 그때는 보조가 잊어지마썸게. 이제는 해신제 하는데 일단 보조가 나오는데 안해가지고, 2~3년 허다가 안허기로, 왜냐면은 그니깐 저뭇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마썸. 여기 또 마을에 정월나면은

조사자 : 여기가 하귀본향당잇과?

제보자 : 아니, 하귀본향당은 저쪽에 있는데. 이거는 마을 이제 우리 가문동. 본당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하귀, 하귀 본당은 거기는 당이 있어도 본당이 있어도,

조사자 : 여기 해신당이렌 부릅니까?

제보자 : 여기는?

조사자 : 여기 당 이름이 뭐마썸? 그냥 가문동?

제보자 : 예. 이디 할마님. 할망당이라고 이렇게 하니깐.

조사자 : 할망당.

제보자 : 예.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자세한 거는 잘 모르주게. 거니깐 우리 자라명도 그추룩허니깐 그냥 당이라고만 옛날에는 어디든지.

조사자 : 여기 당은 해녀탈의장하고 같은 주소안에 있는 거지예? 옆에는 포제고예?

제보자 : 예. 옆에도 포제고. 그디가 왜그러냐면은 원래 우리가 부지를 어촌계에서 다 산 거라마썸. 그래가지고 마을에 이제니깐 이렇게 번창허고 사람

들이, 그때는 마을이 어려우니깐 어촌계에서 왜냐하면은 이런 바다에서 나면은 툇같은 것이 그게 자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어촌계가 마을사람이고 마을에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빈곤해가지고 자산이 없었어요. 마을에는, 그나마 어촌계는 일년에 소득을 보면은 돈이 한꺼번에 조금 생기니깐 우리가 그 부지를 어촌계부지를 사가지고,

조사자 : 탈의장 살 때 그냥 산 것과? 아니면 따로 산 것과?

제보자 : 아니 아니, 그게 부지가 같이 꺼 잇인거라. 원래가.

조사자 : 탈의장에?

제보자 : 탈의장이 아니. 그 필지가 옛날 사람이 살아난 건데, 옛적부터 옛날부터 있는 번지에서 우리가, 한 사람 꺼니깐,

조사자 : 개인꺼?

제보자 : 개인이라도 옛날에는 이런 저거덜이 없어잖우파게. 이런 소유가 누구누구 안해도 그게, 뭐 하다보니깐 차츰 허면은, 요로 요로 사름 살게시리 짓으면서 살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포제하는 데는, 포제하는 데는 그거는 이제야 얼마 안됐어요. 포제 그디 우리가 설립해 놓은 데는, 그것도,

조사자 : 몇년 됐마씨? 포제 설립헌 거는?

제보자 : 포제 설립헌 지. 아니 포제는 우리마을은 옛날부터 포제라는 것은 끊어보질 안해봐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속,

조사자 : 포제는 계속하고 곳은 안하고?

제보자 : 곳은 2~3년만 우리가 관리를 못허니깐 일년에 한 차례가 되면은 동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다음해에는 또 어촌계에서 관할을 하니깐, 그게 계속적으로 마을이면 마을, 어촌계면 어촌계 허면은 복잡하지 않을껀디, 책임자가 바뀌다보면 그게 신경이 안가니깐, 그럼 해신제를 하지 말자고, 당굿을 하지 말자고, 2~3년뻗기 안뵈가지고. 포제를 할 때, 일월 정월에 포제를 할 때 같이 이제 할마님한테도 제물해가지고 그대로,

조사자 : 제물은 올리는데 심방 빌영 하지는 안함구나예?

제보자 : 예. 포제 할 적에 그냥 같이 이제 겸해가지고, 이렇게 저 허는게 요즘은 다 옛날 닭지 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햄뎀허니깐, 그렇게 하자. 경했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끝난 안해가지고 나도 책임했는데 이제는 그 해신제가 도에서가 이제는 보조를 해가지고, 그니깐 왜냐면 돈도 잇고 그때는, 심방 빌젠허든 돈도 들고 책임자들이 마을사람들이 귀찮으니깐, 일단 아무튼 자본관계도 자본관계주게. 당굿이 막 비싸고 그러니깐, 그 심방 빌영 오젠허든 한 해 한 해 하젠허든 비싸고 허니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하게 된 거주게마씨.

조사자 : 보조금 나오면 할 꺼마씨? 거든? 신청하든 요즘 보조금 많이 나옵디예.

제보자 : 예. 오백은 기존같은데.

조사자 : 회의를 해봐야 허는 거구나예.

제보자 : 마을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옛날에 흘러 온 것도 하지만은 무시하기도 하지만은, 나이드신 분들께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보고 해야 그걸을 허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거기에 모든 거를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정권도 가져야 하고, 누군가 허면은 귀찮아하고 안하기 때문에.

조사자 : 원래 여기가 어촌계 귀일어촌계잇과?

제보자 : 귀일어촌계인데 왜냐면 우리가 소속이 귀일어촌계 옛날에, 지금은 하귀, 옛날에는 귀일, 귀일이라고, 옛날에 귀일 하귀, 그니깐 동귀는 하귀1리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마다, 귀일이 뒤희가지고 귀일, 어촌계는 귀일어촌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귀,

조사자 : 여기 주소는 하귀2리입디다예?

제보자 : 예. 그니깐 우리가 말허는게 도에서도 이걸 시정해줬으면 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하귀1리어촌계장님한테도 우리 우리 어촌계는 명칭 이름을 바꿔야 돼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행정이 하귀1리, 2리로 댜는데 어촌계만은,

조사자 : 귀일어촌계.

제보자 : 귀일어촌계, 동귀일어촌계로 댜어잇주게. 거니깐 모르는 사람덜은,

조사자 : 귀일어촌계, 동귀어촌계. 서귀어촌계도 잇수과?

제보자 : 그쪽에는 엇고 아예 엇고, 마을마다, 이디만 특별허게 동귀허고 동귀리 옛날엔 동귀리허니깐, 이제는 하귀리로 명칭덜을 다 바꾸니깐, 거른 이젠 나도 이제 올리허른 2년 임직을 맡은지, 가만히 생소허게 나가 어촌계장덜을 만나면은, 모른 사람덜이 신경쓰지 않은 오래 않은 사람은 저 귀일어촌계허고 동귀어촌계면은 이제 이름을 잘 모르니깐 보통 하귀1리, 2리 이렇게 가니깐, 저 귀일어촌계는 어느 마을에 잇수과? 거니깐 동귀계장님은 막 오래 해시난 한 30년 넘언 1리 계장님은 뒤희 옛날에 그냥 뒤희, 겐디 앞으로는 계정해야 좋을거 왜냐하면은 이거를 젊은 사람들도 하귀면은 알지만은 하귀1리, 2리면은 이제는 아는데, 어촌계를 동귀, 귀일허면은 이거 어딴과? 이추룩허니깐 내가 진짜, 이것도 문제가 행정에서도 이게 그런 점도 없지않아에 잇는거라.

조사자 : 헛갈리게예.

제보자 : 게난 우리 부지는 그계 어촌계부지고, 포제혈 때도 저 우에, 옛날에 이 마을에서는 우리 친정아부지네도 살아계실 적에는 마을에서도 어디 밭에, 밭에 위치 좋은데 항상 허는 데가 잇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 개발허부니깐 엇언, 해안도로 우에. 이제는 옛날 닭지 안해, 옛날에는 공간이

너르니깐게, 밭에라도 허십서허주만은, 이제는 없어가니깐 포제허면은 이젠, 정월에는 어디강 발리고 헐 장소가 없는 거라마썸. 이제 허는 데 다 폴아불곡 이젠. 포제허는 자리는 우리 어촌계에서 부지 사놓은 거니깐 그디 저기 저기를 허니깐, 그러면은 거기다가 제단을 설립해가지고 사용 하겠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주마썸.

조사자 : 포제가 거기 온 거는 몇 년 된 거마썸?

제보자 : 포제 온 지는 십년은 아마 넘엄지.

조사자 : 거른 포제 끝난 새벽에, 한 두시에 포제 끝날 그 제물을 바로 옆에 할망당에 누가 올려마썸?

제보자 : 아 그것은 여기에 허면은 포제헐 적에 그 남자분덜이 그 포제헐 때도 올림신가? 그때만 뭐허영 고허영 햄신가?

제보자남편 : 게난 포제허게 뒤편은 다 남자덜이 험니다게. 남자덜이 허는디 일단은 그전에 우리가 그 할망당을 별도 해가지고 그 심방 빌어당 해놔는데, 보기도 뭐해서 동네에서 뭐해가지고 동에서 혼 번 어촌계에서 혼 번 허당, 또 해보니깐 이젠 안뒤편해가지고 이젠, 그걸 없애고 당허는 건 없애고 제관헐 때 그디, 일단은 할망당에 ㄴ치 절 올리자 해가지고, 동제 끝날,

제보자 : 올리 세 번 해신가, 두 번 해신가?

조사자 : 그남자 어르신덜이?

제보자 : 예. 여기서 제물을 제관덜이,

조사자 : 안한다고 볼 수는 없다예.

제보자남편 : 거난 허는 거나 마찬가지로인데,

제보자 : 간소하게.

조사자 : 간소하게, 그냥 심방 안불러그네, 그냥, 유교식으로,

제보자 : 유교식으로,

조사자 : 안한다고 볼 수는 없네예, 방식이 간단하게,

제보자 : 방식이 간단하게,

조사자 : 거른 여기 해너분덜도 다 참석해마썸? 할망당에 헐 때는?

제보자 : 아니,

조사자 : 포제가 남자라부난, 그 시간에 못 햄구나.

제보자남편 : 포제헐 때는 뭐 젊은 사람덜이나 여자덜은 못 오니깐,

제보자 : 포제헐 때는 남자들만, 제물만 해가지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동, 어촌계 이렇게 해신디 그게 안뒤편해,

조사자 : 이제는 포제는 다 택일잇과?

제보자 : 정월. 포제는 정월이고 굿은 이월. 당굿은. 영등달에 해가지고 그때 뒤편

지고, 이 조사를 무사 했수과?

조사자 : 당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굿은 하고 있는가? 당은 완전히 없애 버렸나? 그런 거 물어보래 왔수다.

제보자남편 : 당은 잘 관리하고 있고, 당은 완전히 없애면 안될 일이고, 동하고 어촌계가 이걸 해놔십주게.

제보자 : 왜냐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돼냐면은 우리 마을에는 어촌에 이제 다른 데는 어항을 빌려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배가 많아가지고, 지방 어장 같은데 비허든 배가 많았지. 우리마을이 여기가 지방어장 돼야주게, 우리마을이, 나도 막 권해봐도, 왜냐면은 그 이제 당굿을 허게 돼면은, 거의다 어부덜은 배 가진 분덜은 음식을 개인적으로, 마을사람들보다 자기가 선으로 이렇게 하니깐, 그러니깐 동에서 허면은, 동허고 한 번씩 돌아가면은 그거와 관련 없는 사람덜은, 마을 사람덜은 오면은 부족한 분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가지고 햄스면은 상황은 어떻게 끌어 갔을런지도, 경비는 드는데 그런 사람덜은 오히려 자기네 솔선수범해가지고 더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깐, 돈은 돈대로 서로 마을 사람덜이 맘이 안드는거라. 마을에서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간소화로 포제혈 때 간다. 어디서 소문을 들으니깐, 그렇게도 혈 수 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허는 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럼 좋습니다. 해가지고 포제혈 적에 이제, 고 해가지고 어느날 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혈 적에는 포제허는 날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 해가지고. 이거 두 번 해신가? 2년 돼신가 3년 돼신가?

조사자 : 그전에는 해마다 굿했수과?

제보자 : 2년에 한 번. 돈이 없으니깐. 옛날에 원래는 1년 한 번 했거든 마씨. 1년에 우리가 자랄 때는 1년에 한 번해도, 그때는 몇일씩 이틀씩 막 굿을 허면은, 이틀씩 굿을 허주게. 이틀허는데 지금은, 심방,

조사자 : 2년에 한 번허는 것은 언제쯤 됩마씨?

제보자남편 : 2년에 한 번 허는 것이 한 십년쯤 돼수다.

제보자 :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십년은 넘어주게.

조사자 : 십년쯤?

제보자 : 한 이십년은 땀서.

조사자 : 그 심방은 누구 불령 했는지 몰라마씨?

제보자 : 종교씨라고 마을에, 그리고 대춘씨라고 양대춘인가? 양썩가? 심방덜도 자기가 해나면은 개인으로 가는 거보다 마을 당을 오는게 자기네도 선호해가지고 심방덜끼리도 막 서로 질투해가지고, 싸게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때 돈 없으니깐 같은 마을에 둘이가 있으니깐, 싸게도 하고, 해볼려고 이디가그네 하고 사람덜이 다 다르니깐, 다 의견덜이 다르니깐 나

중에는 아예 그냥 저 양대춘씨로만 기도 있으니깐 해마다 그냥,
 조사자 : 기도 있으니깐, 그 기가 뭐마씨?
 제보자 : 깃발이 삼색 물색 3개 그런 거를,
 조사자 : 원래 여기 당이 몇 갯과?
 제보자 : 하나.
 조사자 : 가문동에는 하나?
 제보자 : 하귀리 본당이 있고, 초등학교 그디, 거기가 하귀리 본당이야.
 조사자 : 가문동 사람덜도 거기 가마씨?
 제보자 : 예. 그디가 계속 가지는 안혀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라면은 어머니네
 가 본당이렌 행 거기를, 거기가 본당.
 조사자 : 여기 해신당 할망 이름이?
 제보자 : 문씨할망. 문씨하고 고씨할망이렌 해신가? 문씨할망,
 조사자 : 하르방은 안들어봤우짜? 개로육서또?
 제보자남편 : 하르방은 안들어봤,
 조사자 : 오씨할망?
 제보자 : 오썬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어.
 조사자 : 이거 문씨할망 이야기는 안들어봤마씨? 어떻 행 여기 좌정했져, 뭐 그런,
 제보자 : 모르키여.
 조사자 : 잇긴 잇어났우짜? 어떻 행?
 제보자 : 여기 여기 어디 씨지지 안했인가?
 조사자 : 뭐 씨진 건 엇입디다. 가봤인다.
 제보자 : 씨진 거, 종육이아방이 알겐가? 누게 아방이 알겐가? 나이드신,
 조사자 : 문상훈어르신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가신디 엇입디다.
 제보자남편 : 누게 아방도 잘 몰라게.
 조사자 : 아이고 나도 친정아부지 잇일 때 잘 들영 놔둘 쥘, 그런 거 말해도,
 조사자 : 아니 그런 말은 잇어난마씨?
 제보자 : 계난 원래게 어디서 와그네 여기에 잇다그네,
 제보자남편 : 자식도 엇텐
 조사자 : 아, 자식도 엇텐허는 이야기가 잇긴 잇어났구나예.
 제보자 : 예. 잇긴 잇인다,
 조사자 : 잘 기억허는 사름은 엇어도 잇기 잇어났구나예. 거른 계장님은 계속 참
 여해난마씨?
 제보자 : 계속 참여허지. 우리 해녀덜은,

조사자 : 몇 번쯤 참여했마씨? 결혼하기 전부터?

제보자 : 아, 우리야 나는 친정이 여기주게.

조사자 :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 따라 텅기멍?

제보자 : 어릴 때는 그냥 구경하고, 이제는 당은 옛날 무당들만이 안혀주게. 옛날에는 무당덜이 허면은 아주 잘허고 구경허는 사람도 흥이 나가지고, 막 그냥 우리 하르부지네고 뭐 보면은 같이 진짜 춤이 들썩들썩 나올 정도로 뭐 허는데, 요즘은 만약에 한 시간 헐 꺼면 5분도 말미를 말을 안해가지고 설러부지게, 아침에 와그네 서너시 뒤편 벌써 다 끝나부는디, 옛날에는 밤이까지 이틀까지 했지. 아이고 심방 일고여덜, 일곱명까지 했지. 거른 북 살장고 치는 사름이 다 부분적으로 허지만은 요즘은 합쳐가지고 혼 사름이 겸해가지고 쳐버리고 허지. 아이고 저 해신 뭐냐 요왕놀이 허는 것도 옛날에는 막 진짜 그런 놀이허는 것도 뭐, 시루해가지고 시루 뭐, 다 간단 간단.

조사자 : 나까시리?

제보자 : 시루 막 던지고 허는 거 이제는 안혀주게.

조사자 : 어촌계 잣다왔인디. 소주병이 막 잇인디, 누가 막 뭐,

제보자 : 그거는 이디 배 허시는 분덜이 혼 달에 혼 번은 자기네가 가.

조사자 : 음식차령?

제보자 : 그렇지. 항상.

조사자 : 안한다고 볼 수가 없네. 심방만 안부르는 거지.

제보자 : 예. 크게 우리가 마을에서든 어촌계에서가 모셔야 헐 꺼디. 이제 이런 경비관계로 해가지고 못 헐 겨주게마씨게. 안허는 겨주. 다 뭐,

제보자남편 : 나도 원래 귀덕이우다만은 그디 분향이 크지 안헛과? 어부허시는는 분덜 그디도 갑니다게.

조사자 : 거른 어르신도 귀덕분향가마씨?

제보자남편 : 예, 예.

조사자 : 거른 삼춘은 여기 해신당 가야하고,

제보자 : 아니 아니 할망이 잇는 당은 그디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은

조사자 : 아니 그게 헛갈려가지고 결혼허면은 남편따라 가는 거,

제보자 : 남편 따라 가는데 우리가 믋음에 일년에 혼 번이라도 가고 싶으면은 가는거라마씨. 거기. 우리 당에 가는디 이디는 어부허시는 분덜 가고 해녀 허시는 분덜은 안가예. 당곳 헐 적에 일년 혼 번, 이년에 혼 번 허면은 그때나 출려가지고 찾아가지, 그렇지 앓으면은 안가마씨게. 이렇게 어부 허시는 분덜은 한달에 한 번, 초하루에 가는 사람, 보름에 가는 사람 다 자기만씩 틀리니깐,

조사자 : 당은 어촌계에서 청소하고,

제보자 : 예. 우리가 허주마씨계.

조사자 : 옛날에 당굿할 적에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얼마씩 하고 마을에서 얼마하고,

제보자 : 옛날에는 그렇게 했주마씨계. 옛날에 돈이 없으니깐 보리쌀도 걷우어가
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디 담당덜이 다니면서 돈을 마련해영 해신
디, 이제 동에서 허당 모질라든 어촌계에서 허고 우리 어촌계가 대부분
다 동민이주게. 경헌디 틀리니깐 이 단체가 다르니깐,

조사자 : 마을에서도 얼마내고 어촌계에서도 얼마내고?

제보자 : 그추룩허면은 헛갈리니깐 이년에 한 번을 허면은 마을에서 전적으로 음
식을 차령 다 허고 다음해에는 어촌계에서 허고, 그렇게 허당보니깐 그계
우리 젊은 사람덜이 나이가 들당 보니깐 이 요즘 세대덜은 경허지 안헛
과게, 경허니깐 이게 앞으로 정리를 안허면은 뭐, 그것이 아예 동이면 동
에 전속이 돼던가, 책임이 누군가 한쪽에서 딱 책임을 져야 허는디, 어촌
계에서 담당을 허면은 허든지 말든지 어촌계에서 책임을 저그네 헛 건디.

조사자 : 옛날에도 포제해나든 당에 음식 올려놔우과?

제보자 : 예. 음식까지는 아니라도 메는 올려.

조사자 : 옛날부터 경해신디 당굿만 엇어진거구나예. 당굿허면은 사람들 많이 읍
니까?

제보자 : 옛날만이는 아니주만은 소속된 사름들은 오지. 또 뭐 요즘은 뭐 많이 올
지. 옛날 당들은 다 잇을 쥔, 어촌계는 다 허나, 허는 데는 허고 안허는
데는, 우리는 손님덜 오면은 음식 대접을 험니다게.

조사자 : 맞아, 성계국수 줍니다. 성계국수.

제보자 : 아, 우리는 국수를 안허고 식사를 허면은 우리 탈의장 옆에 잇으니깐 마
을 사람들이영 다, 요즘 옛날 닥지 안헛그네 시대에 따랑 다,

조사자 : 계장님 성함이 어떻웁수과?

제보자 : 고자 춘자 심자. 고춘심.

조사자 : 연세가?

제보자 : 63세. 55년생.

조사자 : 여기서 태어났 쪽 살당 귀덕으로 시집 강 살당 다시 여기로 와서 사는
것과?

제보자 : 시에서도 살앗주게. 사업허당 안웨니깐 여기 와서 살앗지.

조사자 : 만약에 여기 당이 문화제가 됐든 좋을 것 닥을파?

제보자 : 문화제가, 잘 정비웨고 뭐 잘 관리가 됐든,

조사자 : 만약에 문화제한다고 나라에서 달라고 허든 어떻허쿠과?

제보자 : 어촌계 땅인디 풀아져? 팔 수가 없지. 어촌계에서 다 욱먹어. 돈이 우선

이 아니고 할마님당 폴아먹었다고, 폴아먹을 수가 잇냐? 팔 수가 엇인거.

조사자 : 여기 당은 없애면 안되잖아예?

제보자 : 없애면 안돼지.

조사자 : 어촌계에서 관리하는게,

제보자 : 할마님당은 어떻 어디로 폴고 자시고, 마을의 상징인디다가.

조사자 : 옛날엔 당은 개인계 아니고 마을 꺼라고 생각헌거 아니예?

제보자 : 마을에. 그니깐 그때 당시는 게 땅같은 거 많이 쥐도게 옆에 친척이라도 집 짓엉 살디 엇이든 여기 짓어 살라. 그 당시는 땅이 너르니깐, 그니깐 집을 짓엉 그니깐 할마님당은 잇어놔주만은, 우리가 옛날에 나도 도에 봐야 땔건디. 바로 당할마님 옆에가 공간 잇는데가 원래 탈의장이었주게. 탈의장이었는데, 아니 나도 보조 받으면서 그거를 기존에 잇는거를, 내가 그거 장사라도 해보젠 했당, 마을 위원님들헌티 받아와신디, 공사를 허당보니깐 자기네가 너무 부실허니깐 위험허니깐 해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위에서 해부니깐 철거를 허난, 저것이 그당시 우리 계장님도 혼 삼십년 했주게. 우리는 그 당시 처녀때 처녀때라도 우리가 그걸을 방에, 마을마다 방에, 알아지쿠과? 말방에를 해가지고 그때도 여기서도 아랫동네게 마을마다 방에, 우리동네 안에서도 중동네 웃동네 아랫동네허면은 방에를 해놔인디 관리해나니깐 마을에서 어촌계에서 그디를 사가지고 돈 삼만원 막 짓이고 다 했인디, 우리 계장님이 그 재정, 그 뭐 정리할 적에 통지를 보내면 다 해야할 건디, 아, 이제 왕 보니깐 우리는 잇는 중만 알안, 몇 십년을 허니깐 경 현 줄 알아신디, 계장님 봐꾸니깐 조사행 보니깐 우리 땅이 아니었어. 재정땅.

조사자 : 국가꺼?

제보자 : 옛날엔 국유지였는데 이젠 제주시로,

조사자 : 등기혈 때 안해부렀구나.

제보자 : 수협에서 보조 받고 집 짓고 다 했인디, 당연히 우리땅인줄 알아신디, 아, 문세가 아무것도 엇언. 호텔에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부실허니깐 철거를 해야 땤쿠다. 허당 그걸 리모델링 허젠 허당 안땤부니깐, 리모델링행 어떻 어떻, 현재 그게 엇어부니깐 더 문제가 땤는거라. 사진을 찍엉 어떻, 거난 저것이 게난 도유지로, 거기 조금만허게 팻말 붙져 잇일꺼라. 아이고 이제, 그디가 탈의장이었주게 우리가. 다 탈의장은 국유지에 영, 자기가 상 허는 탈의장은 엇언게, 우리는 우리가 다 산거주게, 탈의장. 마을에서 나가 총무, 산지 삼십년 넘었구나. 영 어촌계에서 들어보니깐 탈의장은 세금만 내고, 자기 가진 탈의실털이 별로 엇언게.

조사자 : 감사합니다.

녹음파일 번호 : 002

조사일시 : 2017년 8월14일

조사장소 : 함덕리어촌계

제 보 자 : 이광원(71년생, 남, 함덕리어촌계장)

조 사 자 : 송정희(1), 이재섭(2)

조사자 : 함덕 여기 영등곳은 일년에 한 번만 해마씨? 2월에 영등달에?

제보자 : 예. 2월13일.

조사자 : 맞아드리는 해마씨? 손맞이? 송별제 아니고? 손맞이로 허는 거 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보통 날짜는 어떻 정해마씨?

제보자 : 음력 2월13일. 거의 그 정도 날짜.

조사자 : 날은 정해져 있고?

제보자 : 정해져 있지는 않고 거의 13일로 맞춰예. 영등할망 2월초하루에 들어와
가지고 보름에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요쪽 관내는 날이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조사자 : 11일에서 13일 사이에 괜찮은 날로 잡아마씨? 심방은 누가하는지 알아마씨?

제보자 : 함덕에 김영철.

조사자 : 다른 당곳은 안해마씨?

제보자 : 예. 다른 당곳은 엇우다. 개인적으로 요쪽에 서물당 있는데, 거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

조사자 : 영등곳은 장소가 어디?

제보자 : 우리 어촌계에서.

조사자 : 여기서 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이 밑에.

제보자 : 바로 요 밑에, 밑에가 탈의장이고,

조사자 : 요로 영 돌아그네 들어가는데,

제보자 : 예. 공동창고.

조사자 : 여기 곳 비용은 어촌계에서 모아가지고 험니까? 해녀들,

제보자 : 예. 어촌계 자금으로,

조사자 : 다른데서 지원 받거나, 리에서 얼마를 주거나,

제보자 : 리에서 지원 받는 건 없고 주민자치계에서,

조사자 : 시에서 시 마씨?

제보자 : 읍 주민자치계에서, 조천읍 주민자치계,

조사자 : 조천읍에. 거기서 지원을 받아마씨?

제보자 : 거기에서 작년에 50만원. 작년도부터, 50만원. 올해 100만원으로,

조사자 : 나머지는 어촌계 회원분들, 선주,

제보자 : 그냥 어촌계 자금으로,

조사자 : 어촌계 자금으로. 영등굿 할 때 사람들 많이 옵니까?

제보자 : 한 500명에서 700명정도,

조사자 : 원래 영등굿은 원래가 당에서 안하잖아예?

제보자 : 당에서 허는 건 아니죠. 영등굿은 그냥 일년동안, 쉽게 얘기하든 일년동안,

조사자 : 예, 바다에 나쁜 일 일어나지 말고,

제보자 :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풍어, 만선 기원하는 의미니깐, 당을 차려놓고
당에서 허는 건 아니고,

조사자 : 원래가 아니잖아예.

제보자 : 심방을 빌어가지고, 이제 심방한테,

조사자 : 혹시 여기 서물당에서 굿허는 건 안봐났우파?

제보자 : 굿허는 건 지금까지 봐보지는 못했는데.

조사자 : 계장님 성함이?

제보자 : 이광원.

조사자 : 여기서 쪽, 태어나고 여기서 사셨우파? 원래 여기가 고향마씨?

제보자 : 예. 함덕이 원래,

조사자 : 연세가?

제보자 : 47.

조사자 : 71년생잇과?

제보자 : 예.

조사자 : 감사합니다.

녹음파일 번호 : 001

조사일시 : 2017년 8월14일

조사장소 : 함덕리사무소

제 보 자 : 김성만(58년생, 남, 함덕리장)

조 사 자 : 송정희(1), 이재섭(2)

[지도 보면서 설명]

제보자 : 여기도 당이 잇엇텐, 어르신덜 말 들어보면은 당이 송당서 여기 와가지
고 여기서 다시 저 와홀로 갓다는 말을 들어놔어.

조사자 : 당이 많아놔구나예. 알물이렌 헌데마씨?

제보자 : 아니 그쪽으로 가지말고,

조사자 : 알물 옆으로?

제보자 : 알물허고는 거리가 쏘 멀어,

조사자 : 거리가 멀어마씨?

제보자 : 알물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예. 이쪽으로 영 간
디가 이 근방에 잇어나신가, 이디 길 막은창인디 이디 집펜쪽에.

조사자 : 여기 정비 잘 된데는 여기 한양할망당,

조사자2 : 아니 여기는 아니고,

제보자 : 아니, 아니,

조사자 : 아니 한양할망당은 정비가 잘되어,

제보자 : 아니,

조사자 : 사진 찍은거 보면은 이렇게 3개가 정비가 잘 되어잇습디다.

제보자 : 한양할망당은 정비가 안돼어 잇일건데.

조사자2 : 흔적만 남았다고,

제보자 : 흔적만 남아 잇일건데.

조사자 :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은 일렛당 저기하고 사진으로 봤을때예.

조사자2 : 라마다 들어오면 없어진거.

조사자 : 기록에 사진으로 책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 있어서, 워낙,

제보자 : 예. 이건 삼년전에 없어져,

조사자 : 워낙 안찾아 뵙는지 나무만,

제보자 : 예. 큰나무만, 것도 엇어져부러우다.

조사자 : 정비, 실질적으로 정비가 잘된 거는 기록으로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문
할망당. 여기 한양할망당도 잘되어 잇습디다.

제보자 : 기파? 여기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잇네. 난 안가봤는데.

조사자 : 예. 아, 여기 서우제단이렌 헌디 가봤인디, 바닷가 바로 잇는데 거기,

- 제보자 : 여기가 해수욕허는데고예. 여기가 잔디, 잔디밭이우다게. 율로 영 가당보
민 보입니다게.
- 조사자 : 운동 막 허는 기구있는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예.
- 제보자 : 예.
- 조사자 : 거기에서 저기 만둥이굴,
- 제보자 : 만둥이굴허고 여기허고, 여기가 같은 저 멧을 잡기위해서 제를 지냈던
데, 여기는,
- 조사자 : 아, 제를 지냈던
- 제보자 : 제단, 제단. 옛날에.
- 조사자 : 굿했다는 게 아니고,
- 제보자 : 예. 무슨 여기서 굿도 허고, 옛날에 멧 잡기 시작허른 풍어제 형태로,
- 조사자 : 예. 지금도 험니까?
- 제보자 : 지금은 멧 안 잡으니깐,
- 조사자 : 아, 멧, 언제까지 험마씨?
- 제보자 : 지금은 이제, 여기, 저희들이예. 여기 해수장 개장할 때, 여기서 제를 지
냅니다.
- 조사자 : 아, 해수욕장 개장할 때,
- 제보자 : 여기서 본제를 지내고, 여기는 그냥 가가지고 돼지머리 하나 놓고, 해가
지고 여기다 돼지머리 하나 던져주고,
- 조사자 : 가지깽이할망당 지금도 잇어,
- 제보자 : 가지깽이할망당이 어디있더라.
- 조사자 : 여기 사무소 바로 앞에,
- 제보자 : 여기는 흔적이 잇일꺼우다.
- 조사자 : 흔적만 잇어마씨?
- 제보자 : 흔적이 남아 있을지 여기 호텔 들어오면 엇어져버렸는지, 하여튼 가보시
면은 흔적이 잇일지 모르쿠다.
- 조사자 : 일단 이장님 잠깐 앉아보십서.
- 제보자 : 거기 집이 잇이난 그 어른헌티 물어보민,
- 조사자 : 아, 거기 집이 잇어마씨?
- 제보자 : 요렇게 들어가민 거기 집이 잇우다. 그 집 주인헌티 물어보민, 흔적이
어딴우짜? 허민,
- 조사자 : 아, 이게 2015년에 만든거구나예.
- 제보자 : 예, 예. 우리가 지금 포제청이 마을 포제 지내는 데가 1구하고 4구만 지
내고 있고, 여긴 다 복원돼서 지내고 있고,
- 조사자 : 아, 이거 구별로 따로 험수짜?

제보자 : 들어가는데하고 여기 나오니깐,
조사자 : 인구가 많아부난,
제보자 : 들어오는데하고 원래는 여기 보면은예, 여기 표시가 안됐나? 표시가 댔을 건데, 사무장 우리 제단 이름이 뭐고? 무슨 제, 제청이동산? 제청이동산이 어디시? 여기 표시 안돼사?
조사자 : 제석동산 아닛과?
제보자 : 제석동산 어디 싯과?
조사자 : 여기.
제보자 : 아, 여기 여기.
조사자 : 원래 3군데였우과?
제보자 : 여기가 원래 함덕리 최초에 그 저 포제청. 여기서 제석이동산 여기서 제를 지내다가, 거난 여기가 지금예, 영 가다보민 이거우다. 이거, 여기를 얘기하는거. 여기, 이 제석이동산이 이거우다. 이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우다. 이 카부양, 돌언덕으로 이렇게 뒤편고 창고하나 지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 원래 함덕이 예, 제일 먼저 포제를 지내던 곳은 여기고, 그 이후에 각 구마다 허다가, 없어져 간소화시켜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쪽에 1구쪽에 한 군데 허고 나가는 쪽 4구쪽에 한 군데해서 2 군데만 허는거예.
조사자 : 원래는 여기서 한 군데에서 하다가 구별로,
제보자 : 다 구별로 1구, 2구, 3구, 4구.
조사자 : 5구,
제보자 : 5구는 그때 없었고, 이제 생긴 구분해서 나간데고, 1구, 2구, 3구, 4구가 따로 따로 허다가, 이제는 중간에 한 번정도 했을꺼예요. 한 번정도 허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1구하고 4구만 했던거예. 지금까지예.
조사자 : 여기 잠깐 이장님 앉으시면 잠깐, 저희가 그 제주도 당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러 다니는 거마씨. 당 관리를, 원래 제가 봤을 때, 가지깁이는 안봐난거 닳은디 여긴 있다예.
제보자 : 가지깁이가 아까 거기 아닌가?
조사자 : 저기 마을 안쪽에 있는, 리사무소 앞에 있는,
제보자 : 예. 요거, 거기는 흔적이 남아있을 꺼우다. 아직 개발이 안됐생이니깐예. 저희덜이 그 서물당하고, 서물당은 그 새로운 그 신식 뭐로 개조돼부러가지고,
조사자 : 어디마씨?
조사자2 : 서물당.
제보자 : 서물당.

조사자 : 서물당.

제보자 : 거기는 그 옆에 집을 짓게 됐니깐, 그 건축주한테, 그걸 잘 복원하러했더니만은 신식건물로 다 해부러가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표석은 저희덜이 설치했고예,

조사자 : 여기 함덕리 지금 당이 몇 개 있는거마씨? 4개?

제보자 : 옛날 꺼를 다 합치면예. 세봐야 됐구다. 여기 3군데 있었고, 3군데, 4군데, 10군데정도 있어났우다.

조사자 : 이장님이 기억하시는데가 10군데,

제보자 : 지금 저가 기억하는게 10군데, 저가 기억하는게 다우다. 다. 저희덜 향토지를 만들고자해서 이런 거 다 조사했거든마씨. 향토지 이제 10월달에 만들기로해서, 다 조사를 했우다.

조사자 : 지금 있는거는 서물할망당, 그다음에 거기가 본향이고,

제보자 : 지금 있는거는 서물당, 한양할망당, 준단니믄루당, 준단니믄루넛당하고,

조사자 : 문두, 문두낭당,

제보자 : 가지깁이할망당 흔적이 남아 있을꺼고, 그 다음 문두낭당,

조사자 : 다섯군데예.

제보자 : 예. 이정도로 남아 잇일꺼우다. 근데 저가 듣기로는 여기 표시는 안돼잇는데, 요쪽에가 큰당이 하나 있었다고 웃어른덜한테예.

조사자2 : 알물 옆에,

조사자 : 알물 그 근처쪽에예.

제보자 : 거기하고는 틀리우다. 알물 가는 길허고예.

조사자 : 음, 진입로가예.

제보자 : 진입로는 알물은 요로 가야하고,

조사자 : 당이, 함덕에 영 당이 많은게, 원래 함덕에 사람이 많이 살아부난 아닛과?

제보자 : 정확하게 지금 저희덜 추측허건데, 마을 형성 그거를, 저희덜도 지금까지 그, 찾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1273년도까지는 그 여원연합군이 이디를 침범했으니깐. 건 기록이 있고, 그 전에 것덜은 정확한 그 기록이 없으니깐, 그래서 웃어른덜 말 들어보면은 그 이전의 기록덜은 아마 그 여원연합군이 침투하면서 다 불사라지고 엇어져부렀다허는 말 씀덜을 해마씨, 어르신덜이, 그래서 그 전에 기록덜은 전혀 저희덜도 모르는 거고, 단지 지금 그 향토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덜 그 연대를 추정해볼라고 그 산물, 그 유산물 조사헌 게 잇일겁니다게. 그거를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어요. 그 분한테, 그 뭐 아무나 주는 자료라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토대로해서 아마 그 설촌유래를 한번 작성해볼라고 그렇게 계획을,

조사자 : 음. 이 당은 관리는 리사무소에서 햄수과? 뭐 새로 짓거나, 아까 서물할 망당인가?

제보자 : 이디 서물할망당도 저희덜이 했고, 문화지킴이사업으로도 그 표, 유래, 서물할망당이 최초의 그, 서물할망당이 돼기전까지 그 유래가 잇우다게. 그거를,

조사자 : 본풀이,

제보자 : 아니 아니, 그 유래를 들어보면, 낚시허레 갔다가 어떤 어부가 낚시허레 갔다가 그 돌이 올라왔덴, 그 돌이 낚시에 꿰가지고 고기는 안잡히고 해서, 그 했는데, 그 돌을 갔다가 이제 모시니깐, 꿈에 나타나가지고 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 돌을 잘 모시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다허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돌을 갔다가 그디다 모신거라. 지금도 그 돌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보시면 있는데,

조사자 : 음, 그니깐 그 당에 건물을 짓거나 청소허거나 허는 거는 리사무소에서 허는 것과?

제보자 : 저희 문화지킴이가 있습니다. 문화지킴이, 문화지킴이 회원이, 함덕리에 문화지킴이 회원이 있는데 그 분덜이 가끔 가서 별초작업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조사자 : 이게 따로 있는 거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당은 곳은 해마씨? 서물할망당이나,

제보자 : 서물할망당은 가끔 와서, 거기 냇도 드리고,

조사자 : 심방, 메인 심방은 잇우과?

제보자 : 게난, 메인 심방이 살아 잇어난디, 이젠 돌아가선양, 지금은 안계신디, 그냥 거기에 오셨던 분덜은 가끔 와서 제를 지내고 가,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가보면 제 지내난 흔적이 있어, 음식물도 버리고 이렇게 한 게 있어, 서물할망당같은 경우에, 준다니ㄴ루당은 지금 저, 한침이 할 망이 거기 가서 지금도 냇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양, 준다니ㄴ루냇당,

조사자 : 어느 당마씨?

제보자 : 준다니ㄴ루냇당, 여기, 여기 가보시면예, 요 냇당에 대한 유래를 표석으로 설치해놔우다. 문화지킴이사업에서, 요기허고 요 서물당허고, 유래, 유래는 일반적으로 검색허셔도 나올껀데, 준다니 같은 경우는 저거는 워낙 유명헌 당이라부난, 검색만해도, 그 유래같은거라든가, 나올꺼우다. 서물당도 마찬가지로, 근데 조금 틀리우다. 저희들이 아는거하고, 검색헌 내용하고 쫓 틀리우다.

조사자 : 이 함덕에서 다같이 해가지고 굿허는 건 잇우과?

제보자 : 예. 그런 건 엇고마씨. 마을에서 허는 건 엇고,
조사자 : 마을별로 구별로?
제보자 : 그런 건 엇고, 우린 제만 지냅니다. 포제청 이거,
조사자 : 포제만 허시는 거마씨?
제보자 : 예. 포제만, 포제하고 저기 우리 해수욕장 개장할 때, 여기 서우제단에서
제 지내는거,
조사자 : 서우제단에서 제 지내는 그거는 유교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예? 심방 불령
하는게 아니고,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이제 여기 거의 뭐 심방 불러서 허는, 영등굿인가 그런 것도 안해마씨?
제보자 : 아, 그거는 저 어디서 하고, 어촌계에서.
조사자 : 아, 그거는 별도로 어촌계에서.
제보자 : 그건 영등굿.
조사자 : 그 뭐 일년에 처음 시작허는 신과세제나 그런 것도 리사무소에서는 전
혀 안하시는 거?
제보자 : 그거는 우리 그 저예. 일출제렌 해여그네, 그 지신밟기를 험니다게. 전
예, 전날 쫓신밟기를 해가지고, 아침 1월1일날 아침에 요기 요기 올라가
가지고 일출구경하고 관광객덜하고 여기 짹 잡니다. 여기. 여기 망오름.
조사자 : 망오름.
제보자 : 여기 서우봉 망오름예. 여기가서 일출을 보는데, 그거는 우리 쫓신밟기
전날, 전날, 여기 마을 한바퀴 다 돌아, 저기 옛날 풍물패덜하고 같이 해
가지고예.
조사자 : 함덕풍물패덜하고예.
제보자 : 함덕리 일출제를 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자 : 그외에 이장님이 아시는 곳은 엇우과?
제보자 : 곳은 엇우다. 별도로 마을에서 허는 건 엇고,
조사자 : 이장님이 영등굿할 때는 인사는 가셔마씨?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아, 그렇게 어촌계에서 하거나, 어촌계에서 허는 영등굿말고는 가시는데
는 엇인거다예?
제보자 : 없주마씨. 우리 마을에서 허는 건 일출제,
조사자 : 일출제고,
제보자 : 예.
조사자 : 일출제는 심방 빌어허는 건 아니잖아예?
제보자 : 심방은 안빌고 우리 풍물패덜이 잇우다게. 부녀회.

조사자 : 마을에서 허는 거는 일출제하고 서우제단에서 해수욕장 개장할 때 제 지내는 거하고, 그 다음엔 포제,

제보자 : 예. 포제.

조사자 : 리사무소에서 거의 주관해서 허는 거는?

제보자 : 예, 예. 건 마을에서 허는거. 일출제는 리에서 주관해서 허는거고, 영등국은 어촌계에서, 포제는 1구하고 4구에서,

조사자 : 아, 구장이 따로, 1구하고 4구에서,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리에서는 서우제단에서 허는 거랑 일출제, 두 개.

제보자 : 해수욕장 개장할 때랑 일출제, 두 개.

조사자 : 1구에서 포제, 4구에서 포제.

제보자 : 포제.

조사자 : 영등국은 어촌계.

제보자 : 어촌계.

조사자 : 분배가 딱 잘 됐다예?

제보자 : 예, 예. 거든 그 제 지낼 때는, 마을 리장은 꼭 참석합니다.

조사자 : 꼭 참석. 그 영등국은 어디서 해마씨?

제보자 : 어촌계.

조사자 : 어촌계 어디, 창고?

제보자 : 어촌계 사무실, 그,

조사자 : 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예?

제보자 : 예. 그 창고. 그 서물당 앞에예.

조사자 : 창고지예? 해녀탈의장이 아니고 창고뒀던데,

제보자 : 예. 저 어디 해양연구소 이렇게 내려가든예. 이디 바당더레 가든 잇우다. 그디 카부예.

조사자 : 그 영등굿할 때나, 포제, 포제는 그렇다치고 서우제단에서 할 때나 다 마을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비용해마씨?

제보자 : 요 영등국은 어촌계에서 부주를 받아예. 각 마을 단체장덜이영 뭐영 막 갑니다게. 그 영등굿할 때는, 어촌계에서 하고,

조사자 : 그 돈 다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제보자 : 예, 예. 그래서 하기도 하고,

조사자 : 도에서 혹시 지원해주거나 하지는 안해마씨?

제보자 : 지원허는 거 아마 잇일꺼우다. 시에서, 그 어촌계 영등굿할 때 일로 통 해가지고 지원받진 않지? 아마 어촌계에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잇우다. 받을꺼우다. 아마. 또 십시일반 동네분덜 가서 다,

조사자 : 또 십시일반 동네분덜 다 받아가지고?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일출제나 서우제단에서 허는거는?
제보자 : 일출제는 지원을 받습니다. 일출제는, 저,
조사자 : 도에서
제보자 : 아니 시에.
조사자 : 시에서?
제보자 : 응. 50% 50%,
조사자 : 서우제단은 그냥 리에서 허는 거,
제보자 : 예. 리에서 허는 거고. 것도 십시일반 제 지낼 때 오시는 분덜이 만원,
이만원 절혈 때 놓고 가.
조사자 : 거기 여기 해수욕장 가게 허시는 분덜은 다 내야되는 거 아녓과? 서우제
단에서 혈 때?
제보자 : 거의 다 오주마씨.
조사자 : 얼마라도 부주해야 되는거 아니예?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그 호텔이든 어디든예?
제보자 : 예, 예. 마을에서 그건 아예 예산이 잡혀있고, 하겠다해서 예산은 잡혀있
고, 근데 그거가지고 모자라니깐, 그 십시일반해가지고도 합쳐가지고도
모자라니깐, 모자라 이제는,
조사자 : 그쵸. 모자라쵸.
제보자 : 거른 이장 호주머니에서 더 뽑아서 주고,
조사자 : 영등굿이나 일출제나 포제는 참여허는 분덜은 많지예?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웬만하시 분덜은 다 참여,
제보자 : 예, 다 참여하신다고 보든 뉘마씨. 포제혈 때허고,
조사자 : 그러면 혹시 이 당 토지가 누구껀지 혹시 아세요?
제보자 : 뭐 다 개인소유지 뭐.
조사자 : 다 개인소유파?
제보자 : 예.
조사자 : 포제단도마씨?
제보자 : 포제단은 각 구에 소유고.
조사자 : 구가 소유하고,
제보자 : 구가 소유하고 있고,
조사자 : 근데 여기 해안에 있는 서우제단 같은 경우는 주소가 엇인거 아녓과?

제보자 : 서우제단은 거기는 공유지고,
 조사자 : 공유지마씨?
 제보자 : 공유지. 서우제단은.
 조사자 : 아, 이거는 공유지, 공유지면 도꺼렌 생각해야겠다예?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거난 당은 개인꺼라부난, 토지가 개인꺼라부난, 라마다 들어와그네 없애
 부러도 할 말은 없다예.
 제보자 : 할 말은 없어.
 조사자 :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이 없어진게 한 몇 개쯤 돼마씨? 한 4개?
 제보자 : 그제, 여기 보시면예. 소지ㄴ루일렛당 없어졌고, 할망도 여기도 건축붐이
 많이 일었거든마씨. 요즘은 안가부난, 최근에 없어졌는지, 흔적이 남아있
 을꺼라고 생각은 허는디,
 조사자 : 처음에 어디마씨?
 제보자 : 여기 소지ㄴ루일렛당.
 조사자 : 라마다로 엇어져분거마씨?
 제보자 : 예. 라마다로 엇어져부런.
 조사자 : 한양할망당도 지금 개발 많이 돼부난.
 제보자 : 예.
 조사자 : 엇어져실 가능성이 있고?
 제보자 : 예. 그리고, 이것도 사유지인데, 여기 건축을 하신 분이 그거를 마을에
 기부를 하겠다거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 열평정도를, 그런데, 기부허지
 말고, 이 동네분덜이, 기부허나 안허나, 뭐 그 실물을 해부민 찾아가지
 못허니깐, 좋게 좀 다듬어라해서 복원을 해부렸어.
 조사자2 : 마을분인데요?
 제보자 : 아니 아니 외지분인데, 거난 그 분도 좋은 분이지, 서로 그 동네사름덜
 하고 의논을 해서 그 건축주가 복원을 했어. 그래서 저희덜은 거기 가서
 서물당의 유래를 표석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해놔지.
 조사자 : 가지깁이할망당도 개인소유꺼라는 거지예?
 제보자 : 예. 이것도 다 개인소유.
 조사자 2 : 여기 혹시 과거에는 마을소유라거나?
 제보자 : 요거.
 조사자 : 제석동산.
 제보자 : 젔 처음 마을에서 제를 지내던 곳이 여기, 여기 지금 마을 땅으로 돼어
 잇어.
 조사자 : 서물당이 북제주군 꺼, 도 꺼는 아닛과?

제보자 : 이거?

조사자 : 서물당.

제보자 : 아니 개인땅 개인땅. 개인땅인데 거기 당을 잘 복원한거지. 개인.

조사자 : 여기 당은 리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는 거죠? 가시니깐 정비해 놓은거잖아예?

제보자 : 예. 여기는 지금도 제를 지내. 여기는 저희덜 포제를 하기 전에 여기가서, 제를 지내고와서 이제 문전제 형태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제를 하고 와가지고 가고, 문전제를 동시에 지내. 그런 다음에 포제를 지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1구에서 제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조사자 : 심방 빌령허는 건 아니고, 포제,

제보자 : 어, 개인이 와서 여기 와서 제를 지내는 데, 개인적으로,

조사자 : 포제에 올렸던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고마씨?

제보자 : 아니 포제 제를 지내기 전에, 처음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 포제청에서 그 1구 구장이 그 문전제를 지내, 그래서 내려와서 그 옆에 보면은 포제청 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라허게 이제 포제를 거행 허는거지예. 일년에 한번 꼭 여기 마을에서 꼭 제를 지내고, 평상시는 그냥 여기 다니셨던 분덜이 와서 한번씩 와서 제를 지내고, 흔적이 있어, 음식허면은 제를 지내면 잡식허는, 흔적이 남으니깐, 여기만 함덕리 소유로 되어있고,

조사자 : 포제동산만,

제보자 : 여기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 근데 여기는 공유지.

조사자 : 이장님 여기 문화지킴이는 언제부터 된 거마썸?

제보자 : 저가 이장똥서 일년 한 이삼개월 똥시니깐, 일년 한 육개월 똥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발족한 거는,

조사자 : 그 전에 당 관리허고 하는 거는 리에서 해줬다예? 아님 마을별로?

제보자 : 그 전에는 저 준다니믄루넛당은 개인이 저기 가서 넛도 들려주고 돈도 받거든, 지금 그 한씨집안에 할망이 당에서 가서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긴 허는데, 그 분이 관리를 했었는데, 문화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 이 지킴이회원덜이, 가서 저 풀도 쏘 비고, 거기 표석도 설치하고, 준다니믄루넛당에 대한 유래, 어째서 저 당이 생겼다는 것을 저기다 표석으로 설치를 해놔어요. 그디허고 서물당하고 거기 두 군데 했고.

조사자 : 그 두 군데는 리에서 헌거예?

제보자 : 예, 예. 문화지킴이 회원덜이, 리에서 선임헌 문화지킴이 회원덜이, 부녀

회하고 청년회하고 이렇게 있어요.

조사자 : 표석을 세우젠 허든 비용이 들지 안협니까?

제보자 : 비용은 도에 지원을 받았지. 그전, 도에 우리가 이렇게 할텐니, 그 사업에서 별초기제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우리가 송당하고 우리마을이에, 문화지킴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나 혈 때 대여섯군데 같이 문화지킴이 사업을 했는데, 문화지킴이를 켈 잘허는 속에 송당하고 함덕이 들어 갔어. 두 군데가.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 뭐 해가지고, 뭘 설치를 허쥬다허면 얼마 들쥬습니까? 허든, 뭐 일이백만원 들쥬다 영허면은 예산 적어가지고 올리면은 도에서 지원을 해쥬어.

조사자 : 관리는 문화지킴이가 한다고 봐야하는거구나예. 이거 문화지킴이는 이거는 이 분네가 별도로 도에 지원을 받거나 시에 지원을 신청하시는 거구나예. 이 문화지킴이,

제보자 : 원래 마을 사업인데, 마을단위의 사업인데, 이걸 정예화하자. 도에서는 이렇게 방만해볼민 안웨니깐, 함덕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리 전체가 그러면은 인구가, 누가 이렇게 허는지를 모르니깐, 도에서 이제 그걸을 문화지킴이 회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예화 시켜가지고 관리하기를,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조사자 : 근데 신청은 리사무소에서 하쥬?

제보자 : 예, 예. 항상 리장이 했어요. 그래서 문화지킴이 모집해서 이렇게 몇 명,

조사자 : 그러면 리에서 관리한다고 봐쥬넹요.

제보자 : 그렇쥬마쥬.

조사자 : 크게 보면,

제보자 : 리사업이주게.

조사자 : 리 사업인데, 그 안에 문화지킴이,

제보자 : 1구, 2구도 다 리 사업이지 뭐, 리에서 그나마 올해부떠는 포제허는데도 백만원씩 리돈을 드려, 일반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함덕리에 다 일이니깐, 근데 주쥬는 이제, 각 구장이 한다는 것 뿐이지, 리에서 예산도 다른 여기도 백만원 여기도 백만원 해가지고 올해부떠 이렇게 해야쥬다해가지고, 이제 백만원씩,

조사자 : 근데 함덕리가 리 재산이 많쥬아예?

제보자 : 재산? 재산은 쥬 있지양.

조사자 : 다른데에 비해가지고,

제보자 : 다른데 비해가지고 쥬 있지.

조사자 : 유명하더라고예. 재산많은 걸로,

제보자 : 재산은 많은데 다 지킬라고 해서 개발을 안해, 저희덜이 갖고 있는 땅덜

이 여기 땅덜이여, 아까 얘기한 여기 제단 관련허는 거, 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요,

조사자 : 다 바닷가에,

제보자 : 요 주위에 있는 땅덜이라. 요기. 요거하고, 여기하고, 여기 밑에는 공유지고 여기는 마을회 땅이고, 요 주위에, 여기 백사장도 하물며 마을땅이라, 여기 백사장도, 여기 백사장도 다 긴데, 여기 함덕분당은 이것이 자연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므로써 관광객덜이 온다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 여기 도로 요 밑으로는 지키는 걸 다 싫어해예.

조사자 : 장통밭이 마을꺼고, 여기 잔디밭, 운동허는 잔디밭도 마을꺼고, 감협 노명부 것도 마을꺼고, 그 외에는?

제보자 : 여기까지 다 마을꺼엿우다.

조사자 : 함덕포?

제보자 : 요, 2구 주차장하고 여기가 초등학교 자리인데, 교육청에다가 요거를 기부를 했어. 함덕리가 학교를 유치할라고예. 그런데 교육청이 다 팔아버려가지고, 초등학교는 여기, 중학교는 여기, 일로 옮겨버렸지양, 옮기면서 다 팔아버렸어. 여기하고, 여기 대명자리도 함덕리 중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

조사자 : 근데 교육청이 팔아버린마씨?

제보자 : 지금 다 평당 천만원짜리 땅덜이라 지금. 요 금방이 다 마을땅이란 전체가, 여기 전체가 마을땅이란, 노른자 땅만 마을땅이었는데 교육청이 이제 기부를 허니깐, 이제 여기도 마을땅이 있었는데, 마을땅도 내주고 일로 이전한다허니깐 이것도 내주고, 함덕사름덜이 교육열이 강해요. 학교를 유치하기위해, 그래서 함덕이 중고등학교가 다 있잖아. 고등학교는 신흥쪽으로 이쪽으로 갔지만,

조사자 2 : 고등학교 신흥쪽에 있던데,

제보자 : 신흥쪽으로 갔지만, 원래는 여기 중고등학교가 있었지.

조사자 : 대명자리가?

제보자 : 예, 예. 신 교육감한테 함덕 중고등학교에 예산 편성 잘 안하믄 소송걸 어부러, 고유목적대로 안췄으니깐 우리가 찾아 불췌다고 웃으며 말하면 막 웃어.

조사자 : 아이고 이거 찾아허주마씨. 저 대명만씩 헌 어마장장헌 데 팔아불민 안되는거 아닛과?

조사자 2 : 원래 11개인데 7개가 소실된.

조사자 : 응.

제보자 : 해안도로 요 밑에는 다 마을 땅인데 개발을 안할라고, 허면 대박나는데

관광객이 엄청오니깐, 다 장사잘되도 못하게, 조망권 가려서 안된다. 딱 지키고 있지.

조사자 : 마을땅으로 있어야 지켜지는 거구나예.

제보자 : 그렇지. 개인같은 뭐 이거 벌써 다 지어붙었지.

조사자 : 기주마씨. 이런 정비 막 잘되어있는 당은 마을에서 살 생각은 었인거마 씨? 계속 개인적으로 되어있으면 소지트루일뤼당처럼 라마다 들어오른 었어저볼 것 아닛과?

제보자 : 게난 요런 부분덜은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뭐, 여기 여기 원래 여기 산 이 있어요.

조사자 : 묘 말씀하시는 거잖아예?

제보자 : 어, 묘가 있는데 이 묘가 두 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냇당에 대한 유래가 서린 묘라 이 묘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존치가 되지 안힐꺼 가. 그 집안에서도,

조사자 : 여기 포제 이런 땅은 다 마을꺼텐 허든, 당도 영 마을에서 잡앙 잇어줘 야,

제보자 : 그렇주마씨. 근데 구지 안잡아도 이 집안에 묘가 두 개 이렇게 있으니 깐, 철리는 안하지.

조사자 : 철리하게 댜든 문제가 댜도 철리 안힐 때까지는,

제보자 : 또 이 묘에 대한 유래에서의해서 이 냇당이 생겼으니깐, 여기가 유명한 당인 것 같애예. 전도에서 다 오니깐, 냇 들리러,

조사자 : 이장님 바쁘시지예? 다음에 한 번 더 와도 댜쿠까?

제보자 : 예. 경험서. 시간 한글힐 때 오십서.

조사자 : 감사합니다.

조사자 2 : 여기가,

제보자 : 그렇지양. 거난 나가 아까 얘기헌 요런 데가 조사가 안댜디우다. 요기 알물 옆에 요기 이 당이 유래를 들어보면 쉼 큰당이었던 것 같애. 송당에서 여기 와서, 와홀로 갔덴 허니깐, 근데 이과정을 송당에서는 빼버려, 빼버리고 송당에서 와홀로 왔다라고 허더라고, 송당에 큰당 있잖아예. 그 당이 예초에는 일로 왔다가 여기로 갔다고 허는 거라. 이 함덕사름덜 말로는 요 당도 나가 거론 안 헌 열개의 당에 포함이 안댜 당이고,

조사자 2 : 멸실된 당이 많아,

제보자 : 요 서우봉 이 근방에 3개 당이 있었덴, 3개의 당이 있었다고 난 들엿고, 쪽대낭빌레가 어디있지, 쪽대낭빌레, 이게 다 있었던 걸꺼우다.

조사자 2 : 예. 예전에 조사에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거,

제보자 : 예, 예. 다 있었던 거, 지금은 없어진거주게마씨.

조사자 2 : 예전에 1990년도 이렇게 조사했었는데,

제보자 : 요게 지금에 문두낭하고 그 다음에 요 고망두덕일렛당하고 벽세기일렛
당이라고 돼어있는 거 있지예. 요거 3개가 아마 서우봉에 있었을 꺼우
다. 예. 요 근방에 있었을꺼우다.

조사자 : 문두낭 근처에?

조사자 2 : 개인이 갖고 있던거라 없어진 거라 봐야겠네요.

제보자 : 건데 나가 요길 조사를 안해봐서 그렇지양, 흔적이 요 동네 할아버지를
만나서 가면 흔적이 있을꺼라, 여기는 개발을 안한 지역이니깐, 흔적이
있을꺼라고 봐지는다.

조사자 2 : 이것들은 앞에 조사하신 분덜이 없어진 거라고 얘기하신거거든요. 요
렇게 일곱개는 앞에 조사하신 분이 찾아보니깐 흔적이 없다라고 이러
게 나와 있는,

제보자 : 어, 요게 함덕정의도리본당이렌 현개, 여기 있었던 것 같애. 요 알물. 정
의란 송당을 말허는 거잖예. 요거 요거, 요거 조사를 해봤인가? 흔적이
남아있을걸로 난 아는데, 요기도 집만 짓고 개발이 안됐어난 흔적이,

조사자 2 : 알물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제보자 : 예, 예. 아까 없어져부렀다는 데 요 근방에,

조사자 2 : 송당에서 왔다가 간,

제보자 : 예, 예. 이 함덕정의도리본당이렌 현개 그 당을 말허는거 닐아. 열개는
흔적이 남아있을 걸로 보는데,

조사자 : 흔적이 남아있는 거는?

제보자 : 예.

조사자 : 소지루일렛당은 잊어져부러,

제보자 : 아, 요거는 잊어져부렀구나. 아홉개. 혹시 여기것이 남아있으면 나가 가
보질 안허가지고, 아까 정의, 정의라는 게 송당을 말허는 거거든, 송당쪽에,

조사자 : 당도 잊어져불면 안될꺼라예?

제보자 : 게메 지키긴 지켜야 뉘는데, 요거 헐 때도예. 지켜볼라고 했는데, 설계현
결 보니깐, 본 건물이 여기다 앉아버렸어. 설계를 보니깐, 그래서 못 지
켰어. 외곽만 있었으면은, 쯤 점담으로만 달아가지고 허믄 보기 좋게 복
원만 시키고 뭐 큰나무가 필요없으면 큰나무 다른데 뽑아당 옮겨 싱거
도 될 뻔 했는데, 보니깐 설계를 딱 그 가운데로 해부렸더라고, 요거 지
키지 못허고, 그렇다고 요거 개인땅을 데모할 수는 없는 거고,

조사자 : 건 맞수다. 개인땅이라부난 데모할 수는 없는 거고,

제보자 : 이게 어려웁수다게 그게, 어려워.

조사자 : 지키젠은 했었구나예.

제보자 : 예. 우리 서우봉 지킴이 활동을 헌 이후에, 이전에 헌 거주계, 이전에 없
어진 거주계.

조사자 : 이장님 성함이?

제보자 : 김성만.

조사자 : 연세가 지금 어떻게

제보자 : 60이우다. 우리 나이로.

조사자 : 60이면 몇 년생잇과?

제보자 : 58년.

조사자 : 여기서 태어남 여기서 자라셋우과?

제보자 : 예.

조사자 : 결혼하셧 쪽 여기서 사션마씨?

제보자 : 젊은 땐 배도 쫘 타고, 육지가서 학교생활도 허고, 결혼헌 후에는 다 여
기서 살앗다고 보시면 뉘마씨.

조사자 : 이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파일 번호 : 003~011

조사일시 : 2017년 8월 16일

조사장소 : 하도리사무소

제 보 자 : 고영봉 1(50년생, 남, 하도리 감사), 김승선 2(67년생, 남, 하도리장)

조 사 자 : 최현(1), 송정희(2), 이재섭(3)

녹음파일 003

조사자 2 : 게메 목소리 들으멍 그때 선생님 닮수다하고 생각은 했우다.

제보자 1 : 예. 얼굴이 조금 눈에 익어요.

조사자 2 : 그때 잠깐 왕예. 한 시간 후루룩 조사행 가신디,

조사자 1 : 그리고 저는 그것 쯤 여쭙볼려고 하는데, 어, 상도리에서 하도리로 바다밭이 약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제보자 1 : 예, 예. 근데요. 그게 우리 저 마을이야기랄까예. 그 설촌유래 이런 부분이, 하도리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있어요. 지금, (중략) 우리 마을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한 것이 뭐냐면 마을에 옛날에 모 든 정신적 지주되는 신당 아닙니까? 우리마을예요. 할망당 역할을 하는 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면수동에 할망당이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조사자 2 : 여씨불도할망당이,

제보자 : 여래불도할망당이 면수동에 있는데, 여기는 상도리와 면수동 사람덜이 찾아서 이제, 거기서 절을 드리고 했던 당이거든요. 상도리 사람덜이 옛날에는 거길로 왔었어요. 지금 상도리 가면은 막음질일렛당이라고 있습니다. 막음지라는 지경에 있는 일렛당인데,

조사자 2 : 아, 요건 몰랐다. 일렛당예.

제보자 1 : 거기는 일렛당입니다.

조사자 2 : 각시당은 따로 있는 거잖아예?

제보자 1 : 그건 우리마을에 있고요.

조사자 2 : 이 막음질일렛당이 어디있는 거마씨?

제보자 1 : 상도리 202번지인가 어디 그 근방에 있어요. 저 우예. 그러면 거기 가 보면,

조사자 2 : 여기 삼성불도할망당, 여리불도할망당하고 면수동, 거기가 원래 4·3 때 갈라진거 아녜와?

제보자 1 : 제가 그 애길 드릴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도리 그 구좌읍지 관련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그 당에 관련 기록이 있는데, 또 황세부인 적세부인, 그 저 뭐냐 일렛할망당이렌 나오는데, 또 뭐렌 나오느냐면, ㄴ는곳일렛할망당이렌 해요. ㄴ는곳일렛당. ㄴ는곳이라는 말은 세화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화리 ㄴ는곳 이 바로 밑에예, 이 산

신당과 일뤼당이 같이 있습니다. 붙여가지고예.

조사자 2 : 세화리에,

제보자 1 : 예. 세화리에. ㄴ는곳 뭐냐 지금 서당뿌리에 있어요. 서당뿌리. 서당뿌리라고 옛날에 서당이 있었던 자리 근방이라고 해서 서당뿌리라는 지경인데, 그 밑에 가보면 이 산신당과 일뤼당이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 그 그 당이, 그쪽으로 갈라져 갔다해요. 상도에서는 일뤼당이,

조사자 2 : 세화께 가지 갈라갔다고,

제보자 1 : 세화리 그 서당불휘 일뤼당에서 가지 갈라 갔다. 분명히 거긴 일뤼당입니다예. 그러니깐 그전에는 이 면수동 할망당을 찾았어요. 사람덜이, 옛날에는 그러면은 면수동쪽에서는 자기네가 원조렌 험니다. 이쪽 할망당이 자기네서 가지 갈라갔다고 하고, 여기서는 자기네가 원조고 저쪽에서 가지 갈라갔다. 주장덜 허는데, 그 옛날에 1980년에 들어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 이걸 전부 들은거죠. 그래서 그대로 옮겼어요. 심방말도 듣고, 노인네 말도 듣고 해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다 자기네 마을이 앞에 존재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술을 해버리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많은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서로가 가지 갈라 갔으면 모시는 신위가 같아야 되요. 안그렇습니까예? 그런데요. 면수동은 여래불도할망 신위 한사람만 모시는데, 여기는 도고로도집사하고 여래불도할망 부부신을 모시거든요. 이건 분명히 가지 갈라간 게 아닙니다. 원래 틀린 신이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사람덜이 전해오는 그 심방계보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면수동은 오두육씨라고 지금 백세난 할망인데, 살아계세요. 그 분이 주관했는데, 거기가 칠대가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평대리에 있는 고산육씨가 걸 말아가지고 작년부터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 고복자심방이 71센데, 여기는 이제 팔대째 내려왔어요. 그 어머니한테서 물려 받았는데, 팔대째 내려왔다고 이제, 그 심방덜이 그 뭐 송씨하르방 뭐 그 할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보가 내려오는게 구술로 전해진 게 있습니다. 저기는 칠대, 지금 팔대째 내려왔고, 여기도 팔대거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당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틀렸기 때문에 할망당이 두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깐 서로가 가지 갈라 갔다는 건 헛소리고, 이제 틀린 당이란는 거죠. 우리가 이 신당 이 쯤 알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요. 정리 안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심방하시는 분덜이 그 사람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덜이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아요. 왜냐면 들은 건만 외와가지고 이, 애길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게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한집 한집하면은 그 저, 토산한집당을 얘기하는데, 뱀신을 모신다. 여드레당이다. 근데 이게 이것도 가만히 살펴 보며는 정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중략)

조사자 2 : 여기 면수동 제일은,

제보자 1 : 제일은 일단 1월12일날, 정월 열이튼날. 신년과세, 신년과세예.

조사자 2 : 과세예. 신과세.

제보자 1 : 2월13일날,

조사자 2 : 면수동마씨? 아님 여기?

제보자 1 : 양쪽 다 같애요. 2월13일 영등맞이.

조사자 2 : 영등맞이. 7월 마불림에, 12일날?

제보자 1 : 14일날 허죽.

조사자 2 : 7월은 또 14일잇과?

제보자 1 : 여기는 14일에 해요. 면수동은 확실히 난 모르겠어요.

조사자 2 : 10월 시만국제 12일에 햄수과?

제보자 1 : 예. 시만국. 근데 시만국이 무슨 뜻이에요? (중략) 10월12일날 허는 거 우다. 이런 것도 정립을 해줘야 돼요. (중략)

조사자 2 : 여기 하도리 본향도 본풀이 이야기가 잇우과?

제보자 1 : 다 있죠. 있기가.

조사자 2 : 혹시 선생님 기억?

제보자 1 : 나는 전혀 모릅니다.

조사자 2 : 있긴 있는데 내용은 몰라마씨?

제보자 1 : 예.

조사자 2 : 그냥 신 이름만 아는 거잖아예.

제보자 1 : 예. 나는 간단한 것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나가 이걸 깊이 공부할 뻔도 없고요. (중략)

제보자 2 : 안녕하십니까?

조사자 1 : 아, 이장님. 여기 제주대학교 최현교수님이시거든요.

제보자 2 : 아, 안녕하십니까?

조사자 1 : 안녕하십니까?

조사자 2 : 이재섭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제가 전화드렸던 송정희입니다.

제보자 1 : 내가 아까 마을의 경계를 얘기하다가 중단했는데 동동, 섯동, 우리 지금 섯동에 가면요. 거옥대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옥대동산, 방사탑. 동동네 가면은 답다니동산이 있어요.

조사자 2 : 답다니?

제보자 1 : 답다니 들어보셨잖아요?

조사자 2 : 예.

제보자 1 : 답다니도 방사탑이거든요. 그러니깐 우리 옛날 별방촌에는 동동에서
섯동까지가 확실한 거예요. 왜, 양쪽에 방사탑을 세워가지고 허한 기
운이 들어오는 걸 막았으니깐.

(중략)

조사자 2 : 당에 참여해본 적은 잇우과?

제보자 1 : 없어요. 전혀. 가보지도 안혀고,

조사자 2 : 당은 관리는 누가 해마씨? 관리? 이장님 당은 관리는 누가 해마씨?

제보자 1 : 관리는 심방이 하죠. 메인 심방이,

조사자 2 : 심방이 해요? 여기 있는 당 다섯개 다마씨?

제보자 1 : 예.

조사자 2 : 각각 면수동은 고산옥심방이 하고, 여기 하도본향은 고순안심방이 하고,

제보자 1 : 예.

조사자 2 : 각시당,

제보자 1 : 고순안 씨, 일뤼당도 고순안 씨.

조사자 2 : 남당은요?

제보자 1 : 남당은 이제 그 1999년에 그 송동우씨가 돌아가셔가지고, 관리하고 제
지내는게 거의 이제, 거기서 끊어졌어요.

제보자 2 : 방치.

제보자 1 : 1999년까지 매월 초하룻날, 거기서 제를 지냈어요. 남당이 해신당이죠.
풍어를 기원하는 당이에요. 그, 저, 배하는 사람덜이 찾아가는,

조사자 2 : 굿할 때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마씨?

제보자 1 : 무슨 굿할 때?

조사자 2 : 신과세제 할 때나 영등굿 할 때나, 마을 사람덜이 다 모아서 이렇게,

제보자 2 : 마을사람도 가서 부조하고 우리도 가서 부조하고,

제보자 1 : 보조로 충당할 겁니다. 아마,

제보자 2 : 어촌계에서도 얼마하지 안힘신가? 어촌계에서 햄실꺼우다. 어촌계에서,

조사자 2 : 공식적으로 이장님네가 메인 심방한테 얼마를,

제보자 1 : 그런 건 없어요.

조사자 2 : 그렇게는 안하고마씨?

제보자 1 : 예.

제보자 2 : 아, 거난 어촌계에서 햄실꺼라.

조사자 2 : 아, 비용은 어촌계에서 허는 거마씨?

제보자 2 : 어촌계에서 허지 안힘신가? 거, 어촌계에서 햄실컨데, 함 물어보카?

조사자 2 : 예. 한번 물어봐줍서.

제보자 1 : 근데 우리 저, 각시당에서는 옛날에는요. 해녀굿을 상당히 오래 했었어요. 워낙 이 마을이 크다보니깐, 한 5일 이상했죠. 옛날엔, (중략)

조사자 2 : 영등굿, 모든 굿 다 부녀회에서 하는 거마씨?

제보자 2 : 삼년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쫓 해줘난마씨. 영등굿을. 건디 삼년 끝나니깐, 삼년동안 지원해주당 끝나니깐 동 부녀회에서, 근데 돈을 많이 안드는 모양이라.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단돈 얼마라도 부조합니다게. 개인 부조금덜은 다 해마씨.

조사자 2 : 이장님 참여, 가본 적은 잇우과?

제보자 2 : 나는 우리 집사람 보내.

조사자 2 : 두 분 다 참여하신 적은 없으신거죠? 부녀회장님을 만나야 되겠네요.

제보자 2 : 동 부녀회장. 신동 신동, 동 부녀회장. 신동부녀회장. 각시당도 신동에 있어요.

제보자 1 : (중략)

제보자 2 : 각시당 바로 옆에서 장사해요. 칼국수.

(중략)

조사자 2 : 칼국수집이 이름이 뭐마씨?

제보자 1 : 석다원.

조사자 2 : 굿에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나?

제보자 1 : 이제 많이 안가지.

제보자 2 :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줄 때는 꽤 갔어. 한 백명. 도에서 헐 때는,

조사자 1 : 외지에서도 보러오고,

제보자 2 : 외지에서도 보러오고, 도에서 헐 때는 참가자 많았어.

제보자 1 : 옛날 신과세제 헐 때는 몇 백명이 되었어요. 몇 백명. 그러니깐 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다 갔으니깐.

조사자 2 : 혹시 당 거기가 누구 소유인지 아서마씨? 소유?

제보자 1 : 소유는 마을에,

조사자 2 : 마을 꺼마씨?

제보자 1 : 소유요? 소유는 모르죠.

제보자 2 : 당 저거 재경부결거.

조사자 2 : 재경부? 국가 꺼마씨?

제보자 2 : 저 공유수면아니냐? 각시당은?

제보자 1 : 각시당은 번지가 있어요. 재경부 땅.

조사자 2 : 저 어디도 건물 잇이깐 번지는 있을 것 아닛과?

제보자 1 : 그 건물만이 아니라 그 밭 전체에 번지가 있지요.
 조사자 2 : 예.
 제보자 1 : 그 소낭밭 틈에 건물을 지어부니깐 거고, 면수동 같은 경우는 모래동 산에, 이렇게 모래를 파내가지고, 안에다 집을 지어버리니깐, 그것도 이제 하나에 균유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도, 금산이라고,
 조사자 2 : 마을 낀 아닌가요?
 제보자 2 : 아, 마을 낀 아니.
 조사자 2 : 마을꺼로 있는 건 엇어마씨? 어촌계결로 잇인 것도 엇어마씨?
 제보자 1 : 없어.
 제보자 2 : 엇우다.
 조사자 2 : 개인 아니면 국가.
 제보자 2 : 나 생각에는 개인도 아닐 꺼우다. 국가 아니면 도지.
 제보자 1 : 개인 사유지에 있을수는 없으니깐. 근데 그 전에는 일뤼당정도는 전부 개인사유지에 있었어요. 우리 하도에는 일뤼당이 여섯 곳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군데만 남아있지만은.
 조사자 2 : 선생님은 연세가 이제?
 제보자 1 : 나 잊어버렸어요.
 조사자 2 : 고순안심방 어르신과 비슷한 연배과? 한 열살 어릿과?
 제보자 2 : 무슨 열살게.
 제보자 1 : 세살.
 조사자 2 : 세살 어릿과? 그럼 68세네요. (중략) 근데 직업이 있으시다고 하지 안 했우과?
 제보자 1 : 누게?
 조사자 2 : 선생님.
 제보자 1 : 아, 휴가예요.
 조사자 2 : 직업이 무슨?
 제보자 1 : 아, 저 청소허레 다녀요.
 제보자 2 : 문화재, 문화재.
 조사자 2 : 지킴잇과? 문화재지킴이?
 제보자 2 : 예.
 제보자 1 : 지킴이는 그전에 했었고,
 제보자 2 : 지금은 문화재 관리허러 땡기잖아. 도 전체.
 조사자 1 :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보자 1 : 예.
 제보자 2 : 아. 그거에 관심이 많으니깐 그걸 허는거지.
 조사자 2 : 선생님 여기서 태어남 여기서 계속 자랐우과?

- 제보자 1 : 오케이.
- 조사자 2 : (중략) 이장님 성함이 김, 승자 선자 쓰시지요.
- 제보자 2 : 예.
- 조사자 2 : 연세가 어떻게
- 제보자 2 : 나 지금 51. 앗, 52이구나. (중략)
- 조사자 2 : 이장님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자라신 거마씨?
- 제보자 1 : (중략)
- 조사자 3 : 공동어장? 마을에 그건 얼마나 오래, 오래됐나요? 공동어장?
- 제보자 2 : 오래됐지.
- 제보자 1 : 뭐?
- 제보자 2 : 산바당, 팔고 사고 허는거.
- 제보자 1 : 오래 됐지.
- 조사자 2 : 그걸 뭐렌 골아마씨? 산바당.
- 제보자 2 : 여기선 산바당이렌 합니다.
- 조사자 2 : 무사 산바당마씨?
- 제보자 2 : 어촌계에서 샀으니깐 산바당.
- 조사자 2 : 어촌계에서 파는 거 아닛과?
- 제보자 2 : 파는게 아니지 임대주는 거지. 임대. 일년 임대.
- 조사자 2 : 산바당. 산바당.
- 제보자 2 : 거니깐, 보통 신동에서 삼니다게. 거기가 신동하고 서물동 사이에 있으니깐. 그 바당이.
- 제보자 1 : 서물동 해녀가 모자라고,
- 제보자 2 : 서물동 해녀는 모자라고 자기네 바다는 넉넉허니깐 그까지 살 필요가 없어. 신동에는 바다도 넓지만은 경해도, 해녀덜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사서 같이 허는거거든. 거난, 그것도 일부 해녀들만 합니다게. 동 전체가 허는게 아니고,
- 조사자 2 : 거든 일부 그 해녀들만 돈 내마씨?
- 제보자 2 : 그렇지. 산 사람만.
- 조사자 2 : 열명이든 열명이 이십만원 냥 이백만원 만들어 그걸 내야 할 수 있는거,
- 제보자 2 : 예.
- 조사자 2 : 아예.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겠구나.
- 제보자 2 : 예.
- 조사자 2 : 들어가든 난리났구다예. 들어가든예?
- 제보자 2 : 난리나.
- 조사자 3 : 그 마을마다 뭐 학교바당 같은게 있잖아요. 공동어장같은 경우. 그런 거는?

제보자 2 : 그런 건 없고.

조사자 3 : 그런 건 없었고, 하도리는 원래부터 산바당으로 해서.

제보자 2 : 일곱 동네가 지선이 다 있습니다. 오래된.

조사자 3 : 지선은?

제보자 2 : 그때는 어촌계가 없어서,

조사자 3 : 어촌계 생기기 전부터,

제보자 2 : 리에서 갈른 겁니다. 리에서. 왜그러냐면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하도가 행정호수가 405가구 아납니까? 저게, 근데 세대수는 919개 되지 않습니까예? 저 405가구 리 행정비를 내고 행정허는 거우다게. 그니깐 지금 조합식으로 돌아가는 거마쎄. 조합입니다. 조합.

조사자 3 : 마을자체가,

제보자 2 : 예. 마을자체가. 그러니깐 동네 사시는 분들도 리에 가입헌 분은 동행정비를 내서 리에 행정에 참여하고, 그러지 안헌 분덜은 리 행정에 참여안하면서, 여기 하도 살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허니깐,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동장님이렌도 허지만은 조합장이라고 합니다. 조합장. 우리 지금 동장 개념도 있고 조합장이라고도 허는데, 조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도는 다 조합장이라고 합니다게. 나이 드신 분덜은 동장이라는 말 안씀니다게. 다 조합장이라고 하지. 동마다 다 장이 잇어 가지고, 행정비를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톳만큼은 어촌계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저거 톳을 공동채취를 해가지고 리행정비로 내고 합니다. 톳을 공동채취해서 리 행정비를 충당합니다.

조사자 2 : 여기 살기만 하고 리 행정비, 톳 채취 안하는 사람은 전혀 관여를 못 하겠네예.

제보자 2 : 당연히 관여 못하지.

조사자 2 : 톳을 같이 채취허면은,

제보자 2 : 우선 조건이동에 가입을 해야, 톳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제보자 1 : 일단동에 가입을 해야,

조사자 1 :동에 가입을, 가입비가 얼마나 되지?

제보자 2 : 그거는 가입비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5년 이상 여기에 살고,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 그게 가입조건입니다.

제보자 1 :동에 가입하고 리에 가입하고.

조사자 2 : 그러면 여기 톳도 같이 채취하고, 여기 일,

제보자 2 : 단지 공동으로 채취허는 건 톳 하나뿐입니다게.

조사자 1 : 행정비를 낸다고 했는데, 행정비를 내요?

제보자 2 : 그 행정비를 톳 채취해서 충당을 합니다.

조사자 2 : 톳 채취. 내 인건비 안 봤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보자 2 : 어, 그래서 행정비 남은 여분은 서로 나눠서 분할해서 갖고.

조사자 1 : 행정비는 얼마나 되는데 마을,

제보자 2 : 우리 마을 많이 적어졌습니다. 원랜 5만원 냈었습니다게. 한 사람 1인당 5만원 냈었는데, 이 앞에 리사무소 임대취가지고, 저게 우리 하도 겁니다게. 이 앞에게. 저기 임대취가지고, 이제는 행정비가 2만원해가지고, 3만원 냅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동행정비도 냅니다. 저 일곱동이 다 나눠졌잖아예. 다 동장한테 연봉도 주고. 동마다 행정비를 받아요. 여기는,

제보자 1 : 동회관도 따로 있고,

제보자 2 : 다 있습니다. 일곱동네가.

제보자 1 : 동 재산이 따로 있고. 아주 특이한 마을이예요.

조사자 2 : 그런데 당은,

조사자 3 : 동에서 당을, 마을에서 아나요?

제보자 1 : 마을에서 전혀 관여 안합니다.

제보자 2 : 전혀 관여 안합니다.

제보자 1 :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제보자 2 : 동민이 다 돈을 내놔서,

조사자 3 : 여씨불도할망당은 먼수동,

제보자 1 : 아, 거기는.

제보자 2 :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예 동 땅이 있어요.

조사자 2 : 여기는 또 알아 몰라면 동장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조합장님을.

조사자 3 : 마을마다 새마을회가 있나요?

제보자 2 : 예. 동마다.

조사자 2 : 동마다 있다는 말이지예?

제보자 2 : 예.

조사자 3 : 리 단위는 아니고 동마다 다 새마을회가.

제보자 2 : 동마다. 그 동회관이 동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조사자 2 : 명의로마써?

제보자 2 : 예. 그니깐 그 동회관을 지을 때, 십시일반으로 다 모금도 하고, 일부 돈도 내놔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다 한겁니다. 그거.

조사자 3 : 동단위 건물들은 다 새마을회가 갖고 있는 거,

제보자 2 : 그 동에서 갖고 있는 거.

조사자 3 : 그 동 새마을회가. 새마을회가 동 자치회 개념인거죠?

제보자 2 :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 한 것처럼 동 가입하는 조건이 다 있는 겁니다. 재산, 동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자 2 : 여기 부자마을이다예.

제보자 2 : 무사 부자? 리하곤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 종달, 하도, 평대가 제일 가난해. 한동은 쏘 있어. 땅도 많고 헌데. 오죽했으면 리 행정비를 받는 데가 어디 잇습니까? 리 행정비를. 아니 진짜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깐. 우리 하도리에도 땅이 요거 요거. 요거하고, 이 이 건물도 우리 건물도 아니고, 이것도 이거 도유지입니다. 도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이.

조사자 2 : 아무것도 있어부난 조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거구나예.

제보자 2 : 조합아니면은 리 행정이 운영이 안되니깐. 다른 데는 행원같은 데는 풍력이니, 저기 뭐 동북 같은 데는 쓰레기매입장 짓고, 풍력이니 엄청나게 돈이 잇어도, 우리 하도, 종달 이런 데는 아예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보자 1 : 거는 리유지가 많으니깐.

제보자 2 : 한동같은 데도, 그 암반수 나오는 그 뭐냐 해양과학단지 옆으로 해가지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한동도 많고 헌데. 여기 쥔 가난한 마을이 하도라.

조사자 1 : 하도는 왜 마을 재산이 이렇게 없습니까?

제보자 2 : 그니깐 그게 없는 걸, 왜 없냐고 하면, (중략) 구좌 서쪽은 도유지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쪽 동쪽은 도유지고 없다니깐 땅이. 뭘 하나 짓젠 해도, 도유지도 별로 없다니깐. 그니깐 체육관 하나 짓기도 힘들어, 여기가. (중략) 우리 철새도래지, 그것도 도에서 다 팔아 먹은거 아녀. 그거. 다 팔아 먹었어.

제보자 1 :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사람덜이야.

제보자 2 : 우리 쌀 먹게 해준다고 그 간척사업해가지고 메꾸라지 시켜가지고, 쌀 한번, 여기 배수구도 다 있어요. 지금도. 흔적이, 그 다 메꾸라지 시켜가지고 다 팔아서 했는데, 벼 한번 재배 못하고 끝냈잖아요. 거기.

조사자 1 : 어디?

제보자 2 : 지금 철새도래지 자체가, 거기 간척 사업한테예요. 거기가, 똑 쌓아가지고 똑 있잖아요. 거기.

조사자 1 : 예.

제보자 1 : 반 이상이 개인땅이야. 물에 잠긴 땅.

조사자 1 : 반 이상이 개인땅이에요?

제보자 1 : 예.

조사자 1 : 누구한테 팔아,

제보자 2 : 통일교.

제보자 1 : 통일교에다가

조사자 1 : 통일교에다가?

제보자 2 : 통일교 반, 이쪽은 누구, 요번에 원지사 올 때도 그거 매입해라. 도에서 팔아 먹었으니깐 매입하라. 지금 현재. 물에 잠겨 있는 땅이 된 필요있냐, 도에서 매입해서 마을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겠금허고 좀 뭐 해야 허는데, 그게 될 것 같지가 안해.

조사자 1 : 그게 원래 마을 땅이구만.

제보자 2 : 원래 마을 땅인데 팔아 먹어가지고,

제보자 1 : 원래 바다였지. 바다.

제보자 2 : 바다, 바다.

조사자 1 : 원래 바다는 그 전에 법에 따라, 바다는 매립하면은 매립한 사람 땅이고, 마을 주민들이 했으면 마을 땅이지.

제보자 1 : 하천공사에서 매립했으니깐 거기서 팔아 먹은거지.

조사자 1 : 실제로 일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일 한거 아니야?

제보자 2 : 거니깐 결론은 쓸밥 먹게 해주켄 행, 간척사업 행 다 팔아 먹은거지.

조사자 2 : 그게 몇 년도 정도 돼마씨?

제보자 1 : 그게 57년도. 저게 매각이 이루어진 게 85년. 85년에 이루어졌을꺼라. 저 어디고 종달리 논 만들엉 기공식 현재 69년이거든, 종달리 논이, 그 전에는 소금밭이였고,

제보자 2 : 저거 파리니 뭐니 엄청나게, 철새도래지렌 해도 저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라. 재앙. 원래 두문포가 종달리 두문포가 섬이야. 섬.

조사자 3 : 원래 철새가 오던 곳이에요?

제보자 2 : 원래 바다였다니깐 철새가 오던 곳이 아니고. 바다에 왜 철새가 와요.

조사자 3 : 간척해 놓고 나서 철새가 오는 거예요?

제보자 2 : 그렇죠. 그니깐 그 주위가 전부 용천수입니다. 용천수.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요.

제보자 1 : 8군데에서 용천수가 나는데, (중략)

조사자 1 : 이장님은 선거로 뽑습니까? 여기서도?

제보자 2 : 예. 다 선거로 뽑죠.

조사자 1 : 동장도 선거로?

제보자 2 : 동장도 선거로 뽑읍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중략)

녹음파일 004

제보자 1 : 특이하게 우리마을에 동네마다 일뤼당이 있었거든요.

조사자 2 : 동 일곱개 다마씨?

제보자 1 : 예. 특이하지 않아요? 신동만 빼고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여섯개 동네 다.

조사자 2 : 아, 그럼 지금은 없어진거구나예.

제보자 1 : 그건 뭐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사자 2 : 일렛당 지금 하나 남은 것과?

제보자 1 :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저 동동 바닷가에 있는데,

조사자 2 : 각시당도 일렛당 아녜와?

제보자 1 : 아니에요. 각시당은 일렛당이 아니고 해신당이에요.

조사자 2 : 각시당은 또 해신당잇과?

제보자 1 : 예. 갯용녀부인을 모신다고 하거든요. 저기 저 영등굿 할 때는요. 전날 저녁이 할망당에서 굿을 시작해가지고,

조사자 2 : 어느 할망당, 여기 면수동 할망당마씨?

제보자 1 : 아니,

조사자 2 : 여기 하도리 본향마씨?

제보자 1 : 예. 저녁에 굿을 시작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여기 부부당신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은 메를 세 그릇을 떠놔요. 그 갯용녀부인하고 여래불도할망, 도고로집사 하고 셋이, 세 신위를 모셔놓고 그 영등굿을 합니다. 유일하게 여기는, 포제도 일곱 동네에서 다 따로 지냈던 마을이에요. 여기는,

조사자 3 : 지금은?

제보자 1 : 지금 아, 다 없어졌는데,

조사자 2 : 포제를 안해마씨?

제보자 1 : 예. 여기도 셋동네 포젯동산이에요. 여기가. 이 속에 제단 남아 있어요. 셋동네에서는 여기 와서 포제를 지냈어요. 옛날에. 동네마다 포제를 따로 지낸 마을이에요. 이상하죠?

조사자 2 : 음. 근데 지금은 안해예?

제보자 1 : 지금은 안해. 십년, 십오년, 십년 조금 더 됐을 꺼예요. 포제를 그만둔지가. 굴동마을 한 곳에서만 했었어요. 여기가 비석거리, 지금은 비석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41개 있었어요.

조사자 2 : 요로 들어가면 될 철이구나예. 여기도 건물 지어져 있잖아예? (중략)

녹음파일 005 내용없음.(3초)

녹음파일 006 (하도리 본향당)

제보자 1 : 건물은 여기 사름덜이 신경을 안쓰거든,

조사자 2 : 하도리 삼신불도할망당. 본향. 여기가 본향이잖아예. 면수동도 본향이렌 허고 여기도 본향이렌 험니까?

제보자 1 : 예. 둘 다 본향이에요. 둘 다.

조사자 2 : 둘 다 본향.

제보자 1 : 옛날에 불 나가지고 새로 지은거예요.

조사자 2 : 불 나서 새로 지었마씨? 전기 안들어 와났인디, 넣텐 행게만은

제보자 1 : 아직은 전기 안 들어와.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 가로등은 한 오년전에,
해달라 해가지고 마을에서 해준거예요. (중략)

녹음파일 006 (남당)

조사자 2 : 선생님, 지금 생각에도 당이 마을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보자 1 :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를 안하니깐, 구심점 역할을 못하지요.

조사자 2 : 예전에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예.

제보자 1 : 아,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 해녀들이 삶이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러
니깐 모든 걸 당에 의지하고 산거죠. 삶이 힘드니깐. (중략) 이제는 신
년과세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옛날에 집집마다, 집집마다
갔어요. 집집마다.

조사자 2 : 집집마다마씨?

제보자 1 : 예. 어느 집 빠질 것 없이. 제물해가지고, 아침 새벽이 동 트기 전에
왜냐, 뭐하면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사람 만나면 부정탄다고,

조사자 2 : 여기 옆에가 각시당잇과?

제보자 1 : 아니.

조사자 2 : 여기가 각시당마씨? 남당?

제보자 1 : 지금 남당 가는데. 여기가 용천수예요. 옛날에 우리 하도 사람들 50프
로가 여기서,

조사자 2 : 지금은 안 가마씨?

조사자 1 : 말라버렸네.

제보자 1 : 지금은 물이 안나요. 밀물 때는 물이 솟아나요. 수압으로 인해가지고,

조사자 3 : 이게 환해장성?

제보자 1 : 아니죠. 별방진. 여기 남당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칠머리보존
회에서 왔을 때 내가 안내를 해줬는데, 여기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조사자 3 : 남당.

조사자 2 : 여기는 이제는 제는 안 지내는 거지예?

제보자 1 : 99년도 이후는 안 지냅니다.

조사자 2 : 99년도 이후마씨?

제보자 1 : 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깐, 작년에
한 번 나무 다 치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지저분 해가지고 했는데,

조사자 2 : 여기구나예? 여기,

제보자 1 : 아주 조그만하죠. (중략. 바람소리에 불청)

조사자 2 : 주소가, 개인인데 제주도가 걸어 놓고 있어요.

조사자 3 : 개인인데 별방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별방진이 문화재니깐, 문화재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 주변은 개발을 못하게,

제보자 1 : 예. 아무것도 못하게.

조사자 2 : 이렇게 돌담으로 되어 있었던 거다예. 많이덜 왔어줬다예.

제보자 1 : 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지. 여기 포구가요. 갯포구, 한계포구라고 큰 포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매립해가지고 해안도로 나고 했는데, 옛날 기록에도 한계라고 나와요. 아, 이 별방진이 아랫부분은 옛날꺼고 윗에 부분은 보수했는데, 복원이 아니고 이걸 보수죠. 저 서쪽부분은 상당 부분 원형이 남아 있었요.

조사자 2 : 예. 명월.

제보자 1 : 거기는 손을 못 대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 상태로 보존을 하자. 이쪽만 보수를 했는데, 이 보수도 확실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중략)

녹음파일 008 (각시당 영등굿)

제보자 1 : 당신을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조사자 2 : 본향당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영등굿.

제보자 1 : 여래불도할망과 도고로도집사를 2월12일 저녁에 저, 본향당에서 당굿을 시작해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모시고 오다가, 저 동네 네거리가 있어요. 네거리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한번 한 다음에, 여기로 와요.

조사자 2 : 지금도 그렇게 해마씨?

제보자 1 : 지금은 안하는 것 같아요. 배 하는 사람은 다시 한 그릇을 더 올린답니다. 메 그릇을,

조사자 2 : 각자 자기만씩 하니깐,

제보자 1 : 자기만씩 하니깐, 이젠 배 하는 사람도 없어졌으니깐 메는 세 그릇만 올립니다만,

조사자 2 : 해녀들이 주로 많이,

제보자 1 : 예. 해녀들만 합니다. 이젠 어업에 종사하는 남자덜이 없으니깐, 전부 다 해녀덜인데, 해녀 수도 줄어 들고, 요즘 해녀들이 옛날 사람들 생 각같지 않게해가지고 찾지를 안하죠.

조사자 2 : 이거 복원한지가 한 칠 팔년이 된 거마씨?

제보자 1 : 예. 잘못 만들었어. 그대로 보존을 했어야 하는데, 덧 된 것도 바다를 보면서 굿을 해야지.

조사자 2 : 너무 높게 했구나. 영등굿은 바다를 보명 해야죠. (중략)

녹음파일 009

조사자 2 : 해녀콩이 뭐마씨? 해녀콩?

제보자 1 : 해녀콩. 거 제주도에 몇 군데 안나요. 해녀콩. 우리 문주란 자생지에 쫘 나고, 많이 나고, 행원에 거기에 쫘 많이 나요. 어, 차귀도엔가 있을 꺼예요. 그 옛날 칙닝클처럼 뽀은 다년생 녁클인데, 이파리가 칙닝클 같애요. 꽃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상당히 진녹색이에요. 색이, 그리고 이 콩이 상당히 독성이 강해가지고, 옛날에 원치 았은 임신을 했을 때, 해녀들이 그 콩을 먹고, 았을 지웠데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임신부가 죽을 수 있었고, 너무, 잘못 먹으면 애가 태어나도, 지적 장애로 태어나고, 그래서 아주 슬픈 전설같은 이야기.

녹음파일 010 (석다원 부녀회장)

조사자 2 : 동에서 동,

제보자 3 : 동에서, 우리 신동에서는 여기 각시당에서 우리가 합니다.

조사자 2 : 다른 동에서는 안하고,

제보자 3 : 다른 동에서 와도예. 우리가 밥하고 준비는 다 합니다.

조사자 2 : 동에서 사람들 돈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제보자 3 :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부녀회 돈으로

조사자 2 : 부녀회 돈으로?

제보자 3 : 예.

조사자 2 : 부주 따로 따로 하고,

제보자 3 : 예. 거난예. 밥행 가가지고 맹세 올리는 거는, 따로 따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동에서 부인회에서 하고, 액맥이 하고 닭 사고 이런 거 떡 사고, 올리는 건 전부 다 부인회에서, 부인회 회장이 그걸 총책 매가지고 찰리는 거.

조사자 2 : 일년에 한 번만에, 여기 지금도 본향에서 모성 와그네, 영등을.

제보자 3 : 예, 예.

조사자 2 : 지금도 해마씨?

제보자 3 : 예, 예.

조사자 2 : 그 새벽, 밤에,

제보자 3 : 예, 예. 여긴 열사흘날이니깐 열이틀날 그디서 해영, 여기 열사흘날은 영등굿,

조사자 2 : 13일날이구나예.

제보자 3 : 예. 아, 열이틀날, 열이틀날,

제보자 1 : 아니, 거기는 열이틀이고, 여긴 열사흘.

조사자 2 : 다른 동에서, 다같이 하다가 아님 원래 신동에서만,

제보자 1 : 옛날에는 다같이 하다가, 하도 전체가, 멘수동만 빼놓고,
제보자 3 : 다같이 하는데예. 멘수동만 빼놓고 하는데예. 그 전체가 오는 사람은
웁니다. 겐디 총계적으로 하는 데는 신동만, 왜냐면 그 동네에서, 오
는, 그 아까, 멍세 올리는 거하고 그 자기덜 정성허는 거는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데 각시당에 하는 거는 우리 동네만, 전체 올리는 건 문어
같은 거 삶앙 올리고, 군수, 소라 같은 건 전부 부인회에서, 닭 같은
거, 떡 같은 거, 멍세도 얼마 올리고,
조사자 2 : 각 동에서 얼마씩 따로 올리는 건 정해진 건 없고마씨?
제보자 3 : 예.
조사자 2 : 그렇게 한지 쯤 오래 뻘우과?
제보자 3 : 예. 쯤 오래됐어. 옛날에 경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조사자 2 : 부녀회장님 기억에 언제쯤부터 경 행마씨?
제보자 3 : 언제됐지? 나 온 후제도, 이거 뻘 년 뻘이, 근디 나 부산서 살다가 와
보니깐에. 저걸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데예. 아까 말한데로 하는데예. 이제 체렁오는 거는 멍세ㄴ쁜 거는 자
기가 각자, 올리는 건 각자고,
제보자 1 : 옛날에는 마을에서 책임을 졌지. 마을 저, 이장덜이 참가해가지고, 전
부다 그 먼저, 이, 뭐냐, 이장덜이 다 앞장서서 다 했어요. 그때는 한
5일씩 굶을 했으니깐,
제보자 3 : 각 동네에서 그거 무시 것도 해놔지. 포제ㄴ쁜 거. 그때는 경 했던 모
양입니다. 이제는 경을 안해여, 포제같은 건 굴동네에서만 하다가, 이
젠 안하고, 난 포제힐 때는 신동네 포제힐 때는 안봤어예. 나 온 후로
는 안해봤어.
제보자 1 : 신동에 포제 설러분 건 오래됐지.
제보자 3 : 나 여기 들어온 지가 삼십 몇 년 뻘우다. 부산서 왔는데, 경해도 그때
당시도 경 했우다. 다른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은 각자 멍세 올리고,
제보자 1 : 각자 자기 제물은 자기가 해 가니깐 정성으로,
조사자 2 : 여기 부녀회에서 신과세제는 안해마씨? 하도본향당 신과세제도 해마
씨? 영등굿 말앙, 1월에, 정월,
제보자 3 : 열이틀날.
조사자 2 : 예. 그때도 부녀회에서 해마씨?
제보자 3 : 아니, 거긴 각자.
제보자 1 : 각자 따로 따로,
조사자 2 : 심방한테 딱 얼마 드리는게 아니고, 그 멍세 드리는 만큼씩만,
제보자 3 : 아니, 자기 이제 성의껏.
조사자 2 : 그러니깐 성의껏. 멘수동꺼는 아예 모르겠다예?

제보자 3 : 멘수동은 나 잘몰라.
조사자 2 : 여기 하도리에서는 먼수동은 잘 오가지 않는 것 다탐다예?
제보자 3 : 예. 여긴 멘수동은 안와. 거긴 당이 따로 잇우게.
제보자 1 : 따로 있어.
조사자 2 : 거기도 따로 영등곳?
제보자 1 : 따로 허는 거.
제보자 3 : 따로 허는 거. 게고예. 여기 서문동네나 7개부락에 서문동네도 보른예.
자기네대로 호고, 심방 들앙.
제보자 1 : 그건 영등맞이 곳을, 아니 거 뭐냐, 요왕제 지내는 거, 요왕제.
제보자 3 : 자기네 동네만 요왕제 지내는 거. 심방 데령 가그네 그냐,
제보자 1 : 영등맞이 곳이 아니고, 요왕제.
제보자 3 : 요왕제를 지내는 거.
조사자 2 : 2월에마씨?
제보자 3 : 예. 영등맞이할 때. 굴동네도 자기마다 지 쌍 가그네 호고, 동동네도
경 헌데, 신동네만큼은 본당에 와그네, 이제, 그때 뒤편은 높은 기관덜
토 읍니다게. 경 해.
조사자 2 : 감사합니다.

녹음파일 011

제보자 1 : 여기는 옮겨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걸 원래 바닷가에 있었어요.
동동네.
조사자 3 : 옮겨온 건가요?
제보자 1 : 동동 바닷가 어디냐면, 저, 지금 어촌계 펜션 옆에, 그 옆에 있었는데,
그 밭 임제가 쯤 옮겨주시요해서, 옮겼.
조사자 2 : 그럼 누가 옮겨요? 이장님이, 마을에서 옮겨요?
제보자 1 : 그거 아마 심방이 알아서 했을꺼예요. 그 당시에,
조사자 2 : 여긴 어느 심방이 하시는데요?
제보자 1 : 고복자심방, 고순안.
조사자 2 : 고순안심방예?
제보자 1 : 이걸 관리도 안해요. 보른. 나 얼마전에 와보니깐 풀도 안베고, 나 이
렇게 잘 돌아다녀요. 근데 이 길은 상당히 정리가 됐네. 아, 지금은 깔
끔하게 정리가 되었네. 한동안은 정리가 안되었던데.
조사자 2 : 풀 다 싹 했네요.
제보자 1 :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 아, 지난번에 왔을 때는 험악하던데,
조사자 1 : 이걸 옮겼다고요?
제보자 1 : 예. 밭 임제가 제발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돌담 쌓고해가지고,

조사자 2 : 옮긴지가 얼마나 됐마씨?
 제보자 1 :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조사자 1 :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조사자 2 : 한 20년? 10년?
 제보자 1 : 한 10년정도.
 조사자 2 : 한 그정도에?
 제보자 1 : 예.
 조사자 3 : 이 이름이?
 조사자 2 : 일렛당.
 조사자 3 : 이름이 일렛당. 예전에 멸실된 것이,
 조사자 2 : 찾아봐야,
 제보자 1 : 여섯동네에 있었어요. 나도 번지는 다 적어놨는데, 여섯 곳에,
 조사자 3 : 여기 번지도 아세요?
 제보자 1 : 여긴 72번지일꺼예요. 산 72.
 조사자 3 : 하도리 산 72?
 제보자 1 : 예. 하도리 산 72.
 조사자 2 : 정말 다 아시는구나.
 제보자 1 : (중략) 여기 길은 원래 없는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니면서, 지적도
 상으로는 없는거예요.
 조사자 3 : 나오는데요. 지도에서는.
 제보자 1 : 아니, 이건 가로지르는 길이 없잖아, 올라오는 길은 있고,
 조사자 3 : 예,
 조사자 2 : 여기는 원래 어느 동 일렛당마씨?
 제보자 1 : 여기는 원래라 허는 것이 이거는 동동 일렛당이 여기로 온 거예요.
 조사자 2 : 아, 동동 일렛당.
 제보자 1 : 여기가 동동 지경이거든 혼절이라고,
 조사자 2 : 여기 지경이름이 뭐마씨?
 제보자 1 : 혼절이. 요 앞에 하얀 절이 있었다고해서 흰절이, 흰절이라고 했어요.
 조사자 2 : 흰절이.
 제보자 1 : 옛날 기록에 보면요. 제주 동쪽 80리에 돈수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해요. 돈수암터가 있었다. 예? 옛날 기록에 보면, 80리, 제주목 80리라
 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하도리에 돈수암이 있었
 다. 여기 기록에 나와요. 여기에 흰절이 있었다고 하고 옛날 밭 임자
 가 여기서 옛날 기와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하얀 절이 있었다고 흰
 절, 흰절이 있었다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혼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 조사자 3 : 여기는 지금 오시는 분은 안계신건가요?
- 제보자 1 : 따로 찾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애.
- 조사자 3 : 폐당이라고 봐야겠네요.
- 제보자 1 : 예.
- 조사자 2 : 여기 천이 이게, 새것이라부난, 누가 찾아온 것 같은,
- 제보자 1 : 심방이 오기는 해, 여기에,
- 조사자 2 : 천이 새끼라부난, 누군가는 오는 것 같은 게마씨.
- 조사자 3 : 그러네요.
- 조사자 2 : 이 물색이 엇엇이믄예, 새것 엇엇이믄 안완구나 헐 건디, 이거 올해 왔다 간 건게마씨.
- 제보자 1 : 깨끗이 정리한 거 보니깐, 여기가 이 안에 풀이 엄청 자랐었어. 봄에,
- 조사자 3 : 이 정도면 금방이거든요. 한 두달이거든요.
- 제보자 1 : 아니 이 정도는 15일정도, 15일 전에 왔었다는 거야.
- 조사자 2 : 이거 마블립 때 한번 정리 행 간 것 답수다.
- 조사자 3 : 동동 일뤼당. 하도리도 몇 개 있더라고요. 멸실된 게. 90년대에 조사한 것 중에 일로 넘어왔는데 그걸 못 찾아 갖고, 20년 전이면 그럴 수 있겠네. 그때 있었었는데 2008년에는 안 나왔거든요.
- 제보자 1 : 지금 저, 창원동 가보면, 저 명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바로, 그 명법사 북쪽에 그 창원동일뤼당이 있었어. 지금은 흔적도 없고, 거기는 옛날에 경주김씨하고 부씨 집안 사람들이 주로 찾았던 당이고, 일뤼당이, 동동네는 그 바닷가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왔고, 섯동네는 그 학교 두에 망동산 두에 있었고, 서문동네는 전경초소 있는데 있었고, 면수동은 저 상도, 상도리 경계 근방에 있었다가, 지금 바닷쪽에서 했다가 지금 세멘으로 바닷가에 있어. 찬물통코지라는 곳에. 조금만하게 만들어진 곳이, 유일하게 지금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 조사자 2 : 일뤼당이.
- 제보자 1 : 일뤼당이. 멘수동 바닷가에 이렇게 세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 조사자 2 : 여기에 얹힌 이야기는?
- 제보자 1 : 아, 이제야 옮겨왔는데, 이 나무도 보세요.
- 조사자 2 : 여기 하도 동동 일뤼당 유래나 뭐 그런,
- 제보자 1 : 그런 건 없어요.
- 조사자 2 : 엇우과?
- 제보자 1 : 예. 어린아이들 치병신이고, 아이들 아플 때 거의 찾아와가지고,
- 조사자 2 : 거의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다니잖아예?
- 제보자 1 :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이런 당은 다 있었어요. 이제 녀 드리는 할망이 다 있었고, 그러니깐 그런 사람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동네 일뤼당은

책임을 졌거든요.

조사자 2 : 강 비넘도 해주고,

제보자 1 : 예. 이제는 작은 심방덜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도에는
고순안씨 그 어른만 있기 때문에, 그 어른이 여기까지도 뭘 합니다.

조사자 2 : 근데 어르신 생각에 이런 당이 잊어지든 또 안 댈 꺼 아닛과?

제보자 1 : 아, 이진, 나는 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냐하면 나는 찾지를 않지만은, 우리 저 옛날 제주도민덜이 상당히 꺾박을
받고 살았어요. 몽고 백년, 일제 36년, 그 외에도 그 관청에 있는 그 관리
들로부터 착취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당한 게, 그러
니깐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로 도망가지 못하게 출륙금지령까지 내
렸잖아요. 1663년엔가? 200년동안 육지로 못나가게 막았잖아요. 워낙 남자
들이 도망가버리깐, 그러다보니깐 당이 많은 거예요. 기뎔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제주사람들이, 그리고 해녀가 많은 지역이고 하다보니깐,

조사자 2 : 많이 위험한 일이고예. 해녀일이예. 병원도 없고,

제보자 1 : 옛날에 전복은 다 남자들이 땀다고 안그래요. 남자가 다 전복을 땀다
고 바다에 큰 돌을 건어야 전복이 나왔다고 하니깐, (중략)

조사자 2 : 하도리에도 문화지킴이가 잇우과?

제보자 1 : 잇우다. 이젠 일과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각 읍면에 한사람씩 해가지고 지킴이 활동
을 시켰어요. 이제 등록된 지정문화재단, 것도 관리를 했었는데, 문화
재단에서 가만히 보니깐, 이 관리인들을 읍사무소에서 청소도 시키고
동원시키고 하니깐, 왜 우리가 돈을 주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인력을
마음대로 갖다 쓰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겠노라고 전부다 그 문
화재단이 가져갔어요. 인력을 가져가면서 이걸 자기네가 관리를 못하
니깐 세계자연유산 본부에 주니깐,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도 이걸 못
하거든, 관리를, 그러니깐 문화예술재단에서 넘기니깐, 그러니깐 문화
예술재단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도를 돌아요. 우리가, 이제
는 것도 지정문화재단, 날마다 우리가 전도를 다닙니다.

조사자 1 :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거예요?

제보자 1 : 지금 6명이 하고 있어요.

조사자 2 : 전도를 하는데 6명만요?

제보자 1 : 예. 6명이 모자랍니다. 내년에 충당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 안되니깐, 인력 확충이 안되고 있어요. 풀도 베고, 조금만한 보수도 하
고, 청소도 하고 돌아도 보고, 실지로 일하는 인원은 4명이고, 두 사람은 이
돌아보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날마다 돌아보면 관찰도 하고 촬영도
하고 어떻게 이 전부 다 하는 거니깐, (중략, 바람소리때문에 불청) 1 : 1

녹음파일 번호 : 송당리

조사일시 : 2017년 8월 21일

조사장소 : 송당리사무소

제 보 자 : 홍용기(1)(58년생, 남, 송당리장), 임선옥(2)(60년생, 여, 부녀회장)

조 사 자 : 송정희(1), 이재섭(2)

조사자(2) : 저희가 제주시권 전체적으로 당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 아, 관리되는지.

조사자 : 송당에 당이 몇 개마씨?

제보자 : 지금 애용허는 당은 3개정도고.

조사자 : 여기 송당본향당. 그 다음?

제보자 : 그 다음에 소로소천국당허고 사라흘당. 사라흘이렌 허나? 을. 그런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을건디. 그런 건.

조사자(2) : 이게 가장 최근 자료가 2008년 자료라서요. 그 이후에 없어지거나 한 게 많드라고요.

제보자 : 그 당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잊어져버리고, 지금 여기도 우리 본향당말고는 그 소로소천국당이나 사라흘당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 가진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디, 관리가 실제로 안돼거든 마썸예.

조사자 : 여기는 관리가 안되고, 그럼 여기 본향당은 누가 관리해마씨?

제보자 : 본향당 관리주체는 저, 우리 보존회에서 관리를 허는데, 모든 지원이나 관리는 문화예술재단, 아니 세계자연유산본부? 문화예술? 그 뭐렌 허나? 뭐냐 사무장? 세계자연유산본부. 거기서가 체계적으로 관리허는 그런 부분이주마씨.

조사자 : 무사 이게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제보자 : 당곳이 제주도 무형문화재 5호로 돼어 있거든마씨양. 그래서 문화재 관련해서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돼어 있고, 그래서 리에서 보존회에서 관리를 허긴 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조사자 : 여기 보존회는 이름이 뭐마씨?

제보자 : 송당본향당보존회.

조사자 : 보존회 회장님은 누구짜?

제보자 : 지금 이장이 보존회장으로 돼어 있고. 그 외에 신도회가 있고,

조사자 : 여기 본향당에서 여기 당오름 밑에 당 말씀허시는 거잖아예? 여기 소로소천국당하고 사라흘당은 어딴과?

제보자 : 사라흘당은 체오름에 있고,

조사자 : 체오름에 있는 사라흘당은 잊어지지 안헛우과?

제보자 : 있기 있는데, 거의 관리가 안됐다 이말이지. 이번에 우리가 9월2, 3일 마

불림제 복원하면서, 소로소천국당 진입로도 사람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 풀 베기 작업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형은 있거든마씨예. 원형을 다시 한번 구경 시켜드릴라고 지금 정비하는체 했우다.

조사자(2) : 체오름에 일렛당과 산신당 2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자(1) : 사라흘당이든 산신당 아닐 건가?

제보자(2) : 산신당이 아니고예. 거기는 먹쉬허는 사람덜예. 사냥허는 사름덜, 이제는 총도 엇고 해부난, 그 덜 가난디, 옛날에는 사냥을 많이 행 먹고 살아부난예. 사냥허는 사름덜 주로 많이 가고예.

조사자 : 여기 심방은 이승순 어르신 햄수과?

제보자 : 심방은 이승순 어른이 아니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보자(2) : 이승순 어른.

제보자 : 맞나? 맞아?

제보자(2) : 예. 그 정태진 심방 부인. 거기가 이승순일 꺼우다. 사람 이름이.

조사자 : 여기가 원래 남자 심방이 해야 되는 당이잖아예. 이승순 심방은 여자라 부난 남자 빌영 읍니까?

제보자 : 예.

조사자 : 그 심방 누군지 알아마씨?

제보자 : 그건 문화예술재단에 물어보민 잘 아난디,

제보자(2) : 정확하게 그 남편분이 허당 남편분이 돌아가셔부난, 지금 임시로 그분이 다른 분 모성 와부난 확실허게 혼 번만 해부난 아직 모르크다.

조사자 : 아, 아직 결정이 안났구나예.

제보자(2) : 예.

조사자 : 여기 제일이 언젯과?

제보자 : 정월 열사흘, 이월, 7월, 10월.

제보자(2) : 무조건 할망당이라부난 열사흘날에.

조사자 : 당본풀이야 원낙 유명해부난예. 백주또.

제보자(2) : 예. 맞수다.

조사자 : 여기는 사람 많이 참여하잖아예?

제보자 : 정월에 많이 와. 7월 열사흘날.

조사자 : 원래 마불림도 해나신디,

제보자(2) :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조사자 : 건디 무사 복원헌텐,

제보자 : 아, 그때는 마불림제라는 게, 전에는 크게 헛텐 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신도들은 안 오고, 거의 심방만 와서, 심방만 와서 허는 정도로,

조사자 : 이제는 크게 허신다고 마불림제를.

제보자 : 예.

조사자 : 이장님은 참여 많이 해봤우과? 한 번 가봤우과? 두 번?

제보자 : 한 번. 보기는 옛날 청년회장 할 때 봐신디,

제보자(2) : 이장님은 거기 신도가 아니여서, 잘 안가시주마씨게.

제보자 : 신도가 아니여서

조사자 : 갹 해도 일로 절로 일이 잇으면 가는 거 아넛과? 거기는? 아니 빌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사차 그렇게도 안 가봐 마씨?

제보자(2) : 신도들 아닌 이상 보통 잘 안갑니다.

제보자 : 옛날에 체육대회허젠 허난, 날 좋게 해줍센 빌레 가났우다. (웃음)

제보자(2) : 신도들도 정월이나 많이 가지, 그 다음은 가는 사람만 가지. 정월에 못 간 사름은 이월에 가고 나머지 칠월이나 시월은 가는 사람이 막 하진 안허마씨.

조사자 : 일월을 크게 해부난예.

제보자(2) : 예. 모든 신과세니깐, 일년동안 운수도 보고 그날 강 다 액 막고.

조사자 : 굿 비용은 어떻 만들어마씨?

제보자 : 뭐 마씨?

조사자 : 굿 비용?

제보자 :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삼백만원 줘신가? 이백만원 줘신가?

제보자(2) : 이백만원.

조사자 : 해마다마씨?

제보자 : 예. 그걸로 모자레예.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우다.

조사자 : 리에서 비용을 된다고 봐야겠다예.

제보자 : 심방 돈 줘불고 허문예. 얼마 안웨니깐예.

조사자(2) : 오시는 분들이 부조금?

제보자 : 가끔 내는 분들 잇우다. 잇긴 잇는데 많지는 않는데. 쏙 발전기금으로 영 내놓는 사람도 잇기는 잇는데.

조사자 : 부수도 많이 하고예?

제보자 : 많이는 안해마씨.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양.

조사자 : 여기 가게들 돌아다니면 다 강제로 냅센 험서게.

제보자 :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디,

제보자(2) : 이넛 정성허명 해사주. 가게 강 내렌?

조사자 : 요즘 세상이난 가능헌 거라마씨. 외지인들한테 만원씩 내렌.

제보자(2) : 갹 안해도 외지인들한테 잘 안웨그네 욱 듣는디, 그것ㄱ지 내노렌 허민 됩니까?

제보자 : 그 인정거는 거는, 만원씩 내는 거는 그건 심방 찍시고,

제보자(2) : 다 거기 강 허는 건 심방이 전부 다 가정갑니다. 그 심방 멧 십만원 일당 받아그네, 5명이 와그네 그걸 허젠 험니까게. 갹 허난, 그날 액막고, 액막는 것도 삼만원, 운수 보는 것도 만원씩 우리가 다 올리면은,

그날 꺼는 심방이 전부 다 가져가봅니다게. 우리는 오는 사람덜한테
헛끔 발전기금 내놓센 행, 이장님도 말해주만은, 그 이백만원, 삼백만
원 헤그네 그 국시행 맥이고 다 그 돈으로 행 맥염수게. 부족해마씨.
그즈록 우리 동네에서 다 행, 거허곡 신도들한테 따로 또 내렌 못헛마
씨. 그 다 경 내고 허는디,

조사자 : 개별로 올려부난예.

제보자(2) : 예. 마을이 가정가는게 아니고, 심방이,

조사자(2) : 신도는 어느정도?

제보자 : 많이 줄었우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60명.

제보자(2) : 글고 또 젊은 사람덜은 안가마씨게.

제보자 : 요즘은 신도보다 거기 한쪽에서 공부허는 사람, 방송사 이런 사람이 더
많아. 신도들 중에 켈 어린 사람이 누게?

제보자(2) : 켈 어린 사람? 그 영남이네 각시가, 그 어명이 허니깐.

제보자 : 남수각시허고,

제보자(2) : 남수각시, 마흔 다섯 밑으로는 안갑니다. 안가.

조사자 : 여기 송당본향당은 소유가 마을회드라예. 송당마을회.

제보자 : 예.

조사자 : 송당새마을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 마씨?

제보자 : 마을회? 새마을회마씨? 새마을회는 송당 설촌이래로 새마을자 쓴 이래로
만들어진 거니깐,

조사자 : 70년대 쯤?

제보자 : 예. 70년대 쯤.

제보자(2) : 새마을회는 박정희 때.

제보자 : 원래 송당리라 마썸. 송당리 자체를 송당리하다가, 이걸 문서화 할 때,
아마도 그때가 새마을회가 한창일 때 모양이지. 모든 마을이 대부분 그
래마씨. 어느 무슨무슨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별도의 단체가 있는게 아
니고 송당리를 말하는 거라마씨.

조사자 : 여기 송당새마을회 회장님은 이장님이 하시는 거마씨? 항상.

제보자 : 예. 대표자는.

조사자 : 그러면 이장님 바뀌실 때마다 바뀌겠다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 송당리 새마을회가 갖고 있는 재산 이렇게 많아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이 송당새마을회에서 본향당을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보자 : 아니. 우리가, 관리를 허는 셈이주마씨.

조사자 : 그러면 송당리와 새마을회를 같이 보면 되겠다예.

- 제보자 : 같은 조직으로 봐야 돼마씨. 송당리나 송당새마을회가 같은 거라.
- 조사자 : 이거 송당새마을회가 이전, 등기등본 보니까 제주도에서 뭘 걸어놨더라
예? 그건 문화재 때문잇과?
- 제보자 : 뭘 걸어놔마씨?
- 조사자(2)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되어 있던데요.
- 조사자 : 제주도가 리에다가 청구했는데요. 그건? 등기등본에 보니까 제주도가 신타해지 댜면서 그걸 청구를 해놨더라고요.
- 제보자 : 모르겠어요. 혼 번 확인해봐야겠네.
- 조사자 : 등기등본 보니까 다른 데와 다르게,
- 제보자 : 당오름만?
- 조사자 : 분향당. 당오름은 제주도꺼고.
- 제보자 : 아 게른예. 당오름은 제주도꺼가 아니고 송당새마을회꺼지.
- 조사자 : 제주도꺼런 댜거 답은디,
- 제보자 : 그게 어떻 댜거나허믄, 한 30년 전에 저게 다 도유지로 있다가 옛날에 리 소유였던 걸 다 환원해 줘나마씨예. 제주도 전체적으로, 송당도 그 전에는 그땐 군소유였지. 북제주군 소유였지. 북제주군 소유였다가 그게 특별법에 의해선가 댜에서 그게 다 환원을 해 줬어. 그때 소유권이 바뀐 거든마씨. 그때 당시에 요망진 사름덜은 하영 츠지했고 요망지지 못헌 사름은 댜 많이 츠지 못헌 그런 부분도 있주마씨. 게난 우리가 그걸 옛날에 관리를 했다던가 옛날에 소유했다는 걸 약간만 인정이 댜 부분은 리에 다 환원을 해줬거든마씨. 소유권을 우리도 지금 면적으로는 70만평 이 리소유가 되거든. 경 해가지고 당오름도 마찬가지로. 경 행 이제 리 소유로 댜어 있고, 분향당인 경우는 송당에 자꾸 말이, 전 이장 말을 들어보면은 문화재청에서 자꾸 시비를 거니깐, 관리를 허는디 거기 나무 하나도 건들지 못허게 허고, 댜 아무것도 못해마씨. 거민 이거 찢라서 가져가서 느네가 해라. 다 모든 거를 우린 손 댜텐니깐, 경 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거든마씨.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등기부 확인해봐야큰게.
- 조사자 : 신타해지되면서예.
- 조사자(2) : 대위자해서 제주도가,
- 조사자 : 그런 문제가 있는거구나예. 관리를, 문화재가 되면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게 되면서, 리에서는 아무것도 못허는,
- 제보자 : 예. 손을 못댜. 단지 청소허고 풀 베는 것뵈기 못해마씨. 거 나무 하나도 못 잘라. 우리는 가서.
- 조사자 : 거기 건물 지은 것도 문화재청에서 지은 것과?
- 제보자 : 문화재청에서.
- 조사자 : 그렇게 두렁청허게예.

제보자 : 거니깐 그 옆에 동신절내 그 하천이거든마씨예. 하천도 지금 문화재로
걸려서 공사를 못허는 거라마씨.

제보자(2) : 뭘 못 허게 험수게. 깨끗허게 허젠 해도. 거기 허가 없으면 아예 돌
하나 건드리지 못해마씨.

제보자 : 건들지 못해.

조사자 : 문화재 반경 뭐,

제보자 : 뭐 그런게 잇나봐마씨. 그 심의 걸치고 다 절차를 걸쳐서 해야 댜는 모냥
이라,

제보자(2) : 당에 그디 돌 하나라도 없어 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댜는 거라마씨.

제보자 : 좋긴 험디다. 저 나무 병들었텐 허난 와그네 약도 치고 험디다만, (웃음)

조사자 : 건물도 문화재청에서 지은 거구나예. 그거 지을 때 마을에 물어봐마씨?

제보자 : 물어봐실테주게.

제보자(2) : 예. 회의해그네, 그 당시 이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의논행, 지어실테주게.

제보자 : 근데 나도 듣기로는 그 건물을 거기 지을께 아니고 그 사당위에다 지을
꼴로 댜는데

조사자 : 모른 육지사름덜은 다 거기 신당인줄 알아 거기 강 절 험실꺼우다. 아마,

제보자 : 예, 예. 거기 짓기로 했는데 그게 무신 문화재 법에 따라 걸린 모냥이라마
씨. 그제, 그제 조건이, 하천법에 걸렸텐 해신가? 뭘에 걸려갔고, 건축행위
가 안댜데마씨. 거기가, 안댜텐 흘 수엇이 거기 짓엇텐 허는 말은 들엇수다.

제보자(2) : 정허고, 그 우터레 짓게 허지 안험니다게. 원래 있는대로 보존허젠 허
지, 새로 강 탁허게 그 우터레 강 짓젠 험니까게. 차라리 흐끔 멀리
지영 온 사름 간 사름, 너무 가까이 지영 쓸모엇이 지어 놓긴 험, 경
해도 비오는 날은 흐끔 좋습니다. 게난 그 당시에도 의논행, 허당 버
치난 경 짓영, 말썽이 많이 잇엄수다게 그것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가
리 굴렁 짓어실텐꺼우다게.

조사자 : 이장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수과?

제보자 : 58 개띠우다.

조사자 : 60세네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우과?

제보자 : 예.

조사자 : 부녀회장님이쥬?

제보자 : 예.

조사자 : 회장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제보자(2) : 임선옥.

조사자 : 나이가 어떻게?

제보자(2) : 58세.

조사자 :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우과?

제보자(2) : 아니 제주시에서 나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안,

제보자 : 당 번지가, 잘라간 모양이네.

조사자(2) : 저희가 본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게 아니라. 청구권. 그러니깐 송당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주도가 자기들이 권리권을 행사하겠다. 소유권을 걸었다는 걸로만 돼있어서.

제보자 : 문화재라부난,

조사자(2) :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와홀이나, 문화재가 다섯개잖아요. 다른데는 그게 안돼있거든요.

조사자 : 마을회로,

제보자 : 마을회로 돼어 잇어마씨?

조사자(2) : 개인도 있구요. 문화재 다섯개중 3개는 마을회, 하나는 종친회, 하나는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월평동 같은 거는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조사자 :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돼부난, 관리는 보존회와 세계자연유산본부. 문화예술재단 말씀하시는 건 제주문화예술지킴이 말씀하시는거죠?

제보자 : 예.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는 허는데, 당 뭐 관리 허는 건 아니우다.

조사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허는 건 아니마씨?

제보자 : 예. 아니 아니. 본향당 번지가 당오름 전체로 돼어 잇일꺼우다. 한 12만 평방메타. 그 하천때문에,

조사자(2) : 하천때문에?

제보자 : 아까 그 잘라져 간 건 그 하천만 잘려져 간거고,

조사자(2) : 당은?

제보자 : 본향당은 아니고 본향당은 당오름에 같이 있는거죠.

녹음파일 번호 : 015

조사장소 : 송당리 알손당 당 가는 길

제 보 자 : 홍용기(58년생, 남, 송당리장)

조 사 자 : 송정희(1), 이재섭(2)

조사자 : 이렇게 도로를 뺏으면 도로만 잘라서 국가에 줍니까?

제보자 : 이거 도로 아니우다. 이거 임시로, 옛날에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았지. 그냥 걸영 다니니깐. 옛날에는 걸영 올 때는 일로 안다니고 밭으로 다녔지. 이렇게 도로가 필요 없었지 그때는.

녹음파일 번호 : 016

조사일시 : 2017년 8월21일

조사장소 : 신흥리사무소

제 보 자 : 김보홍(63년생, 남, 신흥리장)

조 사 자 : 송정희(1), 이재섭(2)

조사자 : 여기 신흥리에는 당이 몇 개나 됩니까?

제보자 : 3개마썸.

조사자 : 3개마썸?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 본향당은 어딴데?

제보자 : 거기가 본향당. 아, 본향당 할망당은 동남밭 밑에, 건 하르방당. 본향당은.

조사자 : 본향당은 하르방 당이랑?

제보자 : 게 이젠 다 하나로 할망당으로 묶었우다.

조사자 : 그든 그 당은 엮어진 거 마썸?

제보자 : 예 예. 당은, 당은 자리는 잇는데.

조사자 : 하르방 당은 잇는데,

제보자 : 그 활용은 안하고 잇주마썸.

조사자 : 아, 당 자리는 잇고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당 모양은 잇고예?

제보자 : 예. 그대로 잇고.

조사자 : 거든 3개. 하나는?

제보자 : 건 해안도로에 김씨, 건 문중 당. 김씨문중, 문중.

조사자 : 김씨하르방 당이?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 본향당, 심방, 여기 본향당에서 굿은 해마썸? 본향당에서?

제보자 : 굿은 거기서 허는게 아니고, 우리가 해신제하면은 아침에 가서 거기서
제 지내와가지고 어촌계에서 해신제를 지냅니다.

조사자 : 어촌계 창고에서마썸?

제보자 : 예. 어촌계 창고에서.

조사자 : 게든 김순안심방이 햄수파? 지금은 김영철심방?

제보자 : 응, 영철이.

조사자 : 해신제만 햄지예? 2월에 햄수파?

제보자 : 예. 2월.

조사자 : 영등굿은 아니고?
제보자 : 영등굿은 아니고.
조사자 : 영등굿은 아니라고 하잖아예?
제보자 : 영등굿은 그 누구냐, 북촌아이. 우리가 작년, 제작년에 했었나? 행사를?
조사자 : 영등굿도 하긴 해마씨?
제보자 : 아니 영등굿은 안합니다.
조사자 : 해신제만? 일년 한 번씩은 아니고?
제보자 : 일년에 한 번.
조사자 : 일년에 한 번 2월에.
제보자 : 예.
조사자 : 제일은 택일잇과? 회의해그네 정협니까? 아님 딱 정해져,
제보자 : 아니 택일 뺑.
조사자 : 택일 뺑 허는 거잖예.
제보자 : 게난 음력, 예, 우리가 음력 일월 초순, 일월 초순에 허주마씨.
조사자 : 음력 일월 초순에.
제보자 : 멩질 지내그네 바로 들어갑니다.
조사자 : 거믄 2월에 한텐 볼 순 없고 1월,
제보자 : 음력 양, 음력 일월,
조사자 : 정월.
제보자 : 정월. 양력으로는 2월이니깐.
조사자 : 거니깐 2월이렌 허믄 영등굿이카부텐 허난 그계 아니고.
제보자 : 1월.
조사자 : 1월 거믄 신과세제, 여기 할망당에 내려오는 이야기 혹시 아서마씨? 할 망당이 무사 할망당인지?
제보자 : 그 할망당 유래는 우리 신흥리 왜적이 침입할 때, 처녀가 해산물 채취하 레 갔는데, 왜적이 들어오다보니깐, 도망오당 보니깐 거기까지 와서 곱 았는데, 거기서 죽어가지고, 처녀가 거기서 할망당을 모셨다.
조사자 : 아, 왜적이 죽였구나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이장님은 거기 참석해마씨? 당굿힐 때?
제보자 : 아, 참석해야지.
조사자 : 사모님이?
제보자 : 아니 거기는 나는 참석안하고 여자덜 보내거든, 우리가 물건만 사주고, 남자는 안합니다.
조사자 : 아, 근데 경해도 절은 해야 뵈꺼 아닛과? 인사도 안해마씨?

제보자 : 아, 남자는 갈 수가 없기때문에.
 조사자 : 할망당은 갈 수 없는데 해신제는 가시죠?
 제보자 : 해신제 어촌계에서는 가지. 강 절허고,
 조사자 : 할망당은 아예, 영 고개 돌령 간텐 허드라예.
 제보자 : 거긴 남자는 출입금지.
 조사자 : 출입금지. 여기 본향 할망당 관리는 어디서 해마씨?
 제보자 : 우리가 햄주. 지금.
 조사자 : 리사무소에서?
 제보자 : 리에서.
 조사자 : 리에서 거기 청소도 하고 잡풀도 베고, 나무도 정리. 그러면 굿 할 때
 해신제 할 때 비용은 어떻 부담해마씨?
 제보자 : 그건 어촌계에서 알앙 허는 거주. 우리가 허는 게 아니고,
 조사자 : 아, 그건 어촌계 저거구나예.
 제보자 : 우린 마을 포제가 있어노니깐. 포제는 우리 마을에서 허곡,
 조사자 : 포제 끝낭 다음,
 제보자 : 예, 다음날. 예.
 조사자 : 다음날이잖아예. 그럼 포제 해동, 당에 인사해동, 당굿 하겠다예. 포제했
 던 음식을 할망당에 잠깐 올령?
 제보자 : 음식이 아니고 새로 준비하고,
 조사자 : 짬어정 당에 인사해동 다시 당굿허는 디 가몬 그때 당굿 시작,
 제보자 : 예. 포제 새벽 1시에 끝나면은 혼 아침에 혼 다섯시쯤에 강 해동, 이제
 어촌계에,
 조사자 : 그거는 여기 동네 할머니가 등에 짬어정 가드라예. 하르부지가 안가고예?
 제보자 : 그건 하르방이 가몬 안웨니깐.
 조사자 : 여기 참여자가 많드라예?
 제보자 : 전리민입니다. 리만 허는 게 아니고 육지 부산향우회, 우리 제주시 조천
 읍 신흥향우회, 여기 떠났지만은 다, 오지 못허면은 부지라도 얼마행 시
 사금식으로 영행,
 조사자 : 어촌계에서 한다고 허는 거는 어촌계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심방에 주
 고 허는,
 제보자 : 그 관계는 나가 잘 모르쿠다. 어촌계에,
 조사자 : 리사무소에서는 어촌계에 부주 안해마씨?
 제보자 : 헝끔 헝니다.
 조사자 : 얼마정도 돼마씨? 헝끔이문?
 제보자 : 우리마을에서는 혼 이십만원허고요. 또 이장 개인사비도 영 십만원 영

허고.

조사자 : 여기 만약에 여기 혹시 할망당 소유가 누군지 알아마씨?

제보자 : 건 모르쿠다. 소유는 거 공유지 님은디.

조사자 : 땅 소유는 모르시는,

제보자 : 건 공유지. 건 개인땅이 아니우다.

조사자 : 마을소유도 아니고예?

제보자 : 예.

조사자(2) : 여기 불래낭할망당은 도로로 잡혀있고요. 국가결로. 근데 하르방당, 거긴,

제보자 : 개인땅.

조사자(2) : 제주도로.

제보자 : 아, 거기 공유지로 뻬구나.

조사자(2) : 네, 종교용지로 잡혀있어요. 제주시에 어떤 곳도 종교용지는 없는데 여기만,

제보자 : 뭐 공유지다 보니깐 다 넘어가당 보니깐,

조사자 : 당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제보자 :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흐끔 아이가 아프다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당을 찾아갔거든, 또 옛날에 벨롱갱이라고 집에서 제
를 많이 지냈습니다. 마을 포제가 끝나면은 집에, 다 집집마다 벨롱갱이
를 다 했거든,

조사자 : 칠성신.

제보자 : 예. 허기 전에 먼저 당에 갔다와가지고 해, 지금도 가끔 오는 사름있어요.

조사자 :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이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보자 : 명함 안드렸수과?

조사자 : 제가 안드렸더니 이장님도 제가 안주셔수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보자 : 오뎡.

조사자 : 55세.

제보자 : 토끼띠.

조사자 : 여기서 태어났 여기서 쭉,

제보자 : 예.

조사자 : 당 소유가, 김씨하르방당은?

제보자 : 건 공유수면. 건 바닷가에 잇는거니깐.

조사자 : 만약에 그냥 물어보는거우다. 여기가 문화재가 되면 어떨 것 같애마씨?

제보자 : 아, 우린 반갑지 안해마씨.

조사자 : 문화재 반대?

제보자 : 왜냐든 문화재가 돼면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난 그것때문에 너무 제제가 많아. 우리가 문화재가 돼그네 보존은 좋은데 주위가 발전을 못허는거야. 우리 방사탑만해도 우리가 발전을 못허는게 바로 그거. 그 해수욕장 그 텐트치는 것까지 못하게 해볼더라고 그건 아니거든.

조사자 : 개발과 보존 문제가 걸어진 게 많구나예.

제보자 : 예. 사실적으로 보존허는 건 좋은데, 그 테두리 안에서 보존만 허든 돼지. 그 직선거리 200m, 300m, 아무것도 허지 못허게 허니깐. 그게 문제 우다게. 당도 보존허고 다 좋은데, 겐디.

조사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없어지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문화재로 묶어볼기엔 또 너무 제제가 많고.

제보자 : 예. 그게 문제이우다. 제제가 너무 많으니깐.

조사자 : 신흥리에도 신흥리새마을회가 잇입니까?

제보자 : 예. 우리 새마을회로 돼이십니께.

조사자 : 거든 제주도리는 다 새마을회로?

제보자 : 거의 다 새마을회로 돼잇우다.

조사자 : 여기 새마을회가 갖고 있는 땅이나 그런 것들도 소유가 많아마씨?

제보자 : 아, 많지는 않고 우리 신흥리는 많지는 않고,

조사자 : 잇기는 잇는 것과?

제보자 : 예.

조사자 : 마을이 다 새마을회로 된 걸로 봐야하는구나예?

제보자 : 거의 경 돼실꺼우다. 계난 이 관리를 허젠허든 개인이름으로 헐 수 없고 허니깐 새마을회 이름으로,

조사자 : 새마을회 회장님은?

제보자 : 아, 그건 이장이 돼는거고,

조사자 : 별도로 뽑지 않고 이장이 계속 되는거구나예. 매번 등기같은 건 계속 변경해줘야겠다예. 이장이 바뀌면?

제보자 : 그렇쥬.

조사자 : 이장님네도 선것과?

제보자 : 예. 선거합니다.

조사자 : 몇 년에 한 번 해마씨?

제보자 : 3년.

조사자 : 원래 이장은 다 선것과? 제주도?

제보자 : 제주도 다 선거우다.

조사자 : 한 사람만 나오지 않는 거든? 두 사람 이상 나오든?

제보자 : 아, 그렇지.

- 조사자 : 혹시 이장 선거에 외부인, 외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잇우과?
- 제보자 : 아, 외지인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디 들어왕 마을 규약이 있거든마씨. 규약에 기준해가지고 십년이상 거주했을 때,
- 조사자 : 외지인이기 하지만 여기서 십년이상 거주허든 이장선거. 이장선거정도 하기 시작허든 완전히 마을사람이라고 봐도 되겠다예.
- 제보자 : 켜데 문제는 또 개발, 우리동네는 우리동네 살아도 개발위원을 했던가, 저, 단체장을 했던가, 해야만이 이장 자격이 있는겁니다.
- 조사자 : 이장 선거. 내가 선거하러 가는 외지인인데,
- 제보자 : 아, 투표권.
- 조사자 : 이장선거정도는 가져야 마을사람이라고 인정이,
- 제보자 : 아, 그거는 3년입니다. 투표권 주는 거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다는 거지.
- 조사자 : 이거 중요한 거잖아예. 투표권이 있고 없고는.
- 제보자 : 예. 맞수다.
- 조사자 :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마을에서 인정하냐 안하냐의 문제인데. 다 마을마다 규약은 조금씩 달라마씨? 마을회의를 걸쳐가지고 결정허는,
- 제보자 : 예. 마을총회를 걸쳐가지고 마을 규약을 정허는 거니깐.
- 조사자 : 그냥 물어보는 건데 분향당을 국가에서 사가지고 마을 소유로 할 생각은 엇어마씨?
- 제보자 : 국가에서 사가지고 마을에 주면?
- 조사자 : 아니 이게 국가꺼니깐 이게 도로로 번지가 된 거라. 마을이 사가지고, 도로니깐 언제든지 없애볼 수 있잖아예? 국가에서, 도로를 새로 뿔겠다 고 하면 마을에서 할 말이 없수게. 그러니깐 그렇게 못하게 할려고 그거를 마을에서 사 놓는거죠.
- 제보자 : 아, 그건 살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예?
- 제보자 : 예.
- 조사자 : 원래 당은 3개였던거지예?
- 제보자 : 예.
- 조사자 : 원래 있었던 당이 없어지고?
- 제보자 : 없어진 당은 엇우다.
- 조사자 : 이 김씨하르방당은 김씨만 가마씨?
- 제보자 : 예. 김씨집안만.
- 조사자(2) : 김씨하르방당은 어디쯤?
- 제보자 : 신흥리해수욕장 옆에 해녀탈의장 가는 길 옆에, 지금은 풀이 많이 났던데.

녹음파일 번호 : 017

조사일시 : 2017년 8월 21일

조사장소 : 동회천마을회관

제 보 자 : 부영식(58년생, 남, 동회천새마을회장)

조 사 자 : 송정희(1), 이재섭(2)

조사자 : 여기 동네에 당이 몇 개나 잇우파?

제보자 : 하나.

조사자 : 여긴 동회천이지예?

제보자 : 동회천.

조사자 : 서회천은 따로 당이?

제보자 : 따로.

조사자 : 새미하로산당예?

제보자 : 아, 아니, 아, 맞아. 하로산당.

조사자 : 여기 당 주관하는 심방 성함 혹시 아서마씨?

제보자 : 아,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건 부녀회장님이.

조사자 : 여자분예? 제일은 14일이더라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 혹시 당 유래 이야기같은 거 잇수과?

제보자 : 당 유래? 거기 송당, 거기 뗏 번째 아들이렌,

조사자 : 동회천 새미하로산당 송당 8번젠가?

제보자 : 8번젠가 뭐 뭐, 어디가부러시,

조사자 : 8번째 닳수다.

제보자 : 11번젠가? (책을 보고 있음) 송당 12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조사자 : 여기 당, 당곳은 일년에 4번 해마씨?

제보자 : 두 번.

조사자 : 두 번만 해마씨? 신과세 정월 1월달하고 10월에?

제보자 : 백중뎐가? 한, 여름에 허던데. 이번에 헐건데,

조사자 : 마불림마씨? 음력 7월에? 요즘 헐꺼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그럼 음력 7월 닳수다. 정월, 7월 두 번. 당에 참여해 본 적은 잇우파?

제보자 : 예. 나 처음 마을회장 처음 맡을 때에,

조사자 : 인사허러,

제보자 : 예. 인사차 거기. 관리차원에서는 자꾸 가지요. 풀도 비고, 어저께도 우리 청년회에서 거기 다 풀 비고,

조사자 : 게메 깨끗합니다. 걸어가난 길이 썩 나 있어가지고 깜짝 놀랜,
제보자 : 어저께 청년회들하고,
조사자 : 관리는 여기 마을에서?
제보자 : 예. 마을에서.
조사자 : 여기가 동회천새마을회렌 해마씨?
제보자 : 동회천마을회.
조사자 : 동회천마을회에서 해마씨?
제보자 : 주로 부녀회에서 해마씨. 부녀회.
조사자 : 마을회하고 부녀회. 여기 굿할 때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마씨?
제보자 : 아, 그때는 우리가 마을회에서 일년에 당제비라고 해서, 마을회에서 정
기총회 끝나면 바로 나가는 돈이 잇수다.
조사자 : 그거는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내요?
제보자 : 아니 아니, 마을회 자금, 자금, 자금에서 부녀회로 돈을
조사자 : 부녀회로 보내주면,
제보자 : 부녀회로 보내주면 부녀회에서 그걸 준비.
조사자 : 굿 참여하는 사람은 마을 다?
제보자 : 전체는 아니고예.
조사자 : 한 몇 명 쯤 되마씨?
제보자 : 한 2~30명, 거 여자분덜만 가거든, 아즈망덜 부녀회에 나이드신 분덜.
조사자 : 이장님네는 따로 당굿할 때 인사 안갑니까?
제보자 : 특별히 가는 건 없고예. 자기 그 뭐 아니면은, 대부분이 남자는 잘 안가
예. 여자분덜만.
조사자 : 여자분덜만. 마을회가 있고 부녀회가 따로,
제보자 : 마을회 안에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조사자 : 그렇게 있는 거예?
제보자 : 예. 당 관리는 거의 마을회에서 한다고 봐야.
조사자 : 여기 당 소유가 마을회꺼드라예.
제보자 : 예. 땅 자체가 마을회꺼로 등기등본이 되어잇어마씨.
조사자 :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거 마씨?
제보자 : 예. 원래가 마을회.
조사자 : 그 일대가 다 마을회?
제보자 : 아니 그 번지만. 예. 당만. 진입로는 사실상.
조사자 : 진입로는 남의 땅?
제보자 : 진입로는 남의 땅이라. 남의 땅으로 되어 잇어.
조사자 : 거든 그거 뭐렌 허든 뭐렌 허겠다예?

제보자 : 지금까지는 그거 동네 사름 밧이니깐 뭐 허는 걸로 행 조금 내준거지.
 뭐 사람만 걸어가고 기계는 못 들어가니깐.

조사자 : 여기, 회장님 생각에 당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셔마씨? 필요하다?

제보자 : 아, 필요협주게.

조사자 : 이유가 뭐마씨?

제보자 : 그래도 저것 때문에, 신앙문제가 아니고, 저것 때문에 마을 전체가 같이
 단합도 되고 또 소통도 되고, 그래서, 꼭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 뭐 당 송
 배허는 사람 안허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당 허게 되면은 마을 전체의 사
 람들이 자기는 비록 믿지는 안허지만은 아, 이걸 우리 하나의 공동체구나.

조사자 : 화천사 오석불이 원래 저기에 있었던 거 아닛과?

제보자 :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저건 별도로. 그것도 여기(책)에 다 나왔는데, 포제
 렌 헌 거 있지 안헛과? 포제? 마을 이 제주도 전체 마을마다 허는, 우리
 도 요걸 허는데 우리가 요걸 허는 건 굉장히 특이하게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무일허게, 요것도 화천사꺼가 아니고 요것도 요땅, 그 숲 전체가 마
 을회 땅이라예. 이것도 마을회꺼라. 마을회,

조사자 : 여기까지, 여기가 절,

제보자 : 예.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은 마을회. 화천사꺼 아니고, 화천사도 원래 옛
 날에는 여기 있던게 아니고,

조사자(2) : 오해하기를 화천사 들어가야 오석불을 봐야하니깐,

제보자 : 오석불이 화천사꺼가 아니고,

조사자 : 오석불에서 포제를 허는구나.

제보자 : 예. 준비는 여기서 삼일동안, 합숙허면서,

조사자 : 복지관에서 합숙허시고,

제보자 : 예. 여기서 합숙허멍, 제관덜, 아즈망 딱해서 허고, 합숙해서 아즈망만
 어두어지면 집에 가서.

조사자 : 여기서 포제를 허시는구나. 포제랑 당곳이 겹치거나 허지는 않지예?

제보자 : 아니 아니. 그거는 마을 정기총회때, 날짜를 잡을 때,

조사자 : 택일허는거지예?

제보자 : 우선 마을에서는 당보다는 이 오석불제단이 크기 때문에 요거 허고 난
 다음에 당제를,

조사자 : 포제는 여자는 아무도 안가지 안협니까?

제보자 : 아, 준비허는 아즈망덜은 가지. 준비허는,

조사자 : 딱 정해져 잇우다예. 포제는 남자, 당곳은 여자.

제보자 : 예. 음식 준비나 제물 준비는 여자분덜이,

조사자 : 여기도 오석불도 마을회 땅이라든 거구나예.

제보자 : 예. 마을회 땅이우다.

조사자 : 잘 되어 있다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보자 : 60.

조사자 : 58년생이우파?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서 태어나서 쭉 여기서 사셨우파?

제보자 :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네가 이쪽으로 왔으니깐,

조사자 : 거문 태어나신, 출생?

제보자 : 옆동네. 와홀.

조사자 : 와홀리에서 태어났 중학교 때 오섯이븐 근 오십년 사셨구나예.

제보자 : 예.

조사자 : 혹시 직업은 별도로 따로? 농사?

제보자 : 아니 아니. 그냥 뭐 자영업. 이거 행 가든 뭐 지원 나오고 허는거?

조사자 : 그건 아니고예. 혹시 이 당을 문화재로 허든 생각은 어떠셔마씨?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예.

제보자 : 당 자체는 문화재로 허면은 뭐 그거는 괜찮지. 그 오석불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근데 반경 몇 메다는 뭐, 또 그것도 다 발굴해봐야하고, 그러니깐 그런 뭐가 잇어갓고, 그런거 그런 것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관리청이라든가 요런 데서 쯤 이렇게 관리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요거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분명히 동네 어르신덜하고 얘기를 해봐야하는 문제라.

조사자 : 다른데는 개인소유가 많고, 기업소유인 경우는 없애분 당도,

제보자 : 바로 옆 서회천만해도 당 자체가 땅이 개인소유. 근데 당은 마을에서 허니깐, 개발, 쯤 정비라도 허젠 허든 쯤, 개인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조사자(2) : 공동소유라.

제보자 : 개인소유로 뉘버리니깐, 우리는 그런 건 없거든. 우리같은 경우는 땅이 마을회 소속이라서. 없어지고 이거 헐 건 전혀 없지. 문화재를 허든 안 허든. 이거는 우리마을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매각된다는가 허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문제는, 마을지는 13년에 만든 거.

조사자 : 회장님 감사합니다.

녹음파일 번호 : 018, 019

조사일시 : 2017년 8월 22일

조사장소 : 김녕리사무소

제 보 자 : 강성일(45년생, 남, 김녕리장), 사무장, 이장님 손님

조 사 자 : 송정희

조사자 : 김녕이장님예?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제주시권을 돌고 잇인디예, 간단한 질문 몇가지만 혈꺼마썸.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여기 김녕에는 당이 몇 개나?

제보자 : 당?

조사자 : 예.

제보자 : 4개.

조사자 : 4개요?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동김녕 서김녕 나눠정 잇우과?

제보자 : 예. 서쪽에는 하나 두개 잇고예. 아, 당이 4개 더 돼는구나. 동쪽에는 요
기 하나 저기 저기 3개.

조사자 : 5개요?

제보자 : 예. 5개 돼우다.

조사자 : 당 어디 어디 잇는지 이장님 다 아시지예?

제보자 : 지금 어디 어디 사무장 당 잇는 지경 알아져?

제보자2(사무장) : 지경마썸?

제보자3(이장님 손님) : 아니 아니 당 이름덜 잇잖아?

제보자 : 무슨 당 무슨 당. 그거를 전파해서 나가 적어 올 꺼 아닛과?

조사자 : 아, 막 중요한 애긴 아니고.

제보자 : 허기야 경 협주게.

조사자 : 혹시 당 가보시기는? 이장님이 다 가보섯우과?

제보자(사무장) : 아니 이장님 다 가봤냐고 물어보는거.

제보자 : 예, 예. 다 돌아요.

조사자 : 여기 지금 굿허는 당은 몇 갯과?

제보자 : 굿 허는 당은 하나 두개, 굿을 전문으로 허지 앓고 굿허는 거는 당 안에
서 아픈 사름이나 푸는 거고, 정월에예, 정월달에 동네분덜 안녕을 무세,
무사협센 허가지고 즉 말허면은 가정에 편안입주게. 알고 보면은 가정에

편안해가지고, 밥도 허고 고기도 가져가고 사과 이 과일 ㄱ튼거 해가지고, 그 지 싸가지고 전부 다 올립주게. 올려가지고 춤 그 심방덜 점보는 식으로,

조사자 : 그 정월에 허는 당이 어느 당마씨?

제보자 : 전부 다 합니다.

조사자 : 전부 다요?

제보자(손님) : 아, 당 이름이 뭐고?

제보자 : 김녕 당 이름 알아져? 모르주게. 심방신디 가든 철저히 압주.

조사자 : 심방은 서순실심방만 해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다른 심방은 안해마씨?

제보자 : 안합니다. 정해진 심방만 해마씨.

조사자 : 음. 서순실심방만.

제보자 : 행원ㄱ지 갈꺼우다. 우리 김녕심방이.

조사자 : 당 유래같은 거 아는 거 잇우과?

제보자 : 아, 그런 건 모릅주게. 일렛당허고, 그 아기 안나는 사름덜 가서 그 소원을 비는 당.

조사자 : 여기 바닷가에 있는 돌맹이 이렇게 잇는 당은 무슨 당잇과?

제보자 : 아, 거기 거기가 원래 그 영등물 쪽에 잇는 당이 거기가 원래 자식을 못나는 사람덜, 거기가 저거 기도드리고,

조사자 : 돌에 줄도 영 매달령 잇언게만은,

제보자 : 예, 예. 그디우다. 영등물. 거기,

조사자 : 그 이름이 뭐마씨? 그 당이름이?

제보자 : 영등물, 영등물당,

조사자 : 영등물당? 아, 영등ㄱ루당.

제보자 : 게난 자식을 못나는 사름덜 거기 가서 비는겁주. 비는거. 아, 어제께 전뉘로 그 당 애길 해시든 나가 다 적영 올꺼 아넛과게.

조사자 : 어제 물어봣우게. 당조사 때문에 전화드렸다고.

제보자 : 걸 세밀히 알아줘야, 오면은 당 멧 개. 4개든 4개 내가 이런 걸 헐라고 해십주. 뭐 잇어?

제보자(사무장) : 여기 당이름.

제보자 : 여기 앓앙 알아줘게.

조사자 : 아니 이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헐꺼마씨. 당에 참여, 이장님 당 굿헐 때 꼭 강 참여, 인사나 해야 뉘잖아예?

제보자 : 예. 인사,

제보자(사무장) : 인사허는게 아니마씨.

제보자 : 굿허젠 안합니다.

제보자(사무장) : 굿허젠 허는게 아니고, 개인대 개인으로 허는거지, 다른 마을같이 막 굿허는게 아니마씨.

제보자 : 이녀이 가서 절해고 굿허는 건 아니, 막 아픈 사람이나 잇일 때 굿을 살령 허는거고, 경 안허믄 정월당은 평상시,

조사자 : 영등굿도 안해마씨? 해신제?

제보자(사무장) : 해신제는 해마씨. 그때는 굿허면서 허주만은,

제보자 : 그건 해녀, 해녀. 해녀덜 해신제 합니다게. 동서양미, 동쪽 서쪽.

조사자 : 따로 따로 해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심방도 따로 따로 해마씨?

제보자 : 예. 따로 따로,

조사자 : 아, 해신젠 심방 따로 따로?

제보자 : 예, 서김녕은 절에서 하고, 동김녕은 심방이 하고.

조사자 : 서김녕은 절에서 하고, 절, 동김녕은 서순실심방이 하고.

제보자 : 예.

조사자 : 해신제. 영등굿은 안하고마씨?

제보자 : 무사, 영등굿도 합니다.

조사자 : 해신제가 영등굿, 같은 것과?

제보자 : 예, 예. 영등굿이나 해신제나 마찬가지로마씨. 그 일년을 해녀덜 비는 거니깐.

조사자 : 이거는 어촌계에서 허는 것과?

제보자 : 예, 예. 어촌계.

조사자 : 정월에 신과세제나 뭐 그런 거는 당에서,

제보자 : 그런 건 안하고 양력 3월에,

조사자 : 당에서 허는 거?

제보자 : 당에서 허는 거는 정월에.

조사자 : 정월에,

제보자 : 예, 2월까지

조사자 : 하나 잇우과?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일년에 한번?

제보자 : 앞으로 8월달인가 칠월칠석에도 당 합니다.

조사자 : 그렇게 정월에 허는 굿은 전혀 여기 리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제보자 : 예. 개인적으로, 다 개인입니다. 이걸.

조사자 : 심방 빌렁 허지 않고 다 개인,
제보자 : 우리는 토지, 저 뚫고 마을제, 마을제.
조사자 : 마을제?
제보자 : 예. 포제, 포제.
조사자 : 여기 리에서 허는 건 포제?
제보자 : 우리 마을에서 큰 제 지내는 건 일년 한번 정월에 포제, 포제합니다게.
조사자 : 여기 영등굿이나 해신제할 때 어촌계,
제보자 : 예. 그집주. 어촌계에서만.
조사자 : 리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굿비용을,
제보자 : 아, 우리도 도와줍니다.
조사자 : 그냥 부조,
제보자 : 예. 부조합니다.
조사자 : 어촌계에서 다 허는 거라는 거지예?
제보자 : 예. 해녀 기준으로 허기때문에, 해녀를 우선으로 허기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협조사항에 그런 건 해주고, 우리 마을 제청, 마을제는 우리 리에서 크게 합니다. 도지사도 오고 다, 전부 다 오게 뚫우다. 마을제니깐,
조사자 : 당 청소나 관리는 어디서 해마씨?
제보자 : 관리는 그 자기네가 해마씨.
조사자 : 자기네가?
제보자 : 심방이. 자청해서 합니다.
조사자 : 당들 다? 일뤼당이니, 심방이 해마씨?
제보자 : 예, 심방이 허고 또 심방이 가비면은 본인 직접 가서 절해고,
조사자 : 관리, 풀 베고 청소,
제보자 : 아, 그거,
조사자 : 리에서 하거나 그런 건?
제보자 : 우리는 그 포제당만 허지.
조사자 : 포제단만 허고 당은?
제보자 : 일반 심방이 가서 허는데는 우리 안합니다. 그 사름덜이 허지. 심방덜이 해마씨.
조사자 : 심방, 서순실심방이,
제보자 : 예. 만약에 풀이 많이 났을 때는 리장에게 협조를 바라예. 그거는 다합니다. 큰일은. 거난 스스런 거, 소규모에 대해서는 그사름덜이 허겄주만은, 만약에 잡초가 많이 났거나, 나무나, 그런 거는 우리 리에서 해줘마씨. 돈을 들여가지고.
조사자 : 여기 김녕중학교 옆인가? 큰당잇과? 본향당마씨?

제보자 : 예. 중학교 옆이. 예. 그디도 잇고 요 나가면은 해수욕장 그디도 잇고,
조사자 : 거기가 성세깃당?
제보자 : 예. 성세깃당.
조사자 : 거기 당에는 찾아가는 사람은 많습니까? 아직도?
제보자 : 예. 합주게. 거의 다 갑니다.
조사자 : 해신제 영등굿 허는 사람들도 많고마씨?
제보자 : 그디는 해녀를 우선 기준으로 허니깐 부주허는 사람에, 다른 춤 만원이
라도 가정 가는 사름 다니지. 그 가정 부인털은 잘 안갑니다게. 행사식
으로 해가지고,
조사자 : 여기 해신제는 택일이지예? 택일?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4월쯤에 합니까?
제보자 : 예. 4월.
조사자 : 양력 4월쯤.
제보자 : 예.
조사자 : 마을,
제보자 : 마을 정성이지 마을제, 거난 그 일렛당 ㄴ튼 데는 만약에 자기 가정에
자식을 못 낳는 사름덜 이런 기도허는 식입주게. 영 보면은 옛날에도 그
런 잇엇주마씨게. 메누리가 들어왔거나 딸이 어디 자식을 못 낳을 때는
부모가 그,
조사자 : 일렛당 가가지고 빌고,
제보자 : 예. 제물해가지고 가서 빌어준다는 겁주게. 하나의, 행원도 마찬가지로
다. 심방이 우리 김녕사름이 가가지고, 행원 큰당에 가서 일을 해마씨.
옛날 그 이중춘씨가 돌아가부니깐, 거기 두에는 일허는 여자들도 잇고,
게난 김녕심방이 가서 다 일을 합니다.
조사자 : 여기는 당굿은 없고?
제보자 : 예. 우리 저 뒹고 제베깃 안해마씨.
조사자 : 영등굿,
제보자 : 영등굿은 해녀덜허는 바로 그겁주.
조사자 : 영등굿과 해신제가 같은 거 아닛과?
제보자 : 해신제와 같은 거라마씨. 알고 보면,
조사자 :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예. 여기 당 성세깃당이니 퀘뵈깃당이니
그 당 토지가 소유가 혹시 누군지 알아마씨?
제보자 : 그것도 모르지, 그 옛날, 나가 그런 걸 알아야 뵈 사름인디 이장으로써.
게난 그런 거 질문이 하카부텐 생각지도 안혀고, 나가 한번 수일에 알앗

다가 다 적영 낫두쿠다. 다음에 한번 오시면은 나가 그 당도,

조사자 :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게, 당이 소유가 누구꺼냐, 밧더니, 개인도 있고 마을 소유도 있고 국가 소유도 있고 도 소유도 잇더라고예. 도도 가정 있고, 국가나 도는 도로로 많이 되어있더라고마씨. 도로가, 여기가 퀘네킷당이 도로로 뒤흔는데 거문 퀘네킷당 도로로 뽑아버리면 엇어저볼꺼 아니예.

제보자 : 경협주.

조사자 : 경협주 댜 건가, 그런 거 물어보러 온 거마씨. 어떻 생각했신가, 마을에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보자 : 아니 그것이 도로로 뽑앗일 때는,

조사자 : 그게 도로 나야 뒤흔 길인모양이더라예.

제보자 : 나라에서 허는 일이야 막을 수가 잇입니까게. 보존지역을 보존을 안해주면은 헐 수 없는 겁주게.

조사자 : 경해도 이장님네가 이거는 우리 마을에서 잇어사 쫘 좋지 았을 건가 생각허든 보존해달라고 요청허든,

제보자 : 그런 것도 헐 수 잇는데, 내가 본건데는 당이 너무 많아예.

조사자 : 김녕에 많우짜?

제보자 : 예. 당이, 우리집이 사람도 그 당에 갓다가 저 당에 가는데, 그거 쫘 번 거롭지 안허냐, 그래서 나는 그 미신을 좋아라 안허주만은, 당에 갈빠에는 큰당에 한 번만 가서 허든 뒤흔꺼 아니냐해도 여자덜은 그것이 아니아니우짜? 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년에 3번 가마씨. 정월에 정성허면서 경헌디 막을 길이 엇지 안헛과, 여자덜 가는 거를 그런 데는 보존지역으로 살려야 허는데 의무적으로,

조사자 : 건디 퀘네킷당은 아무도 안감수게.

제보자 : 맞수다게.

조사자 : 경해도 퀘네킷당이 역사가 잇고, 김녕에서 경해도 퀘네킷당이 유명한 당인데,

제보자 : 퀘네킷당은 나도 한번 살려 볼려고 허고는 잇우다게. 게난 저 이거를 뒤흔고, 살려가지고,

조사자 : 그런 거 이장님 의견 물어보는 거마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보자 : 게난 역사에 잇는 당은 살려야협주. 역사에 엇는 거는 뒤흔, 옛날부터 쫘 내려온 거니깐예.

조사자 : 이장님은 당에 안가시지만 경해도 당이 그래도 마을에 잇는게,

제보자 : 아이고 그럽주게. 손님도 오고 구경도 허곡,

조사자 : 관광적인 부분도,

제보자 : 많이 읍니다. 구경.

019음원

제보자 : 그것이 그 가로등 문제,

조사자 : 아, 가로등.

제보자 : 예. 이거 쏘 설치를 해줍센 해가지고 마, 수일내로 가로등 옵니다.

조사자 : 아, 새벽에 와부난예.

제보자 : 예. 불 없으면 안돼니깐, 나가 알긴 내가 주장허는 거는, 꼭 가로등을 해줘야 된다. 보완해서 했는데, 심방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예.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해자. 나는 옆에 풀이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이 하자. 으견이 안맞는 거라예. 아, 이양이면 당은 당이니깐, 들어가는 사람도 좋아야지. 옛날 수풀 속에 차라리 잇으면은 좋은데, 그 중학교 앞에 ㄱ추룩 거기도 우리가 다,

조사자 : 정비,

제보자 : 우리가 다 정비헛우다게. 우리 리에서 요청해가지고,

조사자 : 관리는 어찌됐든 리에서 한다고 봐야겠네예.

제보자 : 예. 다 험수다.

조사자 : 정비 뭐 이런 거 뭐,

제보자 : 예. 그런 거짓말헛니까게. 여기 심방 잇주만은 그디 저 만장굴 해수욕장 앞이도, 들어가는 데도 내가 전부 다 해줬고, 거기도 들어가는 데 가운 데 가서, 가로등 세울 꺼로 댜고, 또 중학교는 왜 안돼는냐허면은, 거기 가 밝이 많아예. 거니깐 농사지는 사름덜이 안됐다. 이래서 보류헛고, 또 나무 윗똥이 잇우다게, 이게 추우니깐 천막이라도 쳐줘야 헛 꺼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서 해주기로 헛우다만은, 또 연락도 엇고 해부니깐 지금 보류상태로 잇우다게. 게난 가로등만은 두 곳 다 헛 꺼우다. 내가,

조사자 : 가로등, 거문 리에서 관리 다 하시네요.

제보자 : 아니 해들렌만 허든 다 헛주게. 게난 심방이 안해드렌허는 거를 해주켄 은 못 헛 꺼 아닛과? 자기가 알아서,

조사자 : 필요하다 리에 얘기를 하면은,

제보자 : 필요헌 걸 얘기해줘야 해지.

조사자 : 가로등 중요해마씨.

제보자 : 흰허게 해야 헛주게. 옛날엔 호랭이불 썰 때고 지금은 세상이 다 흰허지 안헛과게? 그런데도 흰해야허고, 제 지내는 데도 깨끗허야하고, 솔직히 말이야 바른말이지, 심방허는 거 보니깐 내 마음에는 안들어예. 너무 추 접허니깐, 쏘 사름덜이 가도 쏘 환경이 좋아야 뉼 꺼 아닛과게? 당 안네 도 이미지가 좋아 뉼 거 아니냐? 그래도 심방은 그것이 아니라예. 자기 생각데로만 헛디다게. 나도 게문 네불라.

조사자 : 음, 두 가지 다 의미는 있는 거 다텐마씨.

제보자 : 그렇주.

조사자 : 깨끗하게 정리된 것도 좋은 것 같고, 옛날 모습 그대로 퀘네깃당처럼 굴 상태 그대로 된 것도 사람들이 볼 때 아,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제보자 : 행원에 가면은예, 당이 커예. 아주 주변도 깨끗하우다게. 행원에서 바로 내려가면은 그 해변가 쪽인데, 뭐 마을과 부뻗우다게. 가봐야 당이 옛날 부뻗 이렇게 깨끗했구나허는 걸 알지. 김녕당은 내가 봤을 때는예. 당이 아니라마씨. 난 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접허니깐,

조사자 :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제보자 : 개똥도 싸고 뭐, 넘어가는 사람도 뒤 볼 정도라, 그런데 무신 당이 필요 잇느냐 허는 거지. 깨끗해야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도 아, 가서 이걸 쫘 이상헌 디로구나 행 오줌도 안싸고 허는데,

조사자 : 정리 안되어 있으면 모르니깐,

제보자 : 당 모르는 사람이 천지만지 아닛과게. 제주도 사람도,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는 생각했는데, 심방은 그생각을 안허더라 허는겁주.

조사자 : 경해도 이장님 생각에 경해도 당은 잇어사 될 꺼렌 생각허시는 거지예?

제보자 : 당연협주.

조사자 : 음. 해신제는 무사 동김녕 따로 서김녕 따로 허는 것과?

제보자 : 통합을 해서 한 곳으로 할라고 했는데, 그 어촌,

조사자 : 그 해녀덜이 다른거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동김녕어촌계가 잇고 서김녕어촌계가 잇어마씨?

제보자 : 옛날에는 갈라십주게.

조사자 : 아, 지금은 하난데?

제보자 : 하나로 뉘시믄 뉘는데, 리가 하나로 혈 때는 어촌계부뻗 우서 하나로 만 들려고 현 거라예. 켜디 계장 나오는 사람덜이, 어느 사람은 어떻협니까, 나 도지사 나오민 나 이거 허겔다해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지 안헛과? 나오면은 나올 때는 하나로 허겔다. 막상 하고보면은 못허는 거라마씨. 글썸 것이 세월이 혼 15년이 흘른거라마씨.

조사자 : 아, 지금 어촌계는 하난데,

제보자 : 해녀는 단합을 못허는 거라마씨. 문제는 그거우다게. 해녀가 단합뉘어야 허는데, 우리 리만 단합뉘 거라마씨.

조사자 : 원래는 이게 리가 나뉘져 잇던 마을이엇우과?

제보자 : 예, 예. 동서, 마을이 크지 안헛과?

조사자 : 예. 마을이 너무 커가지고,
제보자 : 1,370호가 되는데 옛날에도 동서 양리가 갈린 거 보면은 통설이 안됐거라
예. 예? 마을이 크니깐 옛날에, 법정호수가 커노니깐, 그래서 이렇게 된
걸꺼우다.
조사자 : 이장님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보자 : 나 이제 73마씨.
조사자 : 아, 정정하시다예.
제보자 : 나 원래는 43년생인데, 존나비씨 아, 염소씨. 양띠.
조사자 : 염소띠.
제보자 : 자꾸 염소띠렌 골아져. 양띠주게 양띠. 원래 호적으로는 45년으로 돼서
예. 옛날에 아방 각시가 일곱이라예. 경해부난 다 따불 따불, 형제가 하
니깐 군대를 못가게 호적에 다 경헌 거.
조사자 : 아, 형제가 군대를 같이 못가게 호적에 나이를 그렇게. 원래 나이는 75
세가 되는것과?
제보자 : 예.
조사자 : 호적이 73세.
제보자 : 예. 행원이우다. 고향.
조사자 : 고향은 행원이십니까?
제보자 : 예. 경헌난 행원 당도 잘 암주게. 나가. 여기 처가마을이우다게. 처가마
을. 서김녕힐 때도 서김녕이장했고, 통합한 후에도 여기서 이장하고,
조사자 : 행원리에서 여기로 장가를 오신거네예.
제보자 : 여기 처가마을, 처가마을.
조사자 : 여기 사신지도 거의 50년은 넘으,
제보자 : 예.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건디 자꾸 고향 아니렌 햄수께.
조사자 : 출생이 아니,
제보자 : 거니깐 발전이 안되는겁주. 나가 육지사름도 아니고, 같은 구좌고, 또 조
천면 사름도 아니고, 경해도 외방사름이렌, 한 11월달에 오면은 다 데령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다 허커메.
조사자 : 이제 이장님 하신지 얼마나 되시는거마씨?
제보자 : 나 이제 한 9개월차 됩수다.
조사자 : 여기 이장 선것과?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 이주민도 오래 살든 선거해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한 얼마나 살든?

제보자 : 한 6개월만 넘어가든 해마씨. 선거권은. 여기와서 리사무소에 와서 신고 해야합주게. 근데 자기 주권행사는 못해예. 이 재산을 놓고 허거나, 예를 들어 분쟁을 일으켰을때, 나가 이제 서울사람이 김녕에 왔다. 거주를 해도 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안뵈주게.

조사자 : 이게, 재산권 안된다는게 뭐마씨? 땅을 못사요?

제보자 : 아니 땅을 사고 안사고 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 김녕새마을회 재산,

조사자 : 아, 김녕새마을회 재산. 몇 년을 살아도 안되는거마씨?

제보자 : 예.

조사자 : 여기 김녕마을회도 새마을회와?

제보자 : 김녕새마을회도 땅이 많주게.

조사자 : 마을회 회장이 자동 이장님마씨?

제보자 : 아니 아니. 선거.

조사자 : 아니 김녕새마을회 회장이 이장님마씨?

제보자 : 이장 관리로 다 하는거마씨.

조사자 : 거니깐 새마을회가 마을,

제보자 : 같은거.

조사자 : 새마을회 땅이 많아,

제보자 : 아, 많아마씨. 김녕이 젤 할꺼우다. 구좌에서도. 조천도 조천같은데야 하나도 없주만은, 제주도에서 김녕이 젤 할꺼로 봐마씨.

조사자 : 송당가난 송당마을에 삼성재단 땅 막 많데,

제보자 : 송당, 조천더러는 삼성땅이고, 여기도 삼성땅 하우다. 김녕도,

조사자 : 무사 경 삼성땅이 많은거우과?

제보자 : 옛날에는 권력주의 행사허지 안헛우과게. 거니깐 마을에서도 그거라예. 권력있는 사람에 새마을땅 다 낫다가, 자식대 뵈면은 다 자기 부모이름에 잇으니깐 빼먹는겁주. 게난 이것이 마을사람덜이 쏘 머리가 옛날에는, 나나 늙이나 다 뱀질 못헛우게. 게난 글이 몰라노니깐, 뭐가 뵈지도 모릅주게. 김녕도 저 한라제일 거 골프장도 알고보든 다 김녕땅이우다게. 도땅으로 옛날에는 군땅으로 넘어가면서 빼앗지를 못헛는데, 그때 당시도 빼앗일 견데, 사람이 모자네니깐, 그렇게 뵈겁주게. 게난 나라에서 행사를 헛 것 때문에, 원래 골프장도 우리땅이우다게. 옛날 거,

조사자 : 도에서 팔아먹어본 거마씨?

제보자 : 예. 옛날 군에서. 북군, 남군헛 때. 돌담도 옛날에 잠대로 농사짓지 안헛우과게. 다 퀘를 만들어십주게. 목장을.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게 뵈분거지. 거니깐 사람이 없다는거지 김녕예. 그렇게 아시고예. 혼 11월달에 읍서.

연구진

연구책임	김 석 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
공동연구	송 정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공동연구	이 재 섭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주학연구 45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일 || 2017년 10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47-6138 팩스: (064)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

ISBN : 978-89-6010-555-3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